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 워크숍

한국의 서원문화재 보존관리 현황과 미래

일 시 : 2011년 12월 12일(월) 10:00~17:30

장 소 : 국 립 고 궁 박 물 관 강당

주최 : 국가브랜드위원회 · 문화재청 / 주관 : 한국서원학회 /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 이 발표논문집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 워크숍

한국의 서원문화재 보존관리 현황과 미래

일 시 : 2011년 12월 12일(월) 10:00~17:30

장 소 : 국 립 고 궁 박 물 관 강당

주최 : 국가브랜드위원회 · 문화재청 / 주관 : 한국서원학회 /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 이 발표논문집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프로그램

시 간	일 정
09: 30~10: 00	접수 및 등록
10: 00~10: 20	개 회 식
오전 발표 사회: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10: 20~11: 20	. 발 표 1 : 김영모(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서원 주변경관의 훼손과 보존관리 문제점” . 지정토론1 : 정경성(전남도청 학예연구사) . 지정토론2 : 홍승재(원광대학교)
11: 20~12: 20	. 발 표 2 : 이왕기(목원대학교), “서원 건축물 복원과 보존관리 문제” . 지정토론1 : 박성진(한국서원연합회 상임이사) . 지정토론2 : 강대익(장성군청 문화재계장)
12: 20~13: 30	오 찬
오후 발표 사회: 박경립(강원대학교)	
13: 30~14: 30	. 발 표 3 : 김철주(문화재청 전문위원), “서원 보존관리에 따른 행정적 검토” . 지정토론1 : 정순우(한국학중앙연구원) . 지정토론2 : 송준태(영주시청 학예연구사)
14: 30~15: 30	. 발 표 4 : 이상해(성균관대학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서원 보존관리의 올바른 방향” . 지정토론1 : 이해준(공주대학교) . 지정토론2 : 허 권(한국전통문화대학교)
15: 30~15: 50	휴 식
15: 50~17: 30	종 합 토 론 사회: 이혜은(동국대학교)
18: 00~19: 30	만 찬

목 차

프로그램	1
목 차	2
제1발표 “서원 주변 경관의 훼손과 보존관리 문제점”	3
지정토론1	22
지정토론2	23
제2발표 “서원 건축물 복원과 보존관리 문제”	24
지정토론1	49
지정토론2	52
제3발표 “서원 보존관리에 따른 행정적 검토”	54
지정토론1	74
지정토론2	76
제4발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의 서원’ 관리의 올바른 방향”	78
지정토론1	87
지정토론2	89
종합토론	

서원 주변경관의 훼손과 보존관리 문제점

김영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

I. 시작하면서

II. 서원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조경적·경관적 가치

1. 성리학적 자연관과 생태학적 사고의 관련성
2. 풍수지리적 입지의 전형으로서 가치
3. 유식공간으로서 누각과 조망 대상의 경관적 가치

III. 서원의 경관훼손과 보존관리의 문제

1. 합리적인 문화재지정구역의 설정 문제
2. 서원 안에서 바라다볼 때 나타나는 경관 훼손의 문제
3. 경내외에 신축된 건축물에 의한 경관 왜곡 문제
4. 인접한 민간에 의한 가시성 차단과 경관상의 부조화 문제
5. 원형 식생경관의 보존과 복원문제
6. 원형 경관과 현대 조경시설물의 경관적 조화 문제

IV. 마치면서

I. 시작하면서

서원은 조선시대 사회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질서를 재편성하며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간 핵심공간이자¹⁾ 道學을 이상으로 삼던 사림세력들의 관념세계가 반영된 성리학적 이상세계였다.²⁾ 이러한 서원이 최근 문화재적 가치는 물론 정신적, 교육적, 문화적 가치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서원은 교육적 기능만을 갖는 鄉校와는 달리 향촌을 교화하고 향촌에 바탕을 둔 공동체적 삶을 가능케 한 건전한 삶의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사람, 자연, 건축이 하나가 되는 인문환경과 문화경관을 조성했다. 서원건축 자체는 원칙에 입각한 절제되고 단아한 건축 형식과 질서, 그리고 주변 자연에까지 사고를 확대케 하여 자연과 인공을 합일하려는 건축공간 처리와 배치형식으로 성리학적 이상이 극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한 조선시대 사대부 지식인들의 정신세계의 한 단면이었다. 그 정신은 지금까지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이어져 내려오며, 우

1) 이미영, 2006, 조선시대 서원건축공간에 나타난 미학사상 연구,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논문집 19; 115쪽~138쪽.

2) 이상해, 1998, 서원, 열화당.

김상협, 2000,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나타난 유상공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리들의 정신을 맑고 건전하게 하는 원형을 이루는 데에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받아들여 발전시킬 수 있는 보편적 가치체계와 정신세계를 포함하고 있기³⁾도 하다.

조선시대 서원의 다양한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한국서원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서원은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을 비롯하여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안동), 무성서원(정읍), 필암서원(장성), 옥산서원(경주), 도동서원(달성), 남계서원(함양), 돈암서원(논산)까지 총 9개 서원이다.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우는 중국의 백록동서원이 유일하다. 다만, 백록동서원은 서원 자체로서가 아니라 廬山國立公園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⁴⁾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도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들 나라의 서원은 祭享 기능만이 전부나 다름없다. 반면 우리나라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이라는 시대정신을 품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의 정신과 자연의 언어를 통해 자연이 주는 교훈을 얻어 인성을 완성시켜나가는 교육적 장소이자, 자연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태건축의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는 문화경관이라는 차별성이 있다.

앞으로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된다면 이는 우리의 문화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가 또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그 효과는 매우 크다. 해당유산의 보호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지원을 높일 수 있고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도 작용하기 때문에 소재 지역 및 국가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유산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유산들은 국제적 협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산 보호에 대한 사업들에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존계획 및 관리의 수준이 향상되며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고용기회 및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세계유산 등재 효과로 인해 각국은 자국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심사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보편적 탁월성'과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integrity)'을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등재기준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 유산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효과적인 시행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수 관람자들에게 개방되는 유산의 경우 방문객의 관리와 그 보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인 관리체계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잠정목록 신청과 등재, 등재신청서 제출과 ICOMOS 주도의 자문기구 평가라는 국내외의 냉정한 평가와 국내외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통과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찾고 이를 국내외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원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회복하고 적절한 보존관리계획도 수립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원은 우리 모두의 공유의 문화자산이기 보다는 門中の 소유로 인식되어 무분별한 보수와 과도한 전시관의 건립이 남발되고 있다. 서원이 소재한 지자체는 보존과 관리 보다는 관광수입을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서원건축과 경관이 왜곡되고 있기도 하다. 또 문화재적 고려가 배제된 도시개발은 서원 입지의 맥락적 바탕인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의 9개의 서원을 대상으로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경관적, 조경적 측면에서 평가해 보고, 현재의 보존과 정비의 양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찾고 이를 개선하고 보존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이상해, 1998, 서원, 열화당, 10~12쪽.

4) 장시성(江西省)에 위치한 루산(廬山)은 중국 문명의 정신적 중심지 중 하나이다. 루산 국립공원은 불교 및 도교 사원들과 아주 저명한 인물들이 가르침을 받은 유교의 서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빼어나게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는 곳이다. 이곳은 중국 문화에서 발견되는 자연에 대한 미학적 접근을 발전시킨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루산 국립공원을 뛰어난 미학적 가치를 지닌 문화 경관으로서, 그리고 이곳이 중국인들의 정신적, 문화적 삶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여 문화 기준 (ii), (iii), (iv), (vi)에 근거하여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II. 서원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경관적·조경적 가치

1. 성리학적 자연관과 생태학적 사고의 관련성

서원 교육의 목적은 法聖賢과 養吏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서원의 교육활동은 성리학을 그 학문적 기초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서원의 교육목표는 곧 성리학의 교육목표와도 같았다. 성리학은 그 이름이 의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심성에 내재된 天理를 실현함으로써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爲己之學'의 학문이다. 따라서 자신을 도덕적으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법성현은 서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 교육기관의 일반적 목적이었던 양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서원의 교육은 윤리적 목적에서 도덕적 이상인격의 실현과 현실적 목적에서 관리양성의 두 가지를 교육목표로 내세우고 있었다. 서원의 교육내용은 서원이 충실한 유교의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 교육내용은 유학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유학 중에서도 특히 성리학의 교학에 힘썼다. 성리학에서 주로 거론되는 理·氣는 우주만물의 근원과 생성의 원리를 논의하는 것이고, 心·性·情이나 人心道心, 人物性同異 등은 인간의 본질과 존엄에 대한 논의인 것이다. 이처럼 천지만물의 근원과 생성을 다루는 宇宙論과 인간의 본질과 존엄성을 논의하는 人性論을 중시한 이유는 天人物我的 근원이 동일한 것임을 깨닫게 하고, 天人合德을 역설하여 聖賢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려는 윤리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성리학의 윤리학적 내용이 가장 중요한 교육내용을 이루고 있었다.⁵⁾

따라서 주변의 풍광이 아름다운 서원의 입지적 요구조건은 단순히 산수를 즐기는 것에만 있지 않았다. 이를 넘어 학문의 연장으로서 고요히 우주의 이치를 궁리하며 性情을 닦는 공부의 바탕이 되었으며 자신과 자연의 성리를 통한 道學的 완성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⁶⁾ 이 때문에 서원은 교육공간으로서 건축물의 집합체라는 차원을 넘어 성리학적 가치관, 세계관, 자연관을 융용시켜 엮어낸 조영물로 보아야 한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성리학으로 그들 정신세계의 대우주를 만들고, 자신들이 藏修 하던 서원을 소우주로 상정하였다. 그곳에서 삶의 진리, 정신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가 살아 숨쉬는 공간과 인간의 규율과 질서, 그리고 주변 자연과의 관계로 사고를 확대케 하여 자연과 인간이 합일하려는 성리학적 이상이 서원의 입지와 배치, 공간구성에 스며들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의 자연은 '居敬窮理'의 공간이자 자연의 질서 있는 변화를 보면서 天理의 妙用을 배울 수 있는 대상이었다. 자연은 거경·궁리의 수양을 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道場인 셈이다. 이에 퇴계 같은 이는 陶山에 거처하면서 주위의 자연으로부터 심오한 이치를 깨닫고 즐거움을 느낀 것이다⁷⁾

이처럼 조선시대 서원의 보편적 가치는 건축물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그 보다는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 인간 심성의 본질과 근원을 깨닫고자 하는 대상이자 바탕으로서 자연산수에 대한 자연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생태학적 사고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서원을 통하여 궁구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던 자연관과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자연을 통하여 세상의 이치와 인간심성을 갖추하고자 하는 서원에 내재된 자연 인식의 태도는 오늘날 환경문제의 해결대안으로서 생태학적 가치를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살아 있는 현장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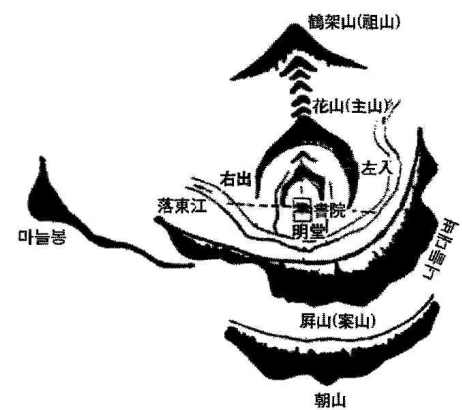
5) 김학권, 2009, 한국서원의 기원과 발달, 원광대학교인문학연구소 제10집 제2호, 222쪽~223쪽.

6) 박병오외, 2003, 조선중기 영남사림의 조경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1(4), 18쪽.

7) 퇴계가 평생 추구한 것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가치를 충분히 실천하는 인간"이 되고자 함이었다. 도덕적 가치를 충분히 실천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퇴계의 수양론이다. 퇴계 수양론의 요체는 '거경'과 '궁리'이다. 거경·궁리의 수양을 쌓아야만 인간이 절대선인 천리를 체득하여 도덕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퇴계 철학의 요점이다.(송재소, 2001, 퇴계의 은거와 「도산잡영」, 퇴계학보 제110호, 348쪽)

의 아름다운 景勝을 자랑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⁹⁾ 서원이 주변의 風光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설립의 배경이 관학인 성균관이나 향교와 달랐던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성균관이나 향교가 朝廷의 직접적인 관여를 받았던 반면에, 서원은 사학으로서 행정상으로 조정과 상당히 독립되어 있었고, 또한 서원 제도 자체에 함유된 儒家的 隱遁思想 등이 결탁되어 행정의 중심지로부터 격리되어 설치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학과 제학을 위해 건립된 서원은 주로 마을에서 떨어진, 골짜기가 그윽하고 깊숙하여 구름에 잠긴 아늑한 곳에 나아가 자리를 잡았다.¹⁰⁾

주로 자연산수가 빼어난 곳에 자리 잡은 서원들의 구체적인 입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전통적인 지리관으로서 風水地理가 적용되었다. 도산서원은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四神砂의 조건을 갖춘 가장 전형적인 입지를 보여준다. 宗山을 영지산으로 하고 이에서 분지한 도산을 主山으로 삼고 있다. 좌청룡으로는 동취병을 우백호로서는 서취병을 案山으로는 인위적으로 쌓은 시사단을 취하고 있다. 형국적으로는 花心半開形, 五指彈琴形으로 설명된다. 풍수적 설화가 서원의 입지에 직접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밀개형이라는 병산서원을 들 수 있다. 화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나온 주맥 상에 병산서원이 위치하지만 서원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 병산의 형세가 좌측이 매우 높고, 우측이 낮은 형태로 균형이 맞지 않고 또 강물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급하게 돌아 흐르는 모양새로서 소위 급히 떠미는 ‘밀개형’을 이룬다고 한다. 이렇게 강한 강물의 물살 때문에 명당을 이루는 ‘氣’가 쌓일 틈이 없이 빠지게 되어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치부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서원의 터를 정하였다고 한다. 필암서원의 풍수지리 형국은 丹鳳 含書形¹¹⁾이라고 한다. 봉황이 임금의 조서를 물고 온다는 봉황의 주둥이 자리에 서원이 입지하는 형상으로 이 때문에 필암서원 후방에는 봉황이 등지를 튼다는 오동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다고 한다.



병산서원 풍수형국도이상(출처: 김봉열, 이상건축, 1996, 병산서원)

서원의 입지와 산수의 관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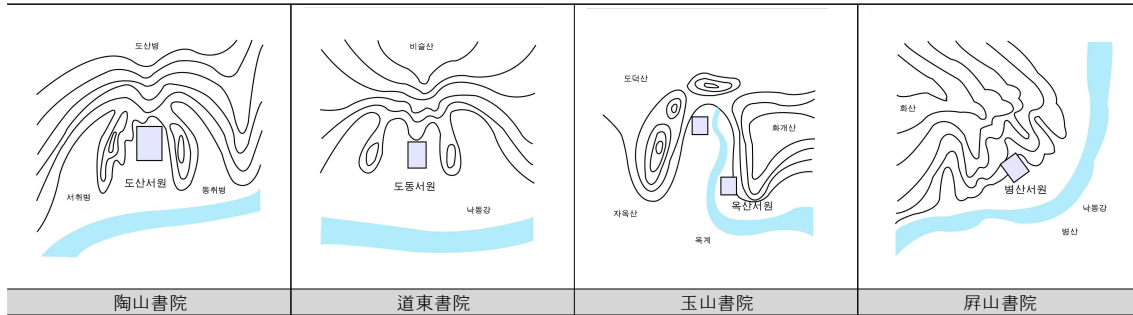
서원명	산					수	비고
	종산	주산	좌청룡	우백호	안산(조산)		
소수서원	소백산	영귀봉			연화봉	죽계수	
옥산서원		도덕산	화개산	자옥산	무학산	자계(紫溪)	
도산서원	영지산	도산	동취병	서취병	시사단	낙동강	花心半開形 五指彈琴形
도동서원		대니산			청룡산, 제석산	낙동강	
병산서원		화산			병산(문필봉)	낙동강	밀개형
돈암서원		고정산				연산천	蓮花浮水形
필암서원	축령산	연화산	기산	추산	장산	문필천	丹鳳含書形
남계서원		연화산			백암산	남계천	
무성서원	성황산				시산(장군봉)	자라내	

던 곳과 인연이 깊은 곳에 위치하나, 후대로 내려올수록 서원의 입지가 마을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을 뒤나 마을 중앙에 선정되고 있기도 하다(이상윤, 김용기, 1995, 조선시대 서원의 입지특성 및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1), 172쪽). 이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서원의 기능이 본래의 강학보다는 사묘와 사우를 중심으로 하는 서원 성립초기 서원의 입지가 읍에서 떨어진 인적이 드물고 경치가 뛰어난 곳에 위치한 것에 비해 이 시기의 서원은 선현들의 일정한 연구지나 마을 주변을 중심으로 제향기능이 강조된 공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9) 김동욱, 1999,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68쪽.

10) 이상해, 1998, 서원, 열화당, 23쪽.

11) 장영훈, 2000,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미디어, 216쪽.



서원의 입지와 형국(출처: 김상협, 2000,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나타난 유식공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84쪽)

풍수지리는 중국에서 기원하였지만 산이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보다 성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궁궐, 사찰, 관아, 서원, 왕릉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된 터잡기의 논리였다. 이중 서원은 대부분의 입지가 산수경관이 뛰어난 자연산림지역에 조성되어 아직까지도 자연환경과 조화되고자 한 풍수지리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시대의 서원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지리관으로서 풍수지리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보존되어 있는 장소로서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보다도 진정성이 유지되고 있다.

3. 유식공간으로서 누각과 조망대상의 경관적 가치

초창기 서원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일정한 건축 형식을 갖추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났다. 학문하는 장소와 선현에게 제향하는 공간이 갖는 바람직한 형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고, 그 해답은 고대 경전에 대한 주자의 해석에서 찾았다. 그러나 실제로 서원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는 고대 경전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조선의 건축현실에 맞춘 형태로 지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조선의 서원은 고유한 건축 형태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¹²⁾ 조선시대 서원의 공간구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尊賢講道’와 ‘藏修遊息’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자가 서원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파악이라면 후자는 성리학적 학문관으로서 내용적 측면의 설명이다. 장수는 마음을 집중해서 학문에 힘쓴다는 뜻이고, 유식은 즐기며 편안히 쉬는 말이다. 서원은 선현을 기리면서 학문에 몰두하는 곳이다. 장수하는 곳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오로지 긴장하며 학문에 몰두해 있을 수는 없다. 팽팽해진 긴장은 적당한 휴식과 심신의 편안함을 통해 이완을 얻음으로써 다시 긴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장수와 유식 두 가지는 서원에서 갖추어야 하는 양면적인 것들이 된다.¹³⁾

장수·유식이란 표현은 원래『禮記』「學記篇」에서 나온 것으로, 항상 학문을 마음속에 품고 이를 씬 없이 닦아야 하며 또 쉴 때나 소요할 적에도 항상 학문에 뜻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후대의 용례에서는 이 보다 좀 더 확장된 뜻으로 변모된다. 즉, 장수는 학문을 닦는 과정으로, 유식은 학문을 닦는 과정에서 집중된 정신과 마음을 풀어내는 과정으로 재해석된다. 공부할 때나 쉴 때나 항상 학문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경전의 뜻이 ‘집중하고’, ‘풀어주는’ 두 개의 학문 방법으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경전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性情까지 닦고 기르는 공부는 시위를 팽팽히 당기는 ‘장수’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시위를 풀어내는 ‘유식’하는 과정 역시 포함하는 것이 된다.¹⁴⁾ 조선후기에 쓰인 남계서원 風詠樓의 記文에는 이러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데,¹⁵⁾ 서원은 居敬·集義의 공간뿐만

12) 김동욱, 硯軸, 157쪽~1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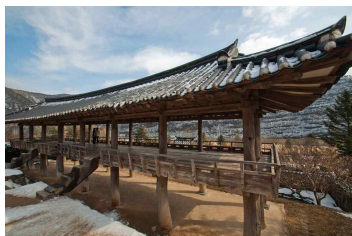
13) 김동욱, 硯軸, 169쪽.

14) 정기철, 2000, 남계서원의 건축사적 의미, 한국동양예술학회지 1, 414쪽.

15)이 서원에는 거경재와 집의재가 있으니, 대체로 증자와 맹자의 뜻을 미루어 체용의 학문으로 일삼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이른바 안자가 배운 바를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시위를 당기되 놓지 않는다면 문왕과 무왕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니 정신을 일으켜 펴고, 성정을 쉬며 기르는 데에 어찌 한쪽 편의 일을 없앨 수 있겠는가.....

아니라 發舒.休養의 공간도 구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파악된다. 이는 서원이 기본적으로 장수하는 공간과 유식하는 공간으로 대별되어야 하고, 이것이 조화롭게 합일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거경과 집의로 설명되는 장수의 공간은 강당과 사당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 공간은 '팽팽히 당겨진 활시위'같이 몸가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긴장과 공경의 공간, 따라서 철저하게 禮로 규정된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정신과 성정을 풀어내고 기르는 유식의 공간은 서원의 주변 절승이 될 수도 있고, 서원 마당 안의 연못을 비롯한 조경시설이 될 수도 있으며, 자연경관을 건축화시키는 누각 공간이 될 수도 있으나¹⁶⁾ 그 중심은 주변의 자연산수를 조망하기 위해 설치된 누각이 된다.

유식적 차원에서 조성된 누각은 주변의 자연경관을 조망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는 동양에서 객관대상을 관조하는 방식과도 관련된다. 동양의 자연관조 방식은 어느 한 대상에 시선이 모이는 서양의 투시도적 방식과는 달리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시선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遊目的 태도를 취한다. 객관 사물의 본질을 깨닫기 위한 이와 같은 관조방식은 조망대상을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주변으로 개방되거나 보다 높은 위치의 조망장소를 요구하게 된다. 동양건축에서 발달한 樓閣·亭子是 이와 같은 관조방식이 구체화된 공간이다. 남계서원의 풍월루, 옥산서원의 무변루, 병산서원의 만대루, 도동서원의 수월루, 필암서원의 학연루, 무성서원의 현가루, 돈암서원의 산양루 등은 모두 중층의 누각형태를 취하고 주변으로 개방된 구조를 보인다. 이곳은 '집중하고(장수)', '풀어주는(유식)' 성리학적 학문방법 중 유식의 교육적 가치를 새삼 일깨우고, 자연의 관조를 통하여 그 이치를 깨달아 인간의 성정을 닦고자 하는 교육관이 실현된 장소이기도 하며, 동양적 관조방식을 온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병산서원 만대루와 전면에 펼쳐진 경관



도동서원 수월루와 전면의 경관



소수서원 경령정 후면에 펼쳐진 경관

Ⅲ. 서원의 경관훼손과 보존관리의 문제

1. 합리적인 문화재 지정구역의 설정문제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주세붕의 백운동서원을 조정으로부터 최초로 賜額을 받게 한 퇴계는 서원의 건립과 후대의 서원관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가 만년에 도산아래에 서당 터를 얻는 과정에서 보여준 山徑에 대한 이해는 서원의 범위가 어디까지로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퇴계는 서당을 짓고 난 다음해인 1561년 11월에『陶山雜詠』을 썼다. 이 시에 붙인「陶山雜詠并記」에는 서당 주변의 경계를 비롯하여 도산서당의 주변 산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靈芝山の 한 줄기가 동쪽으로 나와 도산이 되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산이 두 번 이루어졌기에 ‘또산’이라 이름하였다”하고, 또 어떤 이는 “옛날 이 산 속에 陶器굴이 있었으므로 그 사실을 따라 도산이라 한다”하였다. 이 산은 그리 높거나 크지 않으며, 그 골짜기 넓고 형세가 뛰어나고 치우침이 없이 높이 솟아, 사방의 산봉우리와 계곡들이 모두 손잡고 절하면서 그 산을 사방으로 둘러 안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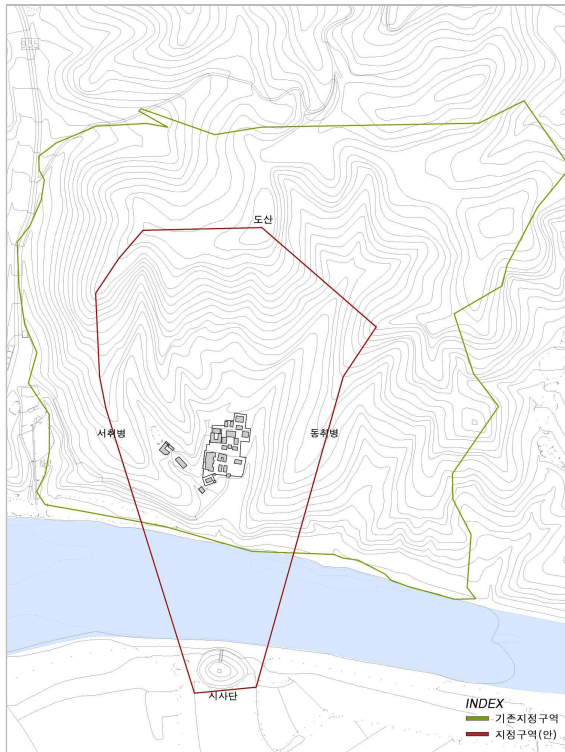
16) 정기철, 위 논문, 415쪽~416쪽.

왼쪽에 있는 산을 東翠屏이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西翠屏이라 한다. 동병은 淸涼山에서 나와 이 산 동쪽에 이르러서 벌려 선 품이 아련히 트였고, 서병은 영지산에서 나와 이산 서쪽에 이르러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높이 솟았다. 두 병풍이 마주 바라보면서 남쪽으로 기어 내려가 8,9리쯤 내려가다가 동병은 서쪽으로 달리고, 서병은 동쪽으로 달려서 남쪽의 넓고 넓은 들판의 아득한 밖에서 합세하였다.¹⁷⁾

이 내용은 도산서당의 주산인 도산의 지리적 근원이 영지산에서 분지되고 있으며 동서취병은 청량산과 영지산에서 나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산의 근원을 중히 여기는 시각은 산의 흐름이 연속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연속적으로 파악된 산줄기의 흐름은 의미와 위계를 명료하게 하여 준다. 물흐름의 큰 줄기를 형성하는 산줄기는 주맥이 되고, 지류를 형성하는 산줄기는 지맥이 된다. 이를 살펴 산의 朝宗을 헤아리니 조산과 종산이 있게 되고, 조산의 기가 흘러 맺히는 곳에 주산이 있게 된다. 서원 주변의 주맥을 살펴 터를 선정한다 함은 곧 산경을 헤아리는 것이다. 산경을 헤아리는 서원의 입지적 규범은 조선시대의 모든 서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도 서북쪽에 위치한 소백산이 남동쪽으로 세 갈래로 산맥을 뿔어 죽령, 비봉산, 성산 등을 만드는데 비로봉(해발고도, 440m)은 남동쪽으로 산맥을 뿔어 원적봉(해발고도 961m)을 만든다. 원적봉은 두 갈래로 산맥을 뿔어 남동쪽으로는 풍기의 주산이 되고, 동쪽으로는 순흥의 비봉산이 되며, 소수서원의 주산인 영귀봉과 연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경내맥을 따져 입지를 정하는 유가적 지리인식은 궁궐, 관아, 서원과 향교, 지방의 畝基를 정하는데까지 적용된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이렇듯 서원의 입지에 고려된 유가적 산경의 인식은 서원의 범위를 건축물에만 한정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주변 산수로까지 확대되거나 조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원 입지의 장소적 맥락을 제공하는 산경의 인식은 조선시대 서원이 갖는 입지적 가치를 증명하기도 하고 서원이 이루는 전체경관에서 배경경관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상지 서원 대부분은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채 문화재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이 불필요하게 과도하거나 매우 협소하게 지정되고 있다. 소수서원은 서원과 동측의 죽계천을 경계로 탁청지 일원까지가 지정구역이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산인 영귀봉과 전면의 죽계천이 제외되고 있다. 도산서원은 좌우의 동취병과 서취병의 지정구역에 일관성이 없으며 전면의 시사단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필암서원은 지정구역이 서원의 담장으로 한정되어 추후 후면의 주산이 훼손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서원의 문화재지정구역을 분명한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지정한데 기인한다. 추후 서원의 문화재지정구역의 기준을 주산을 포함한 좌우의 산과 전면의 수계를 기준으로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지정구역이 주변의 산수를 기준으로 지정되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개발행위로부터 서원의 주변 지형과 경관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문화재영향검토구역도 효율적으로 조정되어 광역적으로 주변 경관을 유지하고 조화시키는 데에도 보다 유리할 것이다.

17) 이항지음, 이장우·장세후 옮김, 2007, 『도산잡영』, 을유문화사, 50쪽~60쪽.



전통적인 풍수지리관에 따라 설정한 도산서원의
문화재지정구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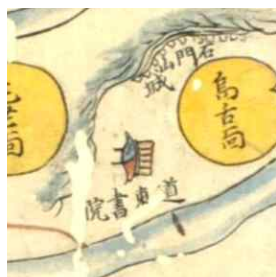
주산과 더불어 계류의 경관요소를 포함한 소수서원의
문화재지정구역(안)

2. 서원 안에서 바라다 볼 때 나타나는 경관 훼손의 문제

풍수지리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입지이론은 '背山臨水'로 설명된다. 배산임수의 형태는 '산자락에 자리를 정하고 앞으로는 물을 끌어안는 형국이다'. 한강 정구선생도 회연초당을 상택하면서 열거한 조건에서 '뒤로는 구릉을 등지며, 앞으로는 냇가를 끌어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⁸⁾ 대상지인 9개의 서원 모두 배산임수형의 입지조건을 취하고 있다.



남계서원 <광여도_경상도_함양부>



도동서원 <지방도_경상도_현풍>



도산서원 <해동지도_경상도_예안현>

- 18) (1)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선영을 가까이 모실 수 있다.
(2) 뒤로는 구릉을 등지며, 앞으로는 냇가를 끌어안는다.
(3) 오른쪽으로는 여염에 접하며, 왼쪽으로는 못에 임한다.
(4) 각아지른 듯한 절벽과 온갖 돌들이 있으며, 무성한 숲과 수풀이 있다.
(5) 나무하며 소기르는 돌 다에 편하고, 약초 캐며 낚시질 하는데 알맞다.
(6) 못산들이 에워싸고 두 물줄기가 만나 흐른다.
(7) 산등성이와 언덕은 빼어나게 절경이며, 교외의 들판은 넓고 평탄하다.
(8) 남향하고 물줄기를 등져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하다.
(9) 습기는 벼농상에 알맞고, 넉넉한 땅은 누에쳐서 길쌈하기에 알맞다.
(10) 남쪽 마을에서 찾아오고, 서쪽 산악에서 진경을 찾는다.



돈암서원<지방도_충청도_연산현>



무성서원<광역도_전라도_태인현>



병산서원<비변사인방안지도_영남_안동>



소수서원(백운동서원)<안동도 회_경상도_순흥부>



옥산서원<비변사인방안지도_영남_경주>



필암서원<비변사인방안지도_전라도_장성부>

소수서원은 영귀봉을 주산으로 하고 안산으로는 연화봉을 택하여 좌향을 정하고 있으며 전면에는 죽계천을 명당수로 취하고 있다. 남계서원은 연화산을 주산으로 전면으로는 멀리 백암산을 조산으로 조망하며 전면에는 남계천을 두고 있다. 무성서원은 성왕산에서 발원한 서원 뒷산을 주산으로 하여 앞으로는 시산을 안대로 삼고 그 사이에는 자라내가 흐르는 입지적 특성을 보여준다.

배산임수의 입지논리가 전통건축의 입지와 배치에 적용된 논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풍수적인 사신사를 갖춘 局의 형태로 입지되는 경우, 둘째는 主山-案對(안산)의 배치축을 갖는 경우, 셋째 주산만을 배치축으로 취하거나, 넷째 안대만을 배치축으로 적용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서원의 입지와 적용시켜 보면 첫째의 사신사와 명당수는 서원의 입지에 적용된 풍수적 명당의 기본적 요건이 되고 있다. 두 번째에서 네 번째의 주산-안대의 배치축의 논리는 서원의 좌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한편, 유식공간인 누각에서의 조망대상으로서 사산과 명당수의 관계는 안산과 명당수는 전면에 바라다 보이는 주경관 대상으로 좌우의 산은 부경관으로서 조망되게 된다. 안에서 밖으로 조망되는 서원의 1차적인 조망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전면의 안산과 명당수, 좌우의 산은 서원의 원형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시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대상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 서원 전면에 신설된 주차장과 녹지공간은 전면으로의 시각을 차단하거나 훼손하고 있으며, 좌우로 들어선 민가는 주변 산의 자연경관을 이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병산서원 만대루에서 바라볼 때 전면에 설치된 녹지공간의 높은 교목은 근경으로서는 낙동강과 백사장의 시야를 차단하고 있다. 또 원경으로서는 병산의 시야를 가리기도 한다.



서원 전면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무분별하게 수목을 식재한 병산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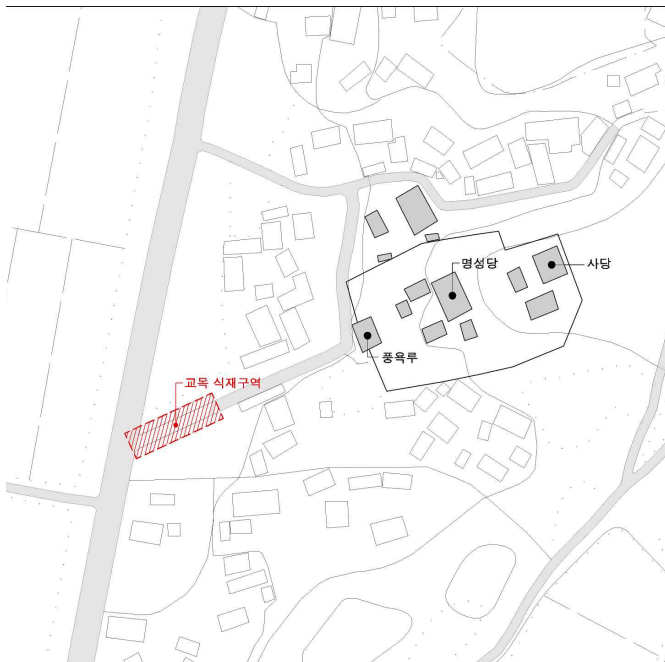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서원의 진입공간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었다.



근래에 주차장 공간에 식재된 교목이 병산 아래의 낙동강에 대한 조망을 방해하고 있다.

남계서원의 풍월루에서 바라보는 전후면의 경관은 보다 더 심각하다. 전면에 식재된 교목은 멀리 조산으로의 시각을 차단하고 있으며 명당수인 남계천의 존재는 사라진채 홍살문으로 연결되는 진입로 좌우에는 옥향을 열식하여 일본식 경관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또 서원 전면과 좌우에 빼곡히 들어선 민가들은 서원의 존재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있다.



진입로에 무분별하게 교목을 식재한 남계서원



홍살문에서 풍월루로 향하는 공간의 교목 열식은 안산으로의 조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계서원의 홍살문과 일본식 옥향의 열식

서원별 주요 건축물과 누각에서의 조망대상

서원명	주요 건축물					누각에서의 주요 조망대상
	사당	강당	동재	서재	누각	
소수서원	문성공묘 (文成公廟)	명륜당 (明倫堂)	일신재 (日新齋)	직방재 (直方齋)	경림정 (景濂亭)	경(敬)자 바위, 죽계수(명당수), 송림
남계서원	사당 (祠堂)	명성당 (明誠堂)	양정재 (養正齋)	보인재 (輔仁齋)	풍월루 (風咏樓)	백암산(안산), 전담
옥산서원	체인묘 (體仁廟)	구인당 (求仁堂)	민구재 (敏求齋)	암수재 (闇修齋)	무변루 (無邊樓)	무학산(안산), 자계(명당수)
도산서원	상덕사 (尙德祠)	전교당 (典敎堂)	박약재 (博約齋)	홍의재 (弘毅齋)	광명실 (光明室)	낙동강(명당수), 동취병, 서취병
병산서원	존덕사 (尊德祠)	입교당 (立敎堂)	동직재 (動直齋)	장서실 (藏書室)	만대루 (晩對樓)	병산(안산), 낙동강(명당수), 광영지(지당), 백사장
도동서원	사당 (祠堂)	중정당 (中正堂)	거인재 (居仁齋)	거의재 (居義齋)	수월루 (水月樓)	제석산(안산), 낙동강(명당수)
필암서원	우동사 (祐東祠)	청절당 (淸節堂)	진덕재 (進德齋)	숭의재 (崇義齋)	확연루 (廓然樓)	장산(안산), 기산, 증산(좌청룡), 추산(우백호)
무성서원	사우 (祠宇)	명륜당 (明倫堂)	장수재 (莊壽齋)	흥학재 (興學齋)	현가루 (絃歌樓)	시산(안산), 자라내(명당수)
돈암서원	유경사 (唯敬祠)	양성당 (養性堂)	거경재 (舉敬齋)	정의재 (精義齋)	산양루 (山仰樓)	연산천(명당수), 전담

서원의 진정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누각의 전면으로 바라다 보이는 안산과 명당수로의 시각적 개방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좌우에 위치한 민가와 산경과의 조화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 대부분의 서원 전면에 개설된 도로와 대규모 주차장은 유생들의 소요와 산책의 공간이었던 강이나 하천으로의 직접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관광객의 편의시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주차장이나 진입로의 개설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위치가 반드시 전면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추후 서원의 원형경관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

3. 경내외에 신축된 건축물에 의한 경관 왜곡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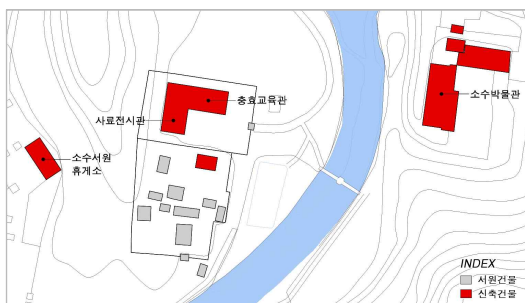
서원의 중심을 이루는 건축공간에 나타나는 경관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서원 경역 내부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문제와 경외에 과도한 건물이나 시설이 들어서는 문제이다. 서원은 지역이나 학맥에 따라 입지와 배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전형적인 서원은 강당, 재실, 누각, 장판각과 장서각, 사당, 전사청과 고직사라는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선현에 대한 향사기능과 강학기능이 중심이 되고 이를 위한 보조시설이 전체공간을 구성하는 매우 절제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서원의 전형적인 구성이 1970년의 문화재성역화사업과 2000년대에 이루어진 유교문화권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크나큰 변화를 맞게 된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소실된 서원건물이 복원되기도 하고 노후된 건물과 시설이 대대적으로 보수되었다. 문화재의 보수와 복원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실효성을 거두었지만 이때 함께 건립된 전시관과 교육관 시설은 서원의 전체적인 공간을 크게 왜곡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말았다. 소수서원, 도산서원, 도동서원에서는 유물전시관을 서원 경내에 위치시켜 원형의 건물로 착각하게 하는 우를 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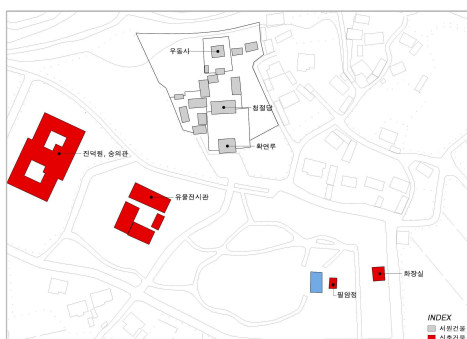
도산서원의 신축건물 현황



경내의 유물전시관인 도산서원 옥진각



과도한 신축 건물의 폐해는 필암서원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필암서원은 2001년~2009년에 성역화사업을 추진하여 필암서원 보다 3배 정도 더 큰 유물전시관, 교육체험관,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부속 시설들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설치된 시설물들이 문화재인 필암서원의 모습을 가리고, 규모면에서 압도하여 필암서원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¹⁹⁾



서원 경내 외에 전시관이나 유물관이 신축된 서원의 건물현황

서원명	경내외 신축건물현황	
소수서원	1982	- 유물관 신축
	1991	- 사료전시관, 충효교육관 건립
도산서원	1970	- 유물전시관 옥진각 신축
필암서원	2002	- 유물전시관 건립
	2010	- 진덕원, 송의관 완공
도동서원	2001	- 유물전시관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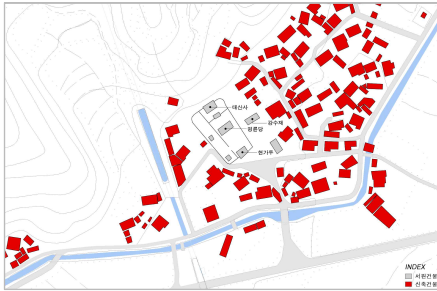
4. 인접한 민가(마을)에 의한 가시성 차단과 경관상의 부조화 문제

서원의 입지는 서원의 기능인 강학과 선현의 봉사 그리고 장수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당한 위치를 찾아 건립된다. 대부분의 서원은 마을과 떨어진 산자락에 위치하거나 산중, 또는 계곡이나 강가에 위치하지만 마을과 인접하여 마을의 배면이나 마을내, 그리고 마을 주변에 건립되기도 한다.²⁰⁾ 산중이나 계곡 등에 위치한 서원은 협소한 부지와 경사지에 건립된 지형특성으로 인하여 주변에 다른 시설이나 민가가 들어서기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립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다행스럽게 주변 경관은 조영 당시와 크나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마을에 인접하여 설립되었거나 후대에 민가가 들어선 남계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에서는 인접한 민가와 서원건물간의 경관적 조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서원과 민가(마을)의 입지적 관계는 민가 내에 서원이 위치하는 경우와 서원의 좌우측으로 민가가 인접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남계서원

19)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사적지 조경정비 기준 확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서원의 조경정비방안.

20) 이상선, 2009, 한국서원건축의 조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42~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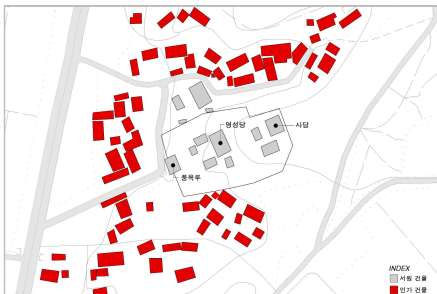
과 필암서원, 무성서원은 전자의 경우이고 도동서원과 돈암서원은 후자의 경우이다. 남계서원은 남계리의 마을 속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원 전면으로 도로를 따라 민가들이 늘어서 있다. 이 때문에 진입로에서 서원이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민가들이 서원과 뒤섞여 서원의 가시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무성서원과 필암서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도동서원과 돈암서원은 서원의 우측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을이 위치하여 앞서의 마을로 둘러싸인 서원들 보다는 나은 경우이다. 그러나 인접한 민가의 지붕선이나 색채, 형태가 매우 이질적 이어서 서원과 조화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역사문화경관으로서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무성서원 주변의 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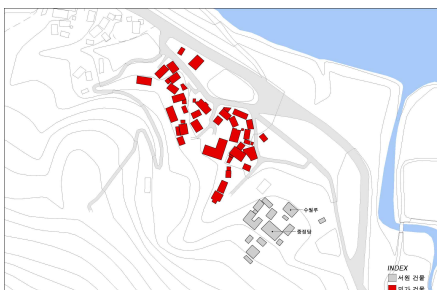
민가에 둘러싸인 무성서원 (DAUM 로드뷰)



남계서원 주변의 민가



민가에 둘러싸인 남계서원 (DAUM 로드뷰)



도동서원 주변의 민가



도동서원 우측에 자리잡은 민가 (DAUM 로드뷰)

자연과 조화된 서원의 원형경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정비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남계서원이나 무성서원과 같이 전면에 민가가 들어선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전과 철거를 시행하여 진입로로부터 서원의 가시성을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민가와 인접하고 있는 도동서원과 돈암서원의 경우는 서원과 민가 사이에 일정한 폭의 녹지대를 두어 시각적 차단과 완충을 꾀하도록 한다. 그리고 서원 주변의 모든 건물들에 대해서는 경관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건물의 형태나 색채를 서원의 건물과 조화되는 형식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행정적인 지원과 유도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원형 식재경관의 보존과 복원문제

서원에서의 식재는 단순히 녹음과 녹지경관을 조성한다는 현대의 조경적·관광적 시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수목도 서원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이자 건축경관을 보조하는 원형경관으로서 문화재 경관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만 한다. 서원에 식재된 수목과 서원 경관과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서원의 배경경관으로 나타나는 자연산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원 조영당시에 심겨졌던 식재경관이다. 전자가 서원의 주변 산림을 개발이나 훼손으로부터 보존하는 문제가 주요한 관건이라면 후자는 서원에 식재된 수종과 식재방법, 식재위치에 대한 고증을 토대로 한 복원 및 정비의 문제와 관련되고 있다. 현재 9개의 서원의 배경경관을 이루고 있는 자연산림은 보다 실증적인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보다는 서원 경내 외에 식재된 수목과 식재에서 많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9개의 서원에 나타나는 식재경관의 문제 중 하나는 적합하지 않은 수종의 식재문제이다. 서원에 식재된 수목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서원에 식재되는 수목은 조영자의 조영관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서원에 현존하는 노거수의 비율을 조사한 연구²¹⁾에 의하면 소나무, 배롱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매화나무, 회화나무 등을 가장 많이 식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최근에 수행된 문화재연구소의 6개 서원에 대한 식재현황에 대한 정밀조사²²⁾에서도 소나무, 향나무, 측백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배롱나무, 매화나무, 무궁화 등의 9종류의 노거수가 현존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수목들은 모두 서원이나 성리학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소수서원, 도동서원, 필암서원의 외삼문 밖이나 강당영역 안에는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서원에 식재된 은행나무는 성균관이나 향교의 '杏壇'으로 식재된 은행나무가 서원에도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²³⁾ 곧은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소나무는 서원에 식재된 가장 일반적인 수목이다. 또 향나무는 서원은 물론 왕릉 등의 제향공간에 향을 얻기 위하여 식재되었다. 큰 벼슬에 나아가기를 희망하거나 선비의 곳곳함을 상징하는 槐木(느티나무, 회화나무)도 서원에 심겨졌던 대표적인 수목이다. 배롱나무는 남부지방의 지역적 풍토에도 가장 잘 어울리고 오랜 시간 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西崖 선생이 유난히 좋아했던 수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 퇴계 이황이 사랑하였던 매화는 선비의 곧은 지조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로 사대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사료가 많지는 않지만 서원에 심어졌던 수목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가 있다. 남계서원에는 매화(詠梅軒), 대나무, 연꽃(愛蓮軒)이 심어졌으며 퇴계가 조성한 한서암 정원에는 소나무.대나무.매화.국화.오이가 심어졌고, 계당서당에서는 소나무.대나무.매화.국화.연꽃을 심어 자신을 포함하여 六友園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 퇴계는 도산서당에 매화.대나무.소나무.국화를 심어 節友社를 조성하였다. 소수서원에는 퇴계가 풍기군수로 부임한 다음 해에 죽계 건너편에 松柏과 대나무를 심어 '翠寒臺'라 이름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나기도 한다.



도동서원 수월루 앞 은행나무 노거수



소수서원 경림정 옆 은행나무 노거수



병산서원 존덕사 앞 배롱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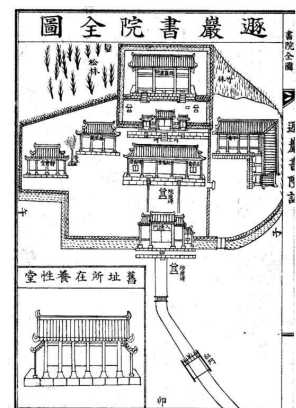
21) 노송호외, 2005, 향교 및 서원 공간별 상징수목과 배식유형,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1).

22) 국립문화재연구소(2010), 사적지 조경정비 기준확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서원의 조경정비방안, 국립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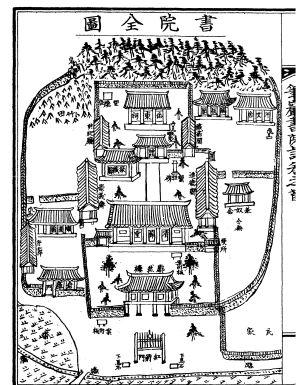
23) 성균관과 향교에 있어서의 '행단'의 구성을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원에서의 은행나무 식재에 대한 내용은 추후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1500년대 이전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소수서원	느티나무(경외) 은행나무(경외)	소나무 숲(경외)	-	-	-	-
옥산서원	-	향나무(경내) 은행나무(경외) 회화나무(경외) (모두 1573년)	-	-	-	측백나무(경내) 향나무(경내) (모두 1920~30년)
도산서원	-	-	-	-	-	회화나무(경내) (1930년 이전) 매화나무(경내) (1930년대)
필암서원	-	-	-	은행나무(경외)	-	-
도동서원	-	-	은행나무(경외) (1607년)	-	-	배롱나무(경내)
병산서원	-	배롱나무(경내) (1573년)	-	-	-	배롱나무(경내) 무궁화(경내) (모두 1920~30년)

그러나 현재 서원에는 조경 정비 공사를 시행하면서 서원에는 적합지 않은 수목들이 식재되어 원형의 식재경관을 변형시키고 있다. 예로서 소수서원(주목, 목련, 옥향, 등나무 등), 옥산서원(섬잣나무, 가이즈까 향나무, 뽕나무 등), 도산서원(옥향, 회양목, 물박달, 굴참나무 등), 필암서원(꼬리조팝나무, 화살나무, 청단풍, 목단 등), 도동서원(목단, 사철나무, 주목, 회양목 등)에 식재된 일부 수종은 제거되거나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조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외래수종이나 부적합 수종은 대부분 제거된 상태이지만 정작 심각한 것은 과도한 식재의 문제이다. 서원에 수목이 식재되는 공간은 <돈암서원전도>나 필암서원의 <書院全圖>에 보는 것처럼 극히 제한적이었다. 사당영역에는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팎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수목이 식재되었으며, 강학이 이루어지는 강당 영역도 비워진 마당으로 조성하였으며, 식재는 서원의 입구나 화계, 그리고 누각과 지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식공간에 부분적으로 식재된다. 그러나 소수서원이나 필암서원에서는 정원을 꾸미는 수준으로 새롭게 수목을 식재하고 있다. 서원에 식재된 수목은 성리학자의 지조와 곧은 절개, 고매함 등을 상징하기 위한 比德의 시각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 天人物我의 근원이 동일한 것임을 깨닫게 하고, 天人合德을 역설하여 聖賢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자연의 이치를 궁구하는 대상으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날의 서원의 수목과 식재를 단순히 경관을 꾸미고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경정비는 중용에서 말하는 ‘過猶不及’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도산서원 <돈암서원전도>



필암서원 <서원전도>

서원 내부의 무분별한 수목 식재와 수종 선정

소수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장서각 주변 주목	사당 앞 화계의 목단, 향나무, 산철쭉	장판각 앞 주목
		
남계서원		옥산서원
쌍지와 주변의 주목, 반송, 은행나무		역락문 앞의 가이즈까 향나무
		

6. 원형경관과 현대 조경시설물과의 경관적 조화문제

서원은 지키고 보존해야할 대상이자 또 살아있는 역사체험의 교육공간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서원의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관람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는 안내시설과 편의시설, 휴게시설, 관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서원에 설치된 이러한 조경시설물의 현황은 매우 다양하다. 안내시설로 종합안내판, 유적 설명판, 방향 지시판, 경고판, 표석, 기념비, 안내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휴게시설로서 등 의자와 평의자, 편의시설로서 음수전, 휴지통, 화장실, 매점, 주차장과 방범 및 관리시설로서 매표소, 관리사무소, 소화전과 방범카메라 등이 대부분의 서원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이 주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매우 산만하고 시설이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산만한 이미지는 시설물이 유형별로 형태와 재료에 있어서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에 기인한다. 대표적으로 안내시설은 서원마다 또는 서원 내에서도 사용되는 재료가 목재, 석재, 철재 등이 혼재되어 설치되기도 하고 형태에 있어서도 제각각이어서 가독성도 매우 떨어진다. 설치되는 장소도 동선체계와는 무관하거나 산발적이어서 이용에 비효율적이다. 특히, 서원에 설치된 각종 기념비와 표석은 불필요한 시설이 대부분이다. 정비공사 기념비, 보호수 표석, 기념식수 표석 등은 이러한 시설이 굳이 설치될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서원의 전체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도난과 같은 안전사고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감시카메라는 숨어져 설치되기 보다는 보란 듯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 관람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차폐시설 없이 노출된 저수조와 소화전, 배전반 등도 그리 유쾌한 장면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과도한 포장과 특히 콘크리트 포장과 같은 포장시설은 서원의 시간성을 반감시키고 있기도 하다.

결국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 및 기반시설의 설치에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설치 시설과 불필요 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 시설(기념비, 표석 등)은 과감히 철거하거나 이전을 시켜야 할 것이다. 불가피하게 설치되는 시설(안내시설, 편의시설, 포장시설, 관리시설 등)은 설치장소와 형태, 재료에 있어서 통합적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시설인 방범카메라와 배전반, 저수조 등은 설치위치를 조정하거나 차폐를 통하여 눈에 잘 띄지 않게 관리하도록 한다.

구분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남계서원
포장시설						
	서원 진입문의 판석 포장	정문-진도문의 화강석 포장				사당영역의 시멘트 포장
안내판 및 표식						
	보호수 표식	유적 안내판	보호수 표식	청절당 설명판		
소방시설						
	정서각 옆의 소화전			청절당 후면의 소화전	중정당 동편의 소화전	경역 내의 소화전
기타시설						
	경내의 방범카메라 와 가로등	입구의 음수대	관광 안내소	청절당 후면의 음수대	동재 앞의 가로등	

VI. 마치면서

조선시대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한다니 전통과 문화재를 공부하는 연구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흐뭇한 생각이 든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 또 다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등재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고 주관 기관이나 소재 지자체의 추진력과 일관성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지대한 관심도 있어야 할 것이다.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하여 이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서원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와 체계적인 논리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서원이 중국과 일본의 서원과는 다른 차별성도 부각되어야 할 것이고 보편적 가치도 인정받아야만 가능할 것이다. 서원이 갖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건축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건축과 자연이 함께 이루어낸 경관적 가치나 서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한 교육관과 같은 인문학적 가치까지도 폭넓게 부각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추진하는 관련 기관과 학계, 서원이 소재하는 지자체 모두 한 방향을 보기를 기대한다. 최근 우리나라 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나 등재후보의 추진과정을 보면 일부 사례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 우리 모두의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추진하기 보다는 주도하는 기관이나 학계의 주도권 경쟁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소재한 지자체의 성과로 치부되는 현상은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는 9개 서원의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을 계기로 서원 전체에 대한 보존과 복원, 정비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보수정비사업은 건조물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보수에 그치거나 조경 및 경관에 대한 정비는 철저한 고증이 뒷받침 되지 않은 채 서원

을 문화재로서 보다는 서원을 공원이나 관광지로 둔갑시키는 추세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원형경관에 대한 보존 및 복원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사적지 조경정비 기준 확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서원의 조경정비방안.
- 김봉렬, 1996, 집합이 건축이다 : 병산서원, 이상건축.
- 김상협, 2000, 조선시대 서원건축에 나타난 유상공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욱, 1999,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영모, 2005, 조선시대 서원의 조경,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1).
- 김학권, 2009, 한국서원의 기원과 발달, 원광대학교인문학연구소 제10집 제2호.
- 노송호외, 2005, 향교 및 서원 공간별 상징수목과 배식유형,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1).
- 박병오외, 2003, 조선중기 영남사림의 조경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1(4).
- 송재소, 2001, 퇴계의 은거와 「도산잡영」, 퇴계학보 제110호.
- 이상선, 2009, 한국서원건축의 조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상윤.김용기, 1995, 조선시대 서원의 입지특성 및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1).
- 이상해, 1998, 서원, 열화당.
- 이미영, 2006, 조선시대 서원건축공간에 나타난 미학사상 연구, 한국패키지디자인학회논문집 19.
- 이황지음, 이장우·장세후 옮김, 2007, 「도산잡영」, 을유문화사.
- 장영훈, 2000,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미디어.
- 정기철, 2000, 남계서원의 건축사적 의미, 한국동양예술학회지 1.
- 최완기, 1981, 조선조 서원성립의 제문제, 한국사론 8.
- 한국전통조경학회, 2009, 동양조경문화사, 도서출판 대가.

“서원 주변경관의 훼손과 보존관리 문제점”에 대한 토론1

정경성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2011년 현재 세계유산협약 가입국 187개국 중에서 153개국 936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불국사와 석굴암이 등재된 이래 총 10개(문화유산 9, 자연유산 1)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치단체에서는 세계에 내세워 자랑할만한 독특한 유산을 선정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우리 지역 유산의 우수성에 대한 국내외 홍보, 세계유산 소재 지역의 관광명소화,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적 책임감 형성과 보존·관리 강화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산의 훼손방지와 영구보존을 위해 국제 전문가에 의한 기술지원과 자문, 세계유산기금 재정 지원이 가능하여 등재 절차가 까다롭고, 준비과정이 힘겹지만 마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되며, 다양한 논의 속에서 전략과 전술이 짜여지기를 기대합니다. 김영모 선생님의 발표내용은 세계유산 등재와 관계없이 서원 등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보존과 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시각을 넓혀주고, 관련 정책입안에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산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 문화재 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도 원래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몇 가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주변경관의 문제가 대두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개발과 보존이 상충할 때 개별 문화재는 지켜져 왔지만, 그 문화재를 둘러싼 자연경관과 인문환경이 개발의 논리에 밀려 훼손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래에 들어 문화재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여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원형이 변형되어 버린 주변경관을 복원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현지 사정(마을 조성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세계유산 등재 준비 과정에서 ‘필암서원’의 경우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떤 경관을 먼저 정비(복원) 해야 할지?

다음은 서원경내의 문제입니다. 서원은 초창에서부터 여러 차례 중창을 거치면서 많은 경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원형 복원의 시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고, 고증이 가능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필암서원에는 문화재청의 허가(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 전시관·교육관·편의시설(매표실, 주차장, 화장실, 가로등) 등이 기 건립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어왔던 서원 건축물과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현대 시설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서원 주변경관의 훼손과 보존관리 문제점”에 대한 토론2

홍승재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영모 선생님의 발표는 한국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과 관련하여 서원의 세계유산으로서의 조경적, 경관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등재를 추진하는 9개의 서원을 대상으로 경관과 보존관리의 문제점을 정리해주셨습니다.

세계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발표문에서는 서원을 단순히 교육공간으로서 건축물의 집합체라는 차원을 넘어서 성리학적 가치관과 세계관, 자연관이 융용된 복합체로 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원의 범위를 건축물에 한정하지 말고 서원의 입지와 장소적 맥락을 보여주는 주변의 자연까지 포함하여 경관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지와 선생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6가지의 경관과 보존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자 또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토론의 쟁점은 없으며, 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발표자의 생각을 더 듣기 위해서 다음의 질문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하려고 합니다.

1.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 서원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와 함께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추진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관적 측면에서 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문화재 지정구역의 검토와 재설정 - 문화재보호구역은 서원의 풍수지리적 입지와 장소성을 보여주는 주변의 산수까지 포함하여 설정할 경우 개발행위로부터 서원의 주변 지형과 경관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거나 마을과 인접한 서원 등 일부 서원의 경우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재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 일정 구역을 구역별로 나누어 가능한 건축행위를 정하고 있으나 건물의 층수 및 높이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 경관의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우려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와 같은 민원의 문제와 보존의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원 건축물 복원과 보존·관리 문제

이왕기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I. 서론

II. 서원 건축물 보존·관리 현황

1. 서원 문화재의 훼손 요인
2. 서원 건축물의 보수정비 현황
3. 현행 보존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향

III. 보존계획의 수립

1. 보존의 문제점
2. 보존 방법론
3. 보존계획 수립

IV. 보수 및 관리 방안

1. 서원문화재 보수공사의 원칙
2. 서원 건축물 관리
3. 서원 건축물 안전점검(정비 및 보수공사 후 관리계획)

V. 서원 권역별 보수 및 정비 지침

VI. 결론

I. 서론

유교문화권 국가에서 서원은 매우 독특한 건축 문화유산이다. 서원은 사학기관의 하나로 선현에 대한 제향과 강학을 주목적으로 건립된 건축물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원래 설립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원형이 남아 있지만 중국의 서원은 이미 오래 전에 원래의 기능과 형태가 변해버렸고, 일본에서는 서원은 사찰에서 스님이 공부하는 곳에 정원을 꾸며두는 곳을 말하며, 한국과 같은 서원은 없다.

근대시기 새로운 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서원의 기능은 축소되어 현재는 향사기능만 남아 있다. 남아 있는 향사기능 또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 기능마저도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대부분의 서원이 원래의 설립목적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간간

이 이루어지는 향사를 위해 건축물로서의 형체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보존 관리는 사용하는 건축물에 비해 훨씬 어렵다. 다행히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의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보존 관리를 도와주고 있지만, 그것은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보수 정비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나마 일부 서원은 그 건축적 가치가 높아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지만 이같은 일부 서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원은 단지 존재하는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서원의 역사적 의미가 후손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함양시키는 가치를 지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가치를 유지하는 비용과 비교해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발제에서는 건축적 측면에서 서원건축의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서원 건축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서원 건축물 보존·관리 현황

1. 서원문화재의 훼손 요인

문화재는 그것이 갖고 있는 속성으로 인해 훼손 요인이 많다. 문화재 성격의 다양성, 위치 및 소유 조건의 다양성,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조건, 도난 등 각종 훼손요인으로부터 보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문화재 훼손 요인을 크게 자연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과 생활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동산문화재의 경우 생활환경이나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훼손이 큰 반면 동산 문화재의 경우 소유조건, 실내환경 요인에 의한 훼손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1) 자연환경적인 요인

- 자연풍화작용 : 병충해, 습기, 누수 등에 의한 부패, 산성비로 인한 풍화 가속
- 자연재해 : 폭풍우, 강풍, 집중호우, 지진 등에 의한 훼손

2) 도시사회적 요인

- 국토개발
 - 고속도로 및 국도, 철도 개설, 항만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변경관 훼손
 - 문화재 위치변경으로 인한 고유한 경관을 상실하는 것 등
- 도시개발 :
 - 신도시 개발, 주거지 개발, 지역개발, 택지개발 등으로 경관훼손, 위치변경
- 도시화 현상 :
 -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권역의 확대
 - 도심의 이동과 확산 등으로 인한 개발압력과 경관훼손



사진 1. 국토개발로 주변이 훼손된 문화재 사례

3) 생활환경적 요인

- 기능 및 용도 변경 :
 - 기존의 기능이나 용도가 소멸되거나 변화되어 원형이 훼손
 - 원래의 기능이 바뀌면서 구조변경이나 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훼손
 -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경관 훼손

- 유지능력 부족 :
 - 관리능력 부족으로 방치, 도난으로부터 노출
 - 지속적인 관리가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한 관리능력 상실
 - 소유주가 불분명하여 방치되거나 책임의식 결여로 방치



사진 2. 서원 인접 주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 소유주의 의식부족 :
 - 문화재의 가치를 환금하려는 의식
 - 역사적 가치를 무시하는 의식구조문제
 - 간단한 보수조차 스스로 하지 않으려는 의태

심

- 생활패턴과 도구의 변화 :
 - 각종 생활도구의 변화(보일러 시설, 현대식 가구, 개스시설, 가전제품의 대형화 등)
- 현대적인 건축재료의 사용 :
 - 보온 및 단열을 위한 현대적 재료 사용(시멘트, 유리, 금속, 플라스틱 제품 등)
- 부주의에 의한 화재 등

4) 제도적 요인

- 개발 우선주의 행정 :
 -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에 투여하는 행정에 비해 문화재 행정에 대한 배려부족.
- 문화재 보호법 문제 :
 - 생활환경이나 보존능력, 관리방안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관리체계
 - 용도와 기능이 다른 다양한 문화재를 고려하지 않은 문화재보호 관련법
 - 원형보존 위주의 보존관리 체계
- 시공상의 문제 :
 - 행정편의 위주로 이루어지는 공사체계
 - 전통공법, 전통기법을 무시한 품셈, 획일화된 시방서
 - 내용보다 형태우선주의 시공방식 등
- 문화재 전문행정요원의 부족 :
 - 점점 많아지고 있는 문화재 수에 비해 이를 관리하는 일선 전문요원 부족,
 - 다양해지고 있는 문화환경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요원의 부족.
- 문화재관리방법의 문제 :
 - 문화재 수와 다양성이 의 증가
 -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2. 서원건축물의 보수정비 현황

1) 서원 보수현황

서원의 보수는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과 지정되지 않은 서원으로 구분된다.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수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으나 지정되지 않은 서원의 경우 서원 소유자의 부담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보수 절차는 일반문화재의 보수과정에 따라 시행하지만 문화재보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서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액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다.

서원의 보수는 원형유지를 위하여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훼손된 건축

물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화장실 신축도 보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보수 탈락부분의 미장공사와 같이 간단한 보수에서부터 신축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다. 보수공사는 아니지만 서원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접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책정되기도 한다.

보수공사와는 달리 정비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비복원의 경우 그 예산은 관리 주무부처인 문화재청과는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원 주변에 지원시설을 만들거나, 도로신설, 경관조경 등이 문화재청 예산과 별도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

1986년부터 2001년 사이에 이루어진 서원 보수공사 현황을 보면 모두 97개 서원으로 이를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3곳, 경기도 8곳, 경상남도 22곳, 경상북도 28곳, 대구 4곳, 전라남도 15곳, 전라북도 11곳, 충청남도 5곳, 충청북도 1곳이다.(부록 참조)

2) 서원 정비현황

- 문화재 보수 외에 다른 행정부서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문광부, 행자부 등)
- 서원 활용적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정비내용은 건축물 신축과 주변 경관 정비로 구분
- 신축은 박물관, 기념관, 전시관, 교육관, 훼손 건축물 복원, 기록에 의한 건물복원 등
- 주변 경관 정비는 국토건설, 도로신설 등으로 인한 경관 정비
- 특별예산에 의한 각종 정비

3. 현행 보존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향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나타나고 있다. 현존하고 있는 서원은 그 가치가 점점 상승됨에도 불구하고 관리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1) 자연환경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인 풍화작용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습기는 지붕 등과 같은 곳에 누수가 일어나거나 내부공간에 통풍이 잘 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대부분이다. 목부재에 나타나는 흰개미의 병충해도 목조문화재 보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훼손 요인은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할 때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으나 자연재해로부터의 완벽한 방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와 시의 적절한 보수.관리를 통해 훼손을 억제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간단한 보수만으로도 보수 회전시간을 늘릴 수 있다.

2) 도시.사회 환경

‘개발과 보존’이라는 현대사회의 민감한 문제 때문에 항상 ‘보존’보다는 ‘개발’우선위주로 행정력이 집중되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도시화 현상은 문화재 주변 地價를 상승시키고, 지가 상승은 역사 문화환경 보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발된 후에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개발 전 계획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문화재보존을 모든 행정의 우선 순위로 돌리기 위해서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역사 문화환경, 도시화 현상이 두드러진 지역의 역사 문화환경, 기타 지역에 소재해 있더라도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역사 문화환경에 대해 관리계획을 미리 작성해 두는 방안이 있다.

3) 생활환경

농촌인구의 감소, 노령화에 따라 서원을 관리할 인적자원이 부족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원이 점점 공가화(空家化) 되어 가고 있다. 관광자원화의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

하지 않으면 공가화 현상은 가속될 것이다.

그 동안 간단한 보수조차도 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자에게 의타심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간단한 보수는 소유자 또는 관리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수회전 시기를 10%만 늘려도 보수비용의 10%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을 다른 문화재 사업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4) 행정 및 제도적 환경

문화재보호법의 보존대책에 대한 합리성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획일적으로 '원형보존'을 적용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중에서는 원형보존이 잘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과 요구를 수용하면서 최선의 보존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시행과 회계 및 행정처리 관련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이나 공사기간이 1년 이내로 짧은 문화재 보수공사는 착공시기를 년 초가 되도록 배려하여 가능한 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복원 문화재는 가능한 한 원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수공사 설계에서도 재료와 공법을 원형에 맞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인의 설계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도 문제이다.

현재와 같은 문화재 시공은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재료, 공사금액을 절약하기 위한 공법 등은 심지어 문화재 원형은 변형시킬 정도가 되었다. 특히 도구의 기계화는 전통건축기법을 퇴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품셈, 시방서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나아가 문화재 시공업체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청의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행정요원의 보완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문화재 수가 많아지고, 세분화되면서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재업무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재 행정업무를 효율화, 체계화를 위해서는 전문요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과 함께 문화재관리 방안에 대한 DB화, 전산화 작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Ⅲ. 보존계획의 수립

1. 보존의 문제점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을 보호·보존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관리 행정이 개인 소유주 스스로 보존할 수 있는 자립심을 억제하고 있는 점이다. 행정이 소유주 의식을 고취하고 소유주 스스로 보존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소유주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재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와 같은 행정청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1) 정부(지방정부 포함)

첫째, 도시개발에 있어서 역사 문화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우선주의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도로개설, 택지개발, 공공용지확보 등에 있어서 기능주의와 시급성 등을 앞세워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서원의 역사 문화환경을 보존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둘째, 도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기능과 경제성추구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도시계획이 정확하게 기능을 수행하고, 경제적으로 건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시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쾌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

중 도시행정가들(이들을 도와주는 일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은 이러한 문제점을 망각하는 것 같다. 서원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가 지니고 있는 고유성(Identity)까지 훼손하게 된다.

셋째, 행정가들은 역사 문화재를 '보수만 잘 해 주면 잘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효율적으로 서원문화재를 보존하는데 가장 장애요소중 하나이다. 예산을 투입하여 낡은 곳을 보수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일은 소유주로 하여금 보존문제를 정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보존'과 '보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소유주 스스로 보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넷째, 서원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가치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 서원의 역사와 문화환경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소유주나 시민의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력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행정부에서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 보존의지도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소유주(단체 또는 개인)

첫째, 서원 보존에 대한 소유주의 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 서원의 경우 대부분 법인단체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다. 소유주는 자신의 서원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이유로 크게 2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모든 사항을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고 있어 관리가 불편하다는 점이다. 즉 자신들의 욕구대로 증축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주변이 개발되면서 지가가 상승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생각이 보존의지를 퇴락시키는 이유이다.

둘째, 보존 문제를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태도이다. 정부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 정부가 보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부 문중이나 법인단체의 경우 스스로 간단한 보수로 보존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나 이를 실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

셋째, 유형적인 것만 문화유산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생활문화까지도 문화유산에 포함해야 한다. 서원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서원생활, 음식, 복식, 관습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무형적인 요소들을 함께 보존대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 서원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상승시켜주게 될 것이다.

3) 향유권자(일반시민)

대부분 사람들은 서원에 관심이 별로 없다. 문화유산이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원형이 훼손되거나 심지어 없어진다 해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존이나 활용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극히 일부 사람들만의 관심거리일 뿐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서원에 대해 어떻게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게 할 것인가는 서원 활용에 중요한 문제점이다.

- 서원 역사 문화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 서원 문화재 보존 관리는 소유자와 행정관청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의식 필요
-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서원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 서원 역사 문화환경 보존을 시민운동과 연계하여 보존 효율성과 관심을 높이도록 한다.

2. 보존 방법론

1) 문제의 진단과 처방

현재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하는 선결과제를 거치지 않으면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이 마련되기 어렵다. 그러나 진단과 처방은 주관적인 견해일 수밖에 없고, 또한 모든 서원에 공통적으로 적용

될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먼저 야기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보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소유주로 하여금 문화재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존사업에 적극참여 하게 하는 것이다.

서원의 보존 가치와 필요성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행정가, 소유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보존은 바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실마리가 풀려지는 것이다.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서원은 그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 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라 상세한 계획이 별도로 이루어 져야 하나 대체적으로 보존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활용되어야 한다. 활용되지 않고 관리인에 의한 관리만 이루어질 경우 박제된 문화유산 또는 모형과 다를없다. 서원이 다른 유형의 문화유산과 달리 쉽게 활용되지 않는 것은 현대생활과 유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원의 활용은 현대인들의 생활과 관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적극적인 보존대책은 활용이다.

둘째, 서원의 소유주 스스로 역사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효과적으로 보존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유주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아무리 정부의 보존 노력이 지대하다 해도 소유주 스스로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효율적인 보존이 이루어 질 수 없다. 이것은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으로 소유주를 설득하고 스스로 동참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외래방문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원의 건축물만 단순히 둘러 보는 것만으로 역사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전통문화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원의 모든 유무형적인 문화자원이 동원되었을 때 효과적인 교육효과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제향도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분야별 전문가와 행정가들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존의 원칙과 방향을 자문하고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운영방법 등 기술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다섯째, 보존계획은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형을 완벽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게 되면 결국 시민들로부터 소외되는 서원이 될 것이다. 원형을 크게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원을 중심으로 주변환경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서원의 성격과 해당 서원의 건축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그 대상물에 가장 적합한 문화요소를 접목시켜 주변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 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추가되는 건축이나 부속건물이 보존 대상 건축물을 위압하는 규모나 원형을 호도하는 공간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섯째, 서원 주변의 공간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단순히 보존을 위한 계획 즉, 박제와 같은 보존문화재가 되어서는 안된다. 박제와 같은 문화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서원의 생활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서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역사.민속.음식.복식.전통의례.전래문헌.도서.사진 등)가 문화자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자원을 이용한 소득이 소유주에게 분배되면 보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원의 보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존지원을 맡고 있는 행정부(지방정부 포함)를 비롯하여 보존의 주체가 되는 소유주, 그리고 보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공업자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사항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2) 각 분야별 조치사항

<행정부>

- 서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 해당 서원의 역사 문화환경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 관광자원화 방안 및 활용방안을 모색

- 개발우선주의 도시계획 정책을 역사 문화환경 보존 우선주의로 전환
- 도시계획수립 전에 역사 문화환경 보존계획 수립이 필요
- 도시변두리가 市街化 되기 전 역사 문화환경 주변의 보호구역을 고시하여 지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 마련
- 서원의 다양한 역사 문화환경 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조치 마련
-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서원이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적응력을 모색
- 서원 보존에 소유주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서원 자료(건축, 역사, 민속, 음식, 복식, 전통의례, 전래문헌 등)를 DB화하여 문화재 관리체계를 효율화 하도록 한다.
- 문화재 시공업자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및 평가제도의 활성화

<소유주>

- 서원 보존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
- 서원의 보존문제는 소유주, 시민,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케 하는 방안
- 서원의 건축 뿐만아니라 무형적인 것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는 의식개조 방안 마련
- 서원과 시민들이 유리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서원 소유자(단체 또는 개인)를 대상으로 역사의식 향상 프로그램 마련

<문화재 시공업자>

- 서원에 대한 보존의식과 사명감 고취
- 시공업자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전통기술, 기법의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서원 보수공사 내용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DB화 작업

<문화향유권자>

- 서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 서원의 보존 관리는 소유자와 행정관청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 필요
-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3. 보존계획 수립

1) 기초적인 자료조사 실시

서원의 유형적인 현황자료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건축, 전적, 문서와 같은 유형적인 문화유산과 더불어 전통적인 서원생활, 食문화, 衣문화,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각종 전통의례 등을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는 영상자료와 함께 기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원의 역사적 문화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물적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보존상태와 훼손상태 등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인문사회적 배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서원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서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서원의 소유주는 대부분 문중이나 유림단체이다. 이들에게 서원의 역사적 가치, 지역과 서원의 관계성, 서원 주변경관의 의미와 가치와 등을 인식시킴으로서 서원이 지역의 문화중심이라는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한다.

3) 역사 문화환경과 관련된 법규 조사 및 적용법 근거 모색

문화재보호법, 건축관계법, 도시관계법, 시 조례 등 역사 문화환경을 포함하여 보존을 위한 개발방법과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계획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규검토를 실시한다. 시 조례로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검토결과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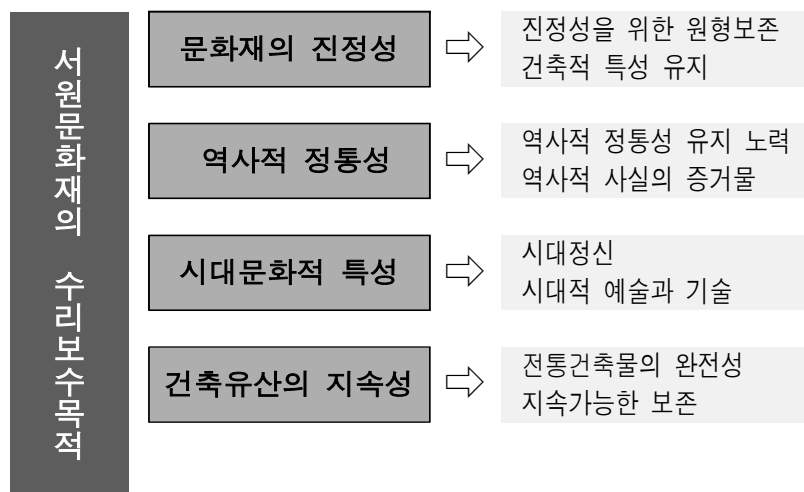
4) 계획의 기본적인 대안 수립

보존대상으로서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특성과 실정에 맞게 물적 계획을 실시한다. 지금까지의 현황 조사와 실측자료, 현실적인 법 적용 문제 등을 바탕으로 건축문화재를 포함한 그 주변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을 계획한다. 이것은 최근 새로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99.5.24.개정) 및 동 시행령 제4조의2(99.6.30.개정)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이 수립」조항을 적극 준용하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²⁴⁾

IV. 보수 및 관리 방안

1. 서원문화재 보수공사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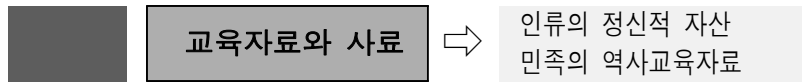
문화재란 인류와 함께 한 역사를 가진 문화 산물로서 시대성, 장소성이 포괄적으로 아우러져 있다. 따라서 인류의 문화가 지속하는 함께 존속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여러 유형의 문화재 가운데 특히 건축물, 석조물, 단청, 지류, 철제품 등은 물적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연시키기 위한 조치는 보수공사, 복원공사, 수리 등의 행위로 이어지는데 우수한 시공품질이 전제되어야 한다.



24)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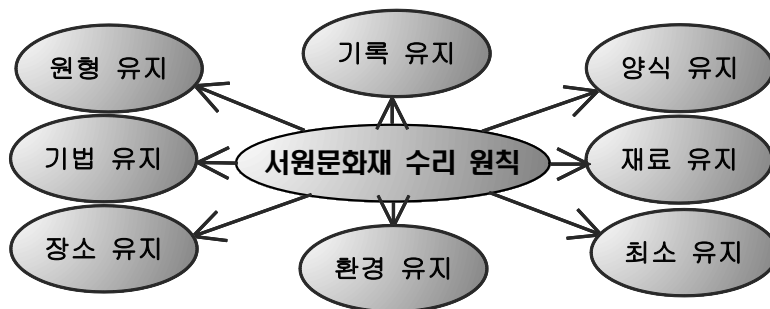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세부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제4조의2)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기본계획 수립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림 4-1> 서원문화재 수리 목적

특히 서원 문화재는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재는 그 자체로 가치가 충분하지만 대중과 함께 할 때 그 가치는 증가한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문화재의 그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려 주는 교육자를 문화재 수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그림 4-2> 문화재 수리공사의 원칙

1) 문화재의 원형유지

수리공사 시 반드시 그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원형에 대한 전거를 확보하였을 때 수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원형을 알 수 없을 때는 현 상태를 지속해야 한다. 함부로 상상하거나 추정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은 원형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원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나중에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두도록 한다.

2) 기록 유지

문화재 수리에 있어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인 가능한 모든 사항을 조사, 기록해두어야 한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고, 불의의 사태로 인하여 소멸, 훼손된 문화재 복원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3) 양식 유지

문화재 수리는 기존 양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상, 추정하여 수리할 경우 원형 훼손은 물론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고증을 통해 수리해야 한다.

4) 기법 유지

문화재 수리는 양식과 함께 당대의 기술과 기법도 수호해야 한다. 즉, 기술자 집단의 기술과 기법, 가공수단, 건축도구를 충분히 재현하여 당대의 기법과 기술이 유지되도록 수리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문화재 수리는 국가 수준에서 능력을 검증한 수리기술자와 기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5) 원 재료 유지

문화재 수리에는 가능한 원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재료의 변화는 곧, 물적 특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수리는 가능한 한 원래의 재료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 장소 유지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동산문화재는 보존과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 장소로 옮겨 수장할 수 있으나, 부동산문화재는 원 위치에 존재할 때 그 가치가 있다. 건물의 경우 건물을 에워싼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풍수지리의 좌향 같은 철학적 배경이 있으므로 해서 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원래 장소를 떠나지 않도록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환경 유지

부동산문화재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산업화에 따라 개발 위주의 논리는 왕왕 문화재와 그 주변을 훼손하는 주범이었다. 이제, 문화 가치가 산업 가치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문화재는 물론 문화재 주변의 환경까지 보호,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8) 수리범위 유지

수리 범위는 가능한 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당시의 기법을 사용하고,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 해도 당초 물적 특성을 그대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부재를 교체해야 할 경우 그 범위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수리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 단계부터 철저하고 치밀하게 점검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해체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은폐된 부재의 경우에는 해체 후 보수범위를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서원 건축물 관리

1) 목적과 필요성

서원은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서원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는 서원의 원형을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양시키고 인류의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다. 서원건축은 사찰이나 살림집과 같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문화재와는 달리 활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다. 서원의 보수공사를 제외한 건축물 유지관리는 소유자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능력이 부족하면 보존상태가 불량해 지므로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원의 관리는 크게 건축물 관리와 운영관리로 구분된다. 본 항에서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관리방법에 대해 언급하도록 한다.

2) 서원 건축물 관리과정

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 종합정비계획, 세부정비계획, 정비공사, 일반관리의 단계로 관리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 서원의 성격과 문화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서원의 건립 및 연혁, 성격, 건축물 현황, 주변 경관, 관리 현황 등 기본적인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서원에 대한 기초자료는 서원에 대한 기록유지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서원의 문화유산적 성격과 가치판단에 따라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

종합정비계획은 계획단계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해 서원 고유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변형되거나 원형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평가를 거친 종합정비계획은 정비계획 추진 일정과 예산수립과정을 거쳐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즉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세부 정비계획은 서원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정비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3) 서원 건축물 관리방법

각 분야별로 관리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초자료조사는 서원의 역사적 배경, 사건, 서원의 배향인물과 서원과 관련된 인물, 현존하는 건축물 현황 및 보수·수리 이력, 주변 경관 현황, 현재 건축물 관리 및 활용현황 등이 포함된다. 기초자료는 문화적 가치의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모든 서원이 필요한 기록이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두 번째 종합정비계획은 서원의 기초자료조사를 근거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고, 주변경관과 함께 서원의 보존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해야 한다.

종합정비계획에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변형되거나 훼손된 서원의 원형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합정비계획으로 인해 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고양될 수 있어야 한다. 서원의 영역, 실존했던 건축물 등 원형을 고증하기 위해 시굴이나 발굴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문화유산과 달리 서원은 주변의 경관이 매우 중요성하다. 따라서 주변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간혹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소유단체 또는 관리단체의 요구에 의해 유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서원 종합정비계획은 사전에 문화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서원 정비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서원이 지니고 있는 원래의 경관과 가치를 되살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세부정비계획이다. 이 단계는 종합정비계획을 구체화 하기 위한 실시설계 단계가 된다.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양식이나 재료, 기술 등이 원형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원을 관리하기 위해, 또는 문화의 원형을 지속하기 위해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원형 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도록 추가시설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세부정비계획은 그대로 정비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면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오류가 있을 경우 원형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단계를 거치면 마지막 네 번째 정비공사로 들어가게 된다. 정비공사 단계에서는 세부정비계획에서 결정한 내용이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단계이다. 특히 서원건축의 원형, 특히 양식, 재료, 기술, 기법, 경관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감리하도록 한다. 현장 사정에 따라 원형유지가 어려울 경우 대안을 마련하는 차선책도 필요하다. 특히 공사 관계자는 문화재와 전통기술에 대한 지식과 식견이 풍부해야 할 것이다. 서원 건축물 관리 과정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 서원 건축물 관리과정 및 방법

단계	조사단계	정비계획단계		실시단계
항목	기초자료조사	종합정비계획	세부정비계획	정비공사
내용	연혁 인물 건축물 현황 주변경관 관리현황	문화재 원형 회복 문화유산의 가치 고양 시·발굴조사 필요성 검토 주변경관의 보존여부 검토 변형의 범위 설정	변형양식 검토 변형재료 검토 변형기술 검토 추가시설 적정성검토 변형의 범위 설정	세부정비계획 확인 원형양식 유지 확인 원형기법 유지 확인 원형재료 사용 확인 원형경관 유지 확인

4) 종합정비계획 관리

서원의 종합정비계획은 서원의 역사적 가치, 건축양식 및 시대적 가치 등 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 도시개발 등에 의한 주변경관의 훼손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작성한다. 종합정비계획에서 우선적으로 설정해야할 것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과 개념 설정이다.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서

원의 성격과 역사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서원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벗어나서는 안된다. 역사적으로 서원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속가능한 서원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서원의 기능이 현대사회에서도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계획 기본 방향과 개념을 찾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서원의 경관보존이다. 경관보존은 서원내 경관과 서원 주변 경관으로 구분된다. 같은 학교기능이지만 서원은 향교와 달리 배치계획에서 주변 경관을 매우 중요한 결정요소로 보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원은 경관이 수려하고 위치적으로 읍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원 내 경관은 건축물의 배치계획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치방법을 공유하고 있었다. 즉 향사공간과 강학공간으로 분리되어 각각의 기능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지형조건, 창건당시 경제규모, 역사적 변천에 의하여 서로 다른 건축경관을 만들어 왔다. 따라서 서원건축의 중심공간은 역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관을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 복원 작업은 서원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원형에 대한 고증은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서원 주변 경관은 가능한 한 원래의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근래에 들어와 개발로 인해 주변경관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훼손으로부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서원 주변경관 관리지침을 종합정비계획에 포함시켜야 서원의 창건 취지와 의미를 지속시킬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서원의 역사와 경관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원의 중심공간(향사 공간과 강학공간)에는 가능한 한 건축물을 추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훼손된 시설물 복원은 예외로 한다. 이것은 서원건축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서원 주변에 서원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설물의 신축은 경관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가령 교육관, 박물관, 관리사무소 등 역사적으로 서원에 없었던 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서원 본 건물을 제압하는 규모와 경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 규모가 커질 경우 서원과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2. 종합정비계획 관리

항 목	항목별 정비요소	구성요소의 정비계획 내용	정비계획 관리내용
정비계획 기본방향	현대사회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의 역사성 보존 • 서원 기능과 역할의 현대적 재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이 현대사회에 지속가능한가
경관보존	서원 내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중심구역 경관은 원형 유지 • 서원 역사성유지에 필요한 원형경관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의 주요 공간이 원래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가
	서원 주변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의 창건당시 경관의 의미 유지 • 최소한 보존해야할 완충공간 확보 • 서원 주변경관 관리지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주변의 개발계획은 없는가 • 서원 주변경관이 원래의 모습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건축시설 물 신축	박물관,기념관, 교육체험관, 관 리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중심영역을 피할 것 • 서원건축물과 일정한 거리 유지 • 서원 건축물 규모 압도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건물이 서원 옛 모습을 지속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편의시설 신 축	화장실,안내판 매표실,가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의 특성과 전통건축물에 어울리는 규모, 색깔, 형태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시설물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 현대적 시설물이 얼마나 되는가
조경계획	수목,화회류식 재, 수석, 수로 설치,바닥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전통성과 성격 맞는 조경요소 • 외래수종, 국적불명 조경요소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전통 조경요소와 부합되는가 • 현대적인 조경요소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

네 번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편의시설이다. 편의시설에는 화장실, 안내판, 매표실, 가로등 각종 현대적인 시설물이 이에 해당된다.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시설물을 건립하거나 설치할 경우 위치, 규모, 색깔, 조형성 등 심중하게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서원의 특징과 경관을 고려하여 전통 건축과 어울릴 수 있는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설물이 모든 서원에 똑같은 형태로 적용되어 획일화 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수목식재, 화회류, 수석설치, 수로설치, 바닥포장 등 조경계획이다. 서원의 조경은 일반 살림집이나 관청과 다른 조경계획은 하였다. 정비계획에서 서원과 어울리지 않는 수목을 식재하거나 외래수종을 식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전통에 맞지 않는 괴석, 수석, 수로를 설치하는 일은 서원의 역사성을 그르치는 일이 될 것이다. 서원 및 경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서원 건축물 안전점검(정비 및 보수공사 후 관리계획)

1) 목적

안전점검은 서원의 건축물을 현상을 지속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안전점검은 육안이나 기기 등을 이용하여 노후상태나 훼손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며, 이 기초자료는 보수, 보강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하도록 한다. 안전점검의 목적은 문화재의 원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위라 하겠다.

2) 점검시기에 따른 종류

① 초기점검

문화재관리대장에 기록되는 최초로 실시되는 점검을 말한다. 지정되는 문화재는 지정 후 바로 실시하며, 보수를 통해 구조형태가 변화되었을 때에도 초기점검이 필요하다. 초기점검은 문화재 관리대장 및 평가자료, 관리자가 수집하는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문화재 상태의 판단 및 문제점 또는 문제 가능성이 있는 구조 부위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 실시되는 점검 및 진단시에 초기 점검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② 정기점검

계획된 정기적 점검으로서 해당 문화재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며, 안전 상태를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점검을 말한다. 점검은 숙련된 경험이 많은 관리자가 시행하거나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 표면점검은 물론 변형점검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해당 문화재의 전반적인 외관형태 및 구조적 상태를 관찰하여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는 문화재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다음 점검 및 진단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긴급점검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눌 수 있다. 손상점검은 비계획적인 점검으로서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인 손상을 평가하는 것이다. 손상점검은 정밀점검의 보완수단으로 손상의 정도와 보수의 긴급성 및 보수작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장비에 의한 현장측정 및 사용제한기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특별점검은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점검으로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이다.

④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과정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훼손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비파괴 현장 시험 등 검사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근접점검이다. 필요한 경우 주변 통제를 해야 하며, 점검용 접근장비, 비계 및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관련 기술자와 문화재 전문가가 필요하다. 결과는 관련 도면 등에 기록하며, 건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노후화 또는 훼손 정도에 따라 건조물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건조물의 해체 보수시에는 폐자재 등에 대해서도 재료분석까지를 포함하여 진단을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하다.

3) 점검방법에 따른 종류

① 점검수준에 따른 종류

■ 표면점검 : 주로 육안으로 관찰하는 수준의 점검으로 육안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망원경을 이용하거나 사진촬영을 하여 사진을 통해 판단을 하거나, 손으로 만져보는 촉진, 손마치 타진 정도의 점검이다. 재료, 부재 및 부위의 어긋남, 벌어짐, 벗겨짐, 탈락, 부식, 비 샌 흔적 등을 점검한다.

■ 변형점검 : 표면점검을 통해 구조적으로 변형이 심한 경우에 변형 정도를 측정하는 점검으로 자를 이용하여 계측하거나, 추, 물수평호스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수직 및 수평줄을 설치하고 변형 정도를 측정한다. 보다 정밀하게 변형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트랜시, 광파기등을 이용하여 변형 상태를 측정한다. 숙달된 경험이 많은 관리자가 시행하거나, 문화재의 손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전문 문화재 기술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점검기구에 따른 종류

■ 육안점검 : 눈으로 관찰하여 점검하는 방법으로 육안만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망원경을 이용하거나, 사진촬영을 하여 사진을 통해 변형을 판단한다. 육안점검은 세밀한 관찰력이 요구되고, 자주 관찰하게 되면 안목을 높일 수 있다.

■ 촉진 : 표면을 손으로 만져보는 방법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가능하며, 재료의 다듬은 정도, 압축 정도 및 결로 혹은 습기에 의한 축축한 느낌 등을 판단할 수 있다.

■ 타진 : 조그만 손마치 등으로 타진하여 울리는 소리와 압축 정도 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점검자는 훈련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 간단한 기구점검 : 추, 물수평호스, 자 등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변형에 대한 계측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트랜시 및 광파기 정도의 장비까지를 포함한다.

■ 정밀장비점검 : 비파괴 현장시험장비 등 초정밀장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밀 전진단시에 사용된다. 장비는 비파괴 시험장비가 원칙이나, 해체 수시에는 폐자재로 나오는 재료에 대해서는 성분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4) 점검 매뉴얼과 사후 처리

- 건축물의 관리상태에 따른 정기 점검내용 체크리스트 작성
- 서원의 건축물 관리는 초보적인 건축물 안전점검 매뉴얼 작성
- 건축물 안전점검 매뉴얼에는 문제 발생시 보고체계도 포함하도록 한다.
- 건축물 관리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안전점검 매뉴얼에 대한 교육

■ 기단부

[표면점검] : 균열, 기단상면 벗겨짐(강회다짐 외), 주저 앓음, 이완 등

■ 지붕

[표면점검] : 지붕면에 나무, 잡풀 등이 자라고 있는가. 지붕 재료가 어긋났는가.

지붕재의 표면 동파(벗겨짐), 깨짐, 비뚤어짐(벌어짐), 떨어짐(탈락) 현상이 발생했는가.

지붕재가 부식되었거나 비가 샌 자국(홍두깨흙이 흘러내리는 등)이 있는가.

와구토의 이완 및 탈락 현상이 있는가.

[변형점검] :

① 용마루 : 집에 이상이 있으면 이 부분에 외견상 가장 먼저 이상이 발생하므로 세밀한 관찰이 요

구된다. 지붕의 변형은 지붕재 자체의 결함에 의해서라기보다 하부 구조체의 변형이 최종적으로 용마루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육안관찰: 어긋남, 벌어짐, 탈락, 처짐, 균열, 휘어짐 등

-용마루 선: 용마루 꼭데기에 수평줄을 띄우고 용마루 곡의 변형 여부를 살핀다.

수직곡은 중앙, 1/4 지점 등 3군데만 계측해도 되며 전체적인 곡은 사진을 찍어 둔다. 수평곡 역시 좌우 양쪽에서 사진으로 찍어두면 그 변형 여부를 살필 수 있다. 가장 좋지 않는 현상은 용마루가 함몰했거나 전체가 낙타 등처럼 물결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조체에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가끔 지붕마루 홍두깨흙을 치밀하게 채워 넣지 않거나 숯마루장을 아구지게 잇대어 놓지 않으면 태풍 등의 영향으로 수키와장이 벗겨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동선으로 적당히 묶어둘 필요가 있다.

② 내림마루 : 합각지붕에서 내림마루가 처진 것은 추녀의 처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추녀는 집의 날개이므로 추녀가 처지거나 혹은 내림마루가 내려앉으면 집의 어깨가 무너진 것처럼 볼품이 없어진다. 육안 관찰은 용마루와 같다.

박공지붕에서 내림마루의 처짐은 박공에 실린 기와의 무게를 도리가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리는 도리의 맞춤, 도리와 보의 맞춤을 할 때 서로 따내기 때문에 따낸 단면 부분이 꺾어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까치발로 받치는데 원형은 아니다. 이런 상태는 지붕 속에서 목기연을 지탱하는 별도의 부재(적심목)를 종과 횡으로 설치해서 처짐을 방지토록 하는 구조보강을 요한다.

-내림마루 선 : 망새 끝과 내림마루 꼭지에 실을 띄우고 실의 기울기(1/100로 표시한다)와 중앙의 곡을 잰다. 내림마루선이 볼록해진 것은 처마의 처짐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비뚤어진 것은 물려 있는 암키와, 착고, 부고 등 자체의 결함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내림마루선이 처진 것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집우새(숯을 박공널 뒤에 보강한 널판), 적심 등을 넣어 보강할 필요가 있다.

③ 처마선 : 처마선의 변형은 추녀의 처짐, 서까래에 결함이 발생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집의 구조체 전체가 기운다던가 하는 이상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양쪽 추녀에 못을 박아 실을 매고 처마 안허리와 처마곡을 측정한다. 큰 이상이 없는 한 5군데 정도 측정하면 된다. 단 매년 측정하는 위치가 일정해야 하며 평고대를 기준으로 한다. 올라가기 어렵고 긴급한 경우가 아닐 때는 트랜싯을 이용해 일정한 장소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다.

처마선의 변형에 있어 가장 두려운 현상은 처마선이 물결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집이 전체적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요즘은 기와가 예전보다 무겁고 지붕에 알매흙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큰 규모의 전각에서는 그런대로 견디지만 민가나 관아 등의 건물은 이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붕 공사시 지붕 하중이 너무 올라가지 않았나, 진새는 적정한(방수적) 성능을 가졌는가 하는 점을 살펴야 한다.

처마곡은 구조체의 변형에 비해 변형이 크게 진행되는 것이므로 처마길이의 1/200 이내의 변형은 허용하되 그 이상 진행되면 반듯 전문가에 의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④ 지붕면 : 수키와의 선이 바른 지 혹은 기와가 내려 앉은 것은 없는 지 혹은 처마끝 기와가 떨어진 것은 없는 지 살핀다. 기와 가락선은 각 부재 중심선을 벗어나면 안된다. 이것은 암키와도 중요하지만 특히 수키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붕의 물매도 일매지게 되었는가 혹은 처지거나 배부르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점검한다.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실을 띄우고 계측해 둘 필요가 있다. 안전점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변형의 진행 속도이기 때문이다.

지붕면의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면의 물결현상이다. 한쪽에 변형이 발생했을 때는 지붕 자체의 결함일 수 있지만 물결현상은 하부 구조체 전체의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조가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틀림없이 비가 생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긴급한 사항은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사진촬영을 하거나 혹은 기구를 활용하여 근접촬영을 한다.(특히

비가 섰을 때는 즉시 보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른 날씨에 건물 후면의 기와 면을 만져 봤을 때 축축하고 습기가 찬 듯하면 이것은 겨울에 동파될 가능성이 많다. 반드시 흡수율을 측정해 봐야 한다.

홍두깨흙이 흘러내리는 자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면 비가 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기와지붕인 경우 진새를 쓰지 않고 단순히 알매흙만 쓰기 때문에 기와가 샌다는 것은 곧 비가 새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지붕면에 나무나 잡풀이 돌아나고 있으면 이는 비가 섰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시 잡풀등을 제거하고 비가 새지 않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지붕 시공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근래의 지붕공사는 홍두깨흙 혹은 알매흙을 잘 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성실하게 퍼지 않기(나무 도드락 망치로 치면서 틈새가 없도록 해야 한다)때문에 기와 틈사이로 비가 새면 곧바로 집에 해를 끼치게 된다. 또한 홍두깨흙과 수키와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수키와장이 흔들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가지붕에서는 알매흙을 올리지 말고 짚을 섞어 이긴 진새를 올려서 진새가 방수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와구토의 이완은 출입자의 안전에도 위험하므로 반드시 제거하고 견실하게 충전하여 재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와구토의 이완 및 탈락은 수키와의 탈락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⑤ 회침 : 한옥에서 맨 먼저 비가 새는 부분은 집이 ㄱ자로 꺾어지는 안쪽 회침 부분이다. 고려 이후에는 회침 기와를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기존 기와를 깨뜨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쏟아지는 골기와 물이 일정하지 않고 수키와 아래쪽에 물끓기가 없으므로 빗물이 자주 암키와골을 넘어간다. 비가 새는 지를 꼭 점검하고, 혹 암키와장이 깨졌는지 3겹 이기가 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판정) : 대개 변형이 5mm 이내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는 안전에 지장이 없지만, 1~2cm정도 진행하고 있으면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한다. 변형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변형이 전체 길이의 1/100 이상 진행되고 있을 때는 구조체가 안전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며 1/50 이상 진행되었는데도 집에 이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계측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특히 용마루나 처마, 지붕면에 물결현상이 발생했으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에 의한 판단해야 한다. 지붕재가 어긋나거나 벌어짐, 벗겨짐 등의 현상이 현저히 진행되어 비가 샌다고 판단될 때는 가능한 빨리 보수를 시행해야 한다.

■ 지붕틀

[표면점검] : 지붕의 물이 새고 있는가 - 비 흘림 자국/ 변색/ 썩음/ 재료의 갈라짐 (자체의 갈렘 혹은 힘의 변형에 의한 뒤틀림, 터짐, 꺾어짐) / 이음과 맞춤의 이완 여부(벌어짐, 벗겨짐) 등, 특히 중요한 것은 지붕재가 가장 함수율이 낮아야 한다. 12~15% 정도이면 최상이고 최소 18% 이하여야 한다. 만일 18% 이상이면 지붕 하부의 통기가 불량한 것이고 이미 부재의 부패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변형점검]

① 연목 ; 비가 새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 썩거나 벌레 먹는 것과 지붕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처짐이 발생한다. 이 경우 처마끝이 중요하므로, 서까래의 재 중심에 실을 띄우고 중심 실이 서까래 부재 밖으로 지나갈 때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다. 부재 변형이 2cm이상 발생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지붕에 하중을 많이 싣고 연목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서까래가 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연목이 꺾어졌을 경우에는 처마선이 변형이 오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다.

만일 지붕의 하중에 불균형이 있으면 집이 기울기 시작한다. 특히 한옥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벽체가 없었을 때 집에 뒤틀림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오금 기법과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계측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 처짐과 뒤틀림 현상은 기둥이 썩어 내려앉는 경우에도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② 대공 혹은 동자주 ; 대공이나 동자주는 그 길이가 작기 때문에 압축력에 의해 꺾어진단가 변형

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이들은 횡력을 많이 받는 부재이기 때문에 집의 전후 균형이 안 맞는 다던가 혹은 집이 뒤틀릴 때 대공의 하부 맞춤에 하자가 발생하여 기울어지는 수가 많다. 또한 대공 하부에 물(빗물이나 결로현상에 따른 물기)이 들어가서 썩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마루대(중도리) 받침장혀 중앙에 실을 다림추로 내리고 변형을 관찰한다. 종단, 횡단 모두에서 1/200 이하가 허용치이고 1/100~1/50 이상 진행하고 있으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다. 특히 횡단에서 판대공의 중심선이 재 밖으로 벗어나고 있으면 위험한 상태이므로 즉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③ 보 ; 대체로 한옥의 보(특히 대들보)는 등을 구부려서 상부의 하중을 받고 있다. 이것은 목재의 형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1/50 정도의 기울기인데 만일 이것이 일직선이 될 정도로 쳐진다면 위험한 정도이다. 마찬가지로 일직선의 대들보라고 하더라도 처짐(크리프) 혹은 휨 현상이 1/100 이상 진행되면 위험한 상태이다. 특히 대들보인 경우는 집의 가장 중요한 부재이므로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보는 큰 부재이므로 부재의 건조에 의해 갈라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과 힘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 갈라짐과 잘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은 보의 중앙 옆구리에 횡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라짐이다.

보는 부식과 균열이 구조적인 불안정 요인이 되나 기둥 위에서 사괘맞춤을 하면서 떠난 부분이 절단(꺾어짐)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보를 완전 교체하지 않고 보 속에 부식되지 않은 철재(스테인레스 스틸)로 심을 박고 수지처리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고재를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도리 ; 집에 쓰여지는 모든 부재 가운데 모두 비뚤어진 나무를 쓸 수 있지만 도리만큼은 똑바른 나무를 쓰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도리가 어긋나 있으면 지붕면도 비뚤어질 수 밖에 없다. 집을 짓는 대목은 모두 이 도리가 놓이는 위치를 기준으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도리의 변형 상태를 관찰하면 집이 비뚤어졌는지 혹은 기울거나 뒤틀리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집에 오금이나 귀숫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짓기는 모두 좌우대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도리의 중심이 기둥의 중심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데 이는 전문가가 아닌 경우 판별하기 힘들다. 따라서 주심도리는 도리 표면 내·외부에서 실을 띄워 살피고 기타 도리는 밑둥 중심에 실을 띄워 다림추가 지면에 그리는 점들이 일정하게 네모꼴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관찰한다. 물론 수평도 계측해야 하는데 좌우대칭이 아닌 경우, 어떠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도리 하나만 변형이 일어났다면 판단은 간단하지만 전반적으로 변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

(판정) ; 빗물이 샌다던가 용마루 혹은 중도리가 처졌을 경우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가 지붕재의 변형을 외형적으로 쉽게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들보의 처짐인데 처짐의 진행이 연간 1/300 이상이면 요주의 대상이 된다. 또한 대들보는 보머리 부분의 벌어짐 여부를 살핀다.

중심도리·외목도리는 집의 뒤틀림을, 중도리는 집의 처짐을 판정할 수 있다.

■ 천장

[표면점검] : 비 흘림 자국, 변색, 썩음, 처짐, 이음과 맞춤의 이완 여부(벌어짐, 벗겨짐)등

[변형점검] : 천장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처짐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천정 안쪽으로 통풍이 좋지 않아서 천장 위로 결로가 발생한다던가, 또는 비 샘 등에 의해 지붕의 흙이 떨어져서 천장이 하중을 받음으로서 처짐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천장의 변형은 구조체의 변형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조체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 지에 대한 여부를 관찰한다.

(판정) : 천장의 변형은 네모난 천장의 대각선으로 줄을 띄워 처짐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허용의 범위는 1/300 정도이고 1/100 이상 진행되었으면 위험하다. 특히 1/50 이상 진행되고, 구조체의 변형에 의해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면 대단히 긴급한 상황이므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 뼈대(기둥, 창방, 평방, 중하방)

[표면점검] : 부식, 이완(벌어짐), 벗겨짐 등, 문드러짐, 뒤틀어짐

[변형점검] ;

① 기둥 ; 기울어졌거나 비틀린 상태를 계측해야 한다. 기둥의 기울음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모든 기둥에 대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창방 혹은 장혀 뿔목의 중심에 못을 박고 다림추를 내려 종횡에서 관찰해야 한다. 자연목을 사용하여 굽기가 일정하지 않은 기둥은 이를 감안하여 측정한다. 또한 기울기 측정시 기둥과 창방, 주선, 문얼굴 등과의 이완여부를 점검한다. 변형이 1/50 이상 진행되고 있으면 위험하므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허용 변형은 1/100이하이고, 민가 등 기둥 부재가 작은 집은 1/200 이하이다.) 기둥에는 오금기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둥의 변형을 점검해서 파악해야 한다. 기울거나 비틀어졌을 때 모든 기둥이 같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오금기법에 따른 것 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기둥머리의 중심에 다림추를 내렸을 때 다림추 선이 재 밖으로 나가면 이미 무너졌어야 하므로 계측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다른 어떤 요인이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기둥의 수직선이 재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둥은 밑둥이 썩어서 내려 앉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망치로 두드려 보면 알 수 있다.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으로 판별하는데, 썩은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표준 기둥을 만들어 놓고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정확한 테스트는 여러가지 기기가 있지만 요즘 포터블 조사기가 있으니 활용하면 된다. 권위건축에서 기둥 단면은 허용응력에 대해 대체로 2배의 여유가 있고 주택 등의 건축에서는 1.25~1.5배 정도 밖에 여유가 없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산치는 대략 권위건축인 경우 간사이에 대해 직경이 1/15~1/20 정도면 되고, 민가 등 소규모 건물은 1/25까지도 허용되므로 썩지 않는 부분의 단면이 이 범위 이내에 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기둥의 변재가 썩었을 때는 대단히 위험하므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갈래은 강도에 별 지장은 없으나 재질을 절단하는 부러짐은 위험하므로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문제는 기둥굽이 썩으면서 내려앉아 상부 도리가 함께 처지는 경우이다. 이때에 기둥의 기울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② 창방, 평방

③ 중하방

표 3. 서원건축물 점검 내용과 원인

점검요소	점검내용	원인분석
초 석	맑은 날에도 습기가 찬다	배수나 환기가 잘 안된다. 인접된 곳에 배수로나 샘 가능성
	균열이 발생했다	초석이 약해 건물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
	석질이 부석부석해 진다	석질이 약하다
	기울어져 있다	한쪽 지반이 약하다. 적심 설치가 불량하다. 지진, 지하수 등에 의해 변형
	다른 초석에 비해 낮아졌다	지반이 약해 침하가 생겼다.
	적심석이 드러나 보인다	기단토 또는 지정이 깎여졌다. 기단 및 토사가 유출되었다.
마 루	다닐 때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	동귀틀 또는 장귀틀이 빠지거나 부식되었다.
	처지고 다닐 때 가구가 흔들린다.	동귀틀 또는 장귀틀이 부러지거나 부식되어 내려앉았다.
	불거지고 휘어져 있다	기둥이 기울거나 마루틀이 신축되면서 마루판을 밀었다.
	마루청판 사이가 벌어져 밀이	마루청판이 신축되어 마루판 사이에 틈이

기 동	보인다	생겼다.
	비바람이 들이쳐 빗물이 고인다	추녀 또는 처마가 짧거나, 기와에 누수현상이 생겼다.
	하부에 빗물이 들이친다	추녀 또는 처마가 짧다. 기둥이 높다.(중층 건축물)
	밑둥이 썩었다	비바람이 들이친다. 해충이 생겼다.
	파란 곰팡이가 생겼다	습기가 심하다. 단청이 안되어 있다.
	흰개미가 돌아다닌다	흰개미가 생겼다.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생겼다	해충의 피해가 우려된다.
	위 아래로 틈이 벌어져 있다	목재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틈의 폭에 따라 점검수준 결정
	기울어지거나 뒤들려 있다	지반의 부동침하, 주요 구조부재 부식에 의한 현상
	두드리면 속이 빈 소리가 난다	흰개미의 피해 또는 균에 의한 부식

표 4. 서원 건축물 점검내용의 단계별 조치사례

점검요소	점 검 내 용	단계별 조치				비 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 단	기단 상부에 잡초가 생겼다	●				관리인 보수
	기단석 일부가 내려앉았다	●				"
	기단 상부 강회마감이 떨어졌다	●				"
	기단석이 많이 떨어졌다		●			전문가 점검
	기단석 밑으로 물이 스며든다		●			"
	기단이 흘러내려 초석밑이 보인다.				●	긴급보수
초 석	맑은 날에도 습기가 찬다		●			전문가 점검
	균열이 발생했다			●		"
	기울어져 있다			●		"
	다른 초석에 비해 낮아졌다			●		"
	태풍 후 적심석이 드러나 보인다				●	긴급보수
마 루	다닐 때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			●		전문가 점검
	처지고 다닐 때 가구가 흔들린다			●		"
	불거지고 휘어져 있다		●			"
	마루청판 사이로 밑이 보인다			●		"
	동귀틀이 내려 앉았다		●			"
기 동	하부에 빗물이 들이친다	●				관리인 보수
	기둥에 청태가 끼었다		●			전문가 점검
	기둥 밑이 희게 변했다		●			"
	밑둥이 썩었다			●		전문가 점검
	뒤틀이고 기울어 졌다			●		"
	흰개미가 돌아다닌다			●		"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생겼다			●		"
	기둥을 두드리면 빈 소리가 난다		●			"
	기둥부재에 틈이 벌어졌다		●			"
지 붕	지붕 위에 와초가 생겼다	●				관리인 보수
	천정에 빗물자욱이 생겼다		●			전문가 점검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진다			●		"
	추녀나 처마에 벌집을 지었다	●				관리인 보수

	추녀에서 흰가루가 떨어진다		●		●	긴급보수
	추녀에 빗물자욱이 생겼다		●			전문가 점검
	추녀끝이 약간 처졌다			●		"
	추녀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	긴급보수
	서까래에 빗물자욱이 생겼다		●			전문가 점검
	서까래 끝이 약간 내려앉았다			●		"
	서까래 끝이 많이 내려앉았다				●	긴급보수
창 호	문(창)종이가 찢어졌다	●				
	문(창)고리가 떨어졌다	●				
	문(창)의 돌쩌귀가 떨어졌다	●				
	문(창)이 바람에 쫄려있다	●				
	문(창)이 잘 열리지 않는다		●			
	문(창)살이 떨어졌다		●			
	문(창)이 틀어졌다			●		
	문(창)틀이 틀어졌다			●		
	문(창) 목재가 부식되었다			●		
	문(창)을 도난당했다				●	

V. 서원 권역별 보수 및 정비 지침

1. 서원 경내 건축물

서원 경내에는 가능한 원형 건물 외에 다른 건축물을 건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당

- 사당을 보수 정비는 창건 또는 중건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사당의 보수 정비는 조선시대 전통적인 양식과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구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사진 3. 서원 경내에 콘크리트 유물관을 건립한 사례

■ 강당

- 강당의 보수 정비는 창건 또는 중건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강당의 보수 정비는 조선시대 전통적인 양식과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구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외삼문, 내삼문, 협문

- 문의 보수 정비는 창건 또는 중건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문의 보수 정비는 조선시대 전통적인 양식과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현대재료를 사용할 경우 다만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동재, 서재

- 동서재 보수 정비는 창건 또는 중건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동서재의 보수 정비는 조선시대 전통적인 양식과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건물의 구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동서재를 활용하기 위하여 보수를 할 경우 규정된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이 없을 경우 문화재청(또는 지자체)과 범위와 형식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동서재 활용을 위한 보수 범위는 원형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도록 한다.
- 건축물 내부에는 보온과 단열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냉방기기를 설치할 경우 외부에 설치하는 기기에는 나무, 대나무, 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함을 만들어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방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 간막이 벽은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할 수 있으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존치시키도록 한다.
- 재실의 작은 방 2개를 터서 사용할 경우 상부의 문틀은 제거해서는 안되며, 추후 원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현대적인 난방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난방기기는 건물 내부에 두되 내부 설치가 어려운 경우 건물 외벽에 인접시키고 목재 등으로 외부를 감싸두도록 한다.
- 단열을 위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내부에 창호를 달 수 있다.
- 전기계량기, 분전반, 전화단자함 등 건물에 부착되는 시설은 가능한 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며, 그 색상과 재료는 디자인 가이드의 권장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 제기고 등 부속건물

- 제기고 보수 정비는 창건 또는 중건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제기고 보수 정비는 조선시대 전통적인 양식과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건물의 구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수직사

- 거주를 위한 보수 정비 경우 부분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다. 다만 건축물 외부로 노출되는 곳에는 가능한 한 현대적인 재료와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 보온과 단열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처마에 차양을 설치할 경우 본체의 색깔과 맞지 않는 화학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 냉방기 외부기기, 외부 연료통 등은 나무, 대나무, 발 등 전통재료로 함을 만들어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방의 내부 간막이 벽은 제거할 수 있으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존치시킨다.
- 현대적인 난방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단열을 위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내부에 창호를 달 수 있다.
- 단열을 위해 창호를 달 경우 기존 창호 안쪽에 달고 크기와 모양은 기존 창호를 준용하도록 한다.
- 바닥마루를 제거하고 다른 재료로 개수해서는 안된다.
- 마루벽을 제거하여 큰방으로 구조 변경해서는 안된다.
- 마루 후면에 덧대어 새로운 벽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 부엌 바닥은 원형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을 높이는 시공방법을 모색한다.(복원 가능성)
- 부엌 상부에 다락이 있는 경우 다락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 부엌에 설치하는 가구는 주택과 잘 어울리는 형태와 색상을 선택한다.
- 본채 외형 및 평면의 변형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채 내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본채의 외부로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마폭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재료와 형태는 본채와 유사하게 하여야 한다.
- 본채 외형 및 평면의 변형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본채 내에 욕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본채 외부로 덧붙인 욕실은 설치할 수 없다.
- 전기계량기, 분전반, 전화단자함 등 건물에 부착되는 시설은 가능한 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며, 색상과 재료는 디자인 가이드의 권장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 담장

- 담장은 원래 형태와 규모로 보수하여야 한다.
- 담장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서원 건축양식과 규모를 감안하여 크기와 형태를 결정한다.
-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에 시멘트 제품, 금속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마당

- 마당 표면은 흙바닥, 마사토 깔기를 원칙으로 하며, 전통적 옛 모습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동화장실

- 서원 내에 공동화장실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경우 작성된 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지침이 없을 경우 문화재청(또는 자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동화장실은 가능한 한 서원 외부에 건립하되 불가피하게 서원 내에 건립할 경우 외부형태는 조선시대 건축양식으로 한다.
- 화장실 내부의 시설이나 기기가 가능한 한 외부에 많이 노출 되지 않도록 한다.
- 화장실 외부에 설치해야 하는 기계나 기기가 있을 경우 나무, 대나무, 발 등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함을 만들어 전통적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2. 서원 주변 건축물

- 서원 주변에 건립하는 건축물 신축은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서원 종합정비계획은 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여부를 판단한다.
-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의 경우 종합정비계획은 문화재 위원회(또는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 종합정비계획 수립 전에는 반드시 서원의 역사와 현황을 조사 기록해 두어야 한다.
- 종합정비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서원의 역사 및 건축물 연혁
 - ② 서원의 건축 및 경관 수목 등 각종 현황 조사자료
 - ③ 서원의 역사성, 정체성, 고유한 가치, 경관의 가치를 고려한 정비계획 개념설정
 - ④ 서원의 보존 및 정비계획
 - ⑤ 서원의 보존 및 정비계획 사업 추진계획
- 서원 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지하 매장유구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한다.



사진 4. 서원 인근에 건립된 유물전시관(주변 경관 변형의 요인)

- 서원 주변에 신축하는 건축물의 외부형태는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건축물 외부에 현대재료를 사용할 경우 가능한 한 최소화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통적인 재료나 문양으로 기존 서원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난방기의 실외기, 보일러, 연료통 등 외부에 설치되는 기기나 도구는 가능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통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은폐시키도록 한다.
- 계랑기, 점검구 등은 가능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실내에 설치하도록 한다.
- 외부 조명등은 전통전축과 어울리는 것을 설치하도록 한다.
- 건물 외부에는 현대식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3. 경관 조경

- 서원의 경관과 주변경관은 서원의 입지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 서원의 내외 경관은 전통적인 경관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 외래 조경양식을 배제하고 전통양식으로 한다.
- 경관상 어울리지 못하거나 의미상 전통조경과 어긋나는 수종들은 제거하거나 이식하여 전통조경의 원형을 찾도록 한다.



사진 5. 자연적인 서원 앞 개울을 치석으로 깔끔하게 정비한 사례

- 기존에 조성된 견치석축 등 외래 조경 시설물은 점진적으로 전통적 방식으로 정비한다.
- 경관을 조성하거나 보수할 경우 규정된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지침이 없는 경우 문화재청(또는 지자체)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배수로는 노출형매립형 등 지형여건에 맞게 설치하며, 우수로와 오수로는 분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오수로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매립형을 기본으로 하며, 정화시설로 연결한다.
- 배수로는 하단부에 흙막이 정도의 높이만 자연석 석축을 쌓고, 그 위는 흙으로 경사처리 한다.
- 배수로의 석축은 전통 석축양식으로 정비하고, 기존의 견치석 석축 등 조잡한 석축을 해서는 안된다.
- 배수로(우수)는 자연재해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거나 폭을 넓히지 않고 자연 그대로 정비한다.
- 하천이 있는 경우 생태적 안정을 이루도록 정비해야 한다.
- 기존의 자연스러운 곡선, 폭 등을 훼손하지 않는다.
- 하천 하단부는 흙막이 정도 높이만 자연석 석축을 쌓고, 그 위는 흙으로 경사처리 한다.
- 하천의 다리는 전통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운행이 필요한 곳 외에는 소규모의 전통적 모습으로 경관에 어울리게 설치한다.
- 진입로나 마당에 설치된 시멘트포장은 제거하고 마사토 깔기로 교체하도록 한다.
- 주차장의 바닥은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4. 편의시설 및 조형물

- 소화전을 설치할 경우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장내 매입, 지중화 등 고려)

- 소화전 함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재료와 형태로 제작한다.
- 식수대, 벤치, 휴지통, 이정표, 안내설명판 등 관람편의시설은 서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간결하게, 친환경적으로 제작설치한다.
- 가로등의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며, 서원의 특성에 맞는 형태재질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 가로등은 가능한 한 담장 내에 매입하거나 담장높이 이하로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전기 통신 간선시설은 가능한 한 지하에 매설하도록 한다.



사진 6. 서원 경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과 변압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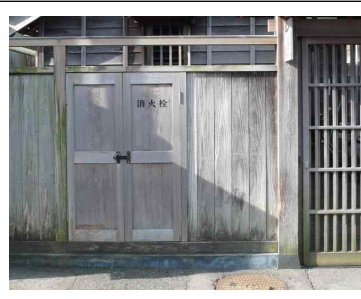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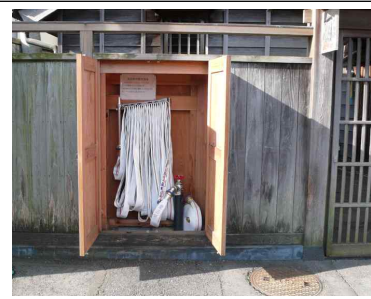


사진 7.8. 소화전을 건물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눈에 거슬리지 않게 만든 사례



VI. 결론

한국의 서원이 이제 친숙하고 활용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되었다. 서원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다. 그 가치는 역사, 사회, 사상, 유물, 경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그 가치를 일깨워 전통적인 서원에서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서원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건축문화적 가치도 그 중 하나이다. 서원건축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다. 서원이 현대사회에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남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되어야 한다. 특히 건축물은 서원의 물리적 형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구성체이기에 역사성, 장소성과 더불어 진정성이 남아 있어야 된다. 앞에서 제시한 보존관리 문제는 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현대사회에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활용되지 않을 때는 그 의미와 가치는 반감되고, 단지 박제된 문화유산에 지나지 않는다. 지속적인 관심과 보존 노력이 더해짐으로써 한국의 서원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의미와 가치를 발하게 될 것이다.

“서원 건축물 복원과 건축문화재 보존관리 문제”에 대한 토론1

박성진

한국서원연합회 상임이사

개괄

- 이왕기 교수께서 발표하신 서원 건축물 복원과 보존 관리는 서원의 역사와 건축물 특성, 서원이 담아야하는 문화유산에 대해 광범위하게 기술하신 서원 관리의 백과사전에 해당.
- 2010년 12월 문화재청이 제작 배포한 '서원 관리운영 매뉴얼'에 적용된 내용이기도 함. 다만 토론 확대를 위해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함

1. 복원 보존관리 대상의 선정 문제

- 현재 전국적으로 유적지를 포함하여 700개소의 서원이 존재하며 그중 국가지정 사적9개소, 시도 지정 유형문화재 19개소, 시도기념물 34개소, 시도민속자료 1개소, 문화재자료 104개소로 문화재 지정이 총 167개에 달하며 비지정문화재가 533개소임(아래 통계 참조)

구분	국가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시도 기념물	시도유형문 화재	시도 민속자료	비지정 문화재	계
서울						2	2
부산						1	1
대구	1	3	1			25	30
광주		1				4	5
인천							0
경기		4	3	5		19	31
강원				3		10	13
충북		1	3			22	26
충남	1	14	1	2		18	36
전북	1	21				86	108
전남	1	8	7			47	63
경북	4	15	12	5	1	156	193
경남	1	35	7	4		135	182
제주							0
대전		1					1
울산		1				8	9
계	9	104	34	19	1	533	700

2010년 12월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만 복원 보수 관리 영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여 중요한 국가문화자산 영역에 포함해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검토와 가이드 라인이 있어야 할 것임.

2. 보수 복원 관리에 대한 부분

- 간단한 가이드라인만 제시 필요.

지침이 많으면 규제로 생각해서 보수할 엄두를 못냄. 그것은 결국 문화재로 지정하여 규제할 것이면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보수하고 보존해달라는 방관자적 입장으로 변하게 됨.

○ 보수 복원에는 반드시 소유주가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함. 문화재청이나 자치단체에서 발주하고 시공업자는 설계도면에 의해서만 시공하기 때문에 지역별 건축 차별성이나 서원 고유의 건축 배경과 동떨어진 건물 복원 형태로 갈 가능성 항존. 이러한 경우는 향교와 서원, 사우 모두에 적용.

○ 건축유산에 대해서만 문화유산으로 복원 보수 관리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무형적 자산, 즉 역사와 서원생활, 음식, 복식, 관습, 의례, 흩어져있는 서원 관련 기록물과 유물 등으로 확대하여 개념을 적용할 필요성 있음.

○ 문화재청에서는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서원학회와 공동으로 2010년 서원 관리운영 매뉴얼에 적시된 서원 기초현황조사(비지정 서원 포함)를 조속히 시행하여 정확한 실태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유산으로 적극 활용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임.

○ 서원 복원, 보수관리 시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서원관계자나 문화재 보수복원 회사 관계자의 표현에 의하면 매년 3월경 문화재청에 심의 및 예산 신청을 하면 9월 경 예산과 심의가 완료되고 자치단체에서는 통상 10월쯤 복원보수 업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화재 관계 공사는 거의 10월에서 12월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서원 건축물 기초현황 조사 및 정기적 점검자의 선정 문제

- 현재 서원 소유자 정기적 점검하기는 어려움 있음.
- 연령문제와 거주지와 서원간의 이격 문제, 데이터 작성 및 데이터 보존능력 부재
-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은 당해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데이터화하고 비지정 문화재는 비정기적 용역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임

3. 서원 복원 보수관리의 개념 전환 필요

‘단순보존에서 적극적 활용을 통한 보존’으로의 개념 전환이 필요함.

○ 목조 전통생활문화 유산의 범위

- 학문과 수양공간 : 성균관, 향교, 서원, 사우(재실 포함)
- 종교시설공간 : 전통사찰
- 고종택과 한옥자원 : 한옥집단마을, 종택, 기타 고택

○ 한국 민족문화의 가장 중요한 문화자산

- 전통시대 학문연마와 심신 수양을 위한 국가 교육체계
- 전국적으로 산재한 목조전통생활문화 유산이 방치되고 있음
- 서원향교, 사우 1,167개소

시 설 명	용 도	갯 수	비 고
향교	전통공립학교	234개	
서원	전통사립학교	700개소	
사우	선현배향 시설	233개소	
총 계		1,167개소	불교 전통사찰 933개소(2009.1기준)

- 보존 관리를 위한 막대한 국가예산과 관련비용 투입
 - 해마다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 있으나 보존에 그치고 있음
 - 보존 주체에 대한 방향 미흡으로 부식, 화재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 단순보존에서 적극 활용 보존으로 방향전환 필요

- 국가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유산 활용방안 수립 필요
 - 문화, 교육, 관광 등의 범주로 편입, 보존과 활용 적극재검토
 - 활용방안의 혁신적 검토 : 문화 교육 관광 공간화
 - 보존방안의 현실적 검토 : 생활, 문화공간으로 편입

4. 서원의 활용현황 및 문제점

- 활용현황
 - 향교관련시설 : 전국 향교 조직에서 유기적관리
전국 향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한 인성교육 실시
(234개소 전 향교 교육실시-성균관 시행)
유림들의 교육과 행사, 제향 등의 공간으로 운용
유교의 종교적 유산이라는 한계로 일반인 접근 미흡
(스테이 개념이 아닌 단순 강학공간으로 운영)
 - 서원 사우 관련 시설
2007년부터 서원스테이 실시(주요서원)
- 소유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문화축의 이동 필요
 - 서원에 대한 종합적 아카이브 구축 및 인터넷을 통한 서원정보 국민공유
 - 주체는 문화재청(서원 내용은 서원연, 보수정비기록은 문화재청, 관련문화유산은 서원학회 등 이
참가하는 서원자료 DB화가 필요
- 서원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유자와 사용자 개념 분리 필요
 - 개방의 개념을 소유자를 통한 개방으로 보지말고 문화공유자를 통한 자연스러운 개방으로 유도
 -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서원간 1:1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매결연 및 부설 교육장으로 활용
 - 대학 혹은 대학내 관련기관(국문학,사학,철학,한문 등)과 1:1 서원 네트워크
 - 지역내 1행정기관과 서원간의 1:1 네트워크
- 국제 네트워크
 - 현재 중국에는 중국 각 성별 서원 네트워크 형성 활동
 - 중국,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월남, 미국, 인도네시아 등을 연계한 국제네트워크 구성과 국제 학문 및 인적 교류 활동 강화
 -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계기로 한국에서 이 네트워크 운동 선점할 필요
- 서원향교 아카데미 개설
 - 소규모 지역 문화역사 공간으로 인식하고 신성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서원 활용 프로그램 구비
 - 소유자를 통한 개방과 활용보다는 지역내 문화 프로그램 시행 단체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용 필요
 - 청소년, 지역주민,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전통 문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용

“서원 건축물 복원과 건축문화재 보존관리 문제”에 대한 토론2

강대익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담당

먼저 시골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인을 오늘 워크숍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이왕기 교수님의“서원 건축물의 복원과 보존관리 문제”란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 제의를 받고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는 본인을 왜 토론자로 선정하였을까?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를 최일선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서원 건축물을 보존관리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직접 말씀드려 봄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왕기 교수님께서서는 필암서원을 비롯해 많은 서원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신 후, 서원 건축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관리방안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셨습니다. 서원 건축물의 다양한 훼손 요인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수정비 현황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행정부, 소유자, 향유권자들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앞으로 지켜야할 각 분야별 효율적 보존관리 방법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현재 서원 건축물 보존관리의 문제점과 현황, 그리고 잘못된 사례는 토론자가 속해있는 장성군의 모든 서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기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을 올바르게 알면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읽고 평소 현장에서 느꼈던 의문사항 몇가지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건축물의 복원과 정비는 전문가의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비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실시설계를 거쳐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후 문화재 전문 시공업체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들만이 참여하는데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행정부의 인식부족, 소유주의 의타심, 시공업자의 기술부족, 향유권자의 무관심 등의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셨습니다. 본인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서원 건축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서원 건축물의 역사적 문화환경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행정가는, 서원 소유자는, 시공업체는, 관람객들은 원칙에 벗어난 잘못된 서원 건축물의 복원과 보존관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원 건축물을 보수 정비하는데 원형, 기록, 양식, 기법, 원재료, 장소, 환경, 수리범위 유지라는 8가지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원칙은 서원 건축물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재에 해당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기초자료 미확보, 사업비 부족, 공사기간 한계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이 모든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8가지 원칙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되는 원칙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셋째,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서원과 어울리지 않은 수목과 외래수종은 지양하고, 괴석, 수석, 수로 등의 설치에 경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통조경은 보시는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 현장에서는 갈피를 못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목의 크기와 수종, 정원과 연못, 마당과 인도 등에 대해 너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서원 건축

물의 철학과 품격에 어울리는 전통조경 기본 원칙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서원이 보다 올바르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진단해 주시고 관리방안은 제시
해 주신 이왕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워크숍이 본인과 같은 공무원은 물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서원 보존 관리에 따른 행정적 검토

김철주
문화재청 전문위원

I. 서론

II. 검토 대상 및 범위

III. 서원에 대한 문화재청의 행정적 활동 검토

1. 서원에 관한 문화재청의 정책
2. 서원에 대한 행정적 검토
 - 1) 서원의 지정 사유
 - 2) 예산
 - 3) 종합정비 기본계획

IV. 결론

* 별첨 자료

I. 서론

서원은 학문적 사상을 기반으로 교육과 제향을 담당하던 조선시대 대표적인 기관이다. 조선 중기의 최초 건립 이후 서원은 급속하게 보급되기 시작하여 18세기에는 전국에 700여개가 넘는 서원이 세워질 정도로 성행하였으며, 40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으로서 도서 출판의 기능, 교육의 장소, 학문의 실천 장소로서 우리나라의 교육 철학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킨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원은 건축으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동북아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 중, 서원 건축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다.²⁵⁾

이뿐만이 아니라, 서원은 프랑스의 저명한 문화인류학자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가 1981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유럽에는 도서관을 갖춘 아카데미가 도시에만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조선시대부터 고을마다 대학 형태의 교육기관이 존재’ 했다는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²⁶⁾ 국제적으로도 서원이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서원의 가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역사문화경관, 무형유산적인 제향의식, 배향 인물 및 전적, 고문서, 목판, 금석문, 등 유·무형 문화재가 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에 대한 정립도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서원은 이렇게 학술적인 성격이 강한 문화재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보존관리는 문화재청의 역할이

25) 2011, 문화재청,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p21

26) 2011, 문화재청,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p12

상당히 중요하며,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책과 더불어 행적적인 뒷받침이 학술적인 부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서원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서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청의 정책과 행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서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청의 정책 방향, 예산과 보수정비 등의 행정 활동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서원의 보존관리와 세계유산으로서 등재되기 위한 행정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검토 대상 및 범위

서원의 행정적 검토 대상 및 범위는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9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검토의 내용은 문화재청 정책, 서원의 지정 사유, 예산, 종합정비기본계획 등,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서원 관련 정책의 방향, 서원의 보수정비·유지관리 예산의 구성방향, 서원 정책과 행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서 문화재청이 서원의 보존관리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국가지정 서원

연번	지정번호	사적명	소재지	지정년도
1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경북 영주시순흥면 내죽리 151	1963-01-21
2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경북 경주시안강읍 옥산리 7	1967-03-08
3	사적 제166호	정읍 무성서원	전북 정읍시칠보면 무성리 500	1968-12-19
4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경북 안동시도산면 토계리 680	1969-05-28
5	사적 제242호	장성 필암서원	전남 장성군황룡면 필암리 378-379	1975-04-23
6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30	1978-03-31
7	사적 제383호	논산 돈암서원	충남 논산시연산면 임리 74외 5필지	1993-10-18
8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2007-10-05
9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번지 일원	2009-05-26

III. 서원에 대한 문화재청의 행정적 활동 검토

서원은 전국적으로 국가지정 사적이 9개소, 그 외 시·도 기념물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23개소²⁷⁾ 정도로 아직 많은 서원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서원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기념물에 속하며,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렇게 지정된 서원에 대한 행정활동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한 활동을 근거로 행정을 하게 되며,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문화재의 지정과 관리 및 보호, 공개, 보조금 및 경비 지원 등으로 문화재청의 행정활동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서원에 관한 문화재청의 정책

위에서 언급했듯이 문화재청의 행정 또는 정책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한 '문화재 보호정책의 수

27) 2011, 문화재청,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p7

립 및 추진'을 근거로 행정을 하게 되며, 문화재청의 서원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문화권 정비사업에는 2007년에 '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2011'²⁸⁾에서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교 문화 관광자원화'에서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이 유교 관광자원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²⁹⁾, 사업 내용은 주로 관광 시설 정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서원의 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하나의 분야로서 문화재청의 2004~2019년도로 계획된 개인소장 동산문화재 조사사업에 의해 서원·향교 및 문중·개인 등의 소장하고 있는 다량의 일반동산문화재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³⁰⁾

표 2. 개인소장동산문화재 조사 추진 현황

구분	연도	조사지역	조사실적	비고
학 술 용 역 (직접수행)	05까지	경북, 경남 일원	옥산서원 등 74개소 27,887점 조사	용역 보고 서 발간
	06	서울, 경기 일원	동묘 등 26개소 10,941점 조사	
	07	경기 일원	광주정씨 종택 등 14개소 18,615점 조사	
	08	서울·경기지역	진주강씨 등 4개소 12,655점 조사	
	09	충청, 기 조사 지역 보완조사	이순신종가 등 31개소 5,241점 조사	
	10	경북 북부 지역	영주지역 1개소 15,042점 조사	
	11	대구 지역	대구지역 1개소 12,000점 조사	
		계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등 151개소 102,381점 완료	
국고 보조	04	대구, 대전 등 10개 시·도	대구 도동서원 등 284개소 35,949점 조사	조사 완료
	05	대전, 충북 등 9개 시·도	충북 충렬서원 등 272개소 38,400점 조사	
	06	06 대구, 대전 등 9개 시·도	대전 문충사 등 275개소 36,570점 조사	
		계	831개소 110,919점	

이와 같이, 정책적으로 특별히 서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지만, 건조물 문화재지정 관리, 동산문화재 지정관리, 문화재보수정비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서원에 관한 보존·유지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2. 서원에 대한 행정적 검토

1) 서원의 지정 사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서원은 전국에 국가지정 사적과 시·도 기념물로서 지정된 것이 130여 개소에 이를 정도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원이 국가 사적으로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서원이 그 대상이 되며, 그 지정 사유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서원 등과 같이 연속유산으로서 서원이 가진 완전성과 진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 서원의 지정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되며, 이를 토대로 전국에 국가 지정 서원 후보군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 지정 사적에 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기념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 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28) 2007, 문화재청,『문화재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2011』,문화재청, p209

29) 2010.06 경상북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 경상북도, p11

30) 2011,『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문화재청 (2011.3.31. 기준)

별표1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을 살펴보면,

사적	<p>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p> <p>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p> <p>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p> <p>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p> <p>라.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p>
----	---

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에서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체크 항목을 살펴보면 ③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④연혁·유래 및 특징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⑥지정 대상 및 범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정을 위한 각 항목과 지정 기준을 종합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역사적·학술적으로 지정가치가 있는 기념물이 사적으로서 지정이 되며, 그 가치의 평가는 **시대의 전반적 이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 등으로 그 가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서원의 지정사유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밑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정된 서원은 크게, 사액서원이거나, 조선 후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남아있던 47개 서원 중 하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저명한 배향인물, 그 외 서원 내 보물이 존재하거나, 전형적인 서원의 배치를 하고 있는 경우로 지정사유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서원의 국가 지정검토 시에, 사액서원.미철폐 서원이 국가지정사적으로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현존하는 이 두 가지 서원에 대한 검토와 정책, 행정적인 지원에 의해 사액서원.미철폐 서원의 틀을 구성하는 것도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과 완전성에 접근하는 방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3. 국가지정 서원의 지정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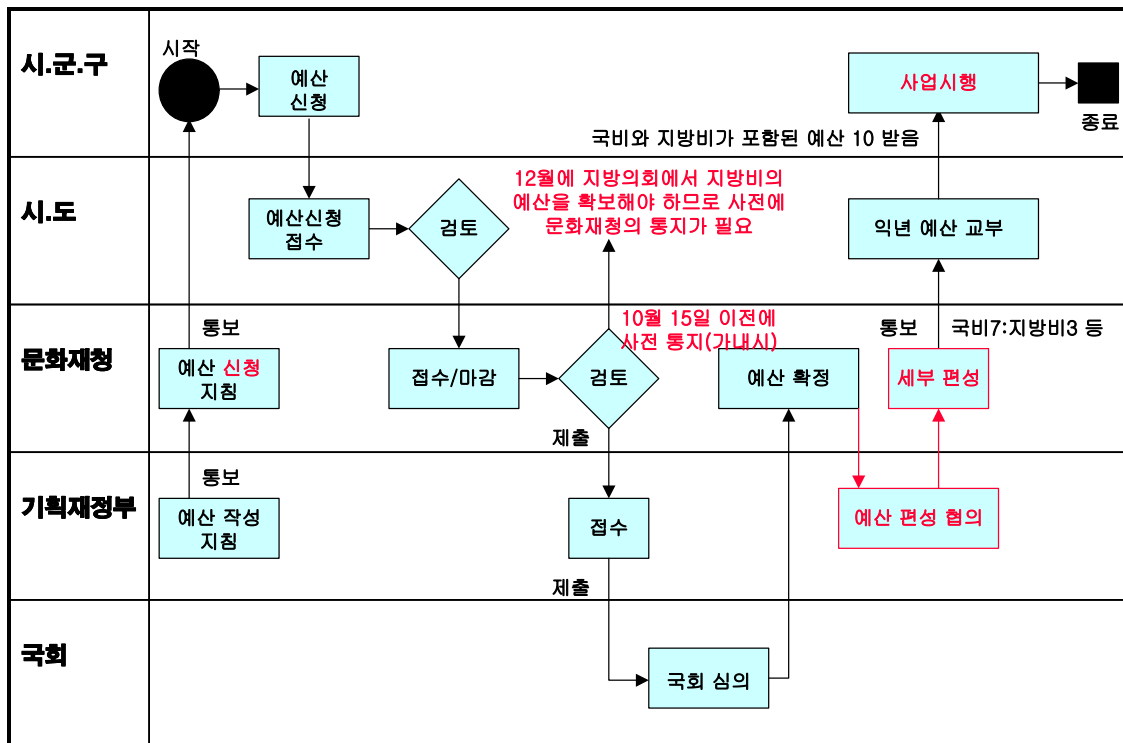
번호	지정사유 지정서원	문헌	인물	사건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비고
1	사적 제 55호 영주 소수서원	지정사유는 일제시대부터 고적을 1963년 사적으로 일괄 재 지정함.						최초 사액서원. 안향, 안축, 안보, 주세붕 배향. 소소서원 강학당 (보물 제1403호)
2	사적 제 154호 경주 옥산서원	옥산서원은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여 사적으로 지정 보존						사액서원. 이언적 배향.
3	사적 제 166호 정읍 무성서원	봉심안, 강안, 심원록, 원규 등의 귀중한 서 원자료		조선 후기 대원군의 서 원철폐령에도 남아있던 47개 서원 중 하나			조선 후기 대원군의 서 원철폐령에도 남아있던 47개 서원 중 하나	
4	사적 제 170호 안동 도산서원				선조 8년(1575) 국왕 에게 이름을 받아 사 액서원이 되면서 영남 지방 유학의 중심지가 됨	상덕사(보물 제211호) 란 사당과 전교당(보물 제210호)	사액 서원	이황, 조목 배향.
5	사적 제 242호 장성 필암서원		하서 김인후					사액서원
6	사적 제 260호 안동 병산서원			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 에도 보존되었던 서원.	한국 건축사에 있어서 도 중요한 유적		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 에도 보존되었던 서원.	
7	사적 제 383호 논산 돈암서원		사계 김장생을 주향으 로 김집, 송준길, 송시 열	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 에도 보존되었던 서원.	창건 당시의 서원구조 양식이 전승되고 경역 내의 돈암서원 비(인조 23년 1645년 건립)에 의해 역사적인 유래가 확실	예학의 산실이었던 학 당(응도당)을 갖추고 있음.	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 에도 보존되었던 서원.	
8	사적 제 488호 달성 도동서원		한훤당, 김굉필 선생		조선중기 전학후묘(前 學後廟)의 전형적 배치 형식	강당·사당과 이에 딸린 담장은 보물 제350호 로 지정		
9	사적 제 499호 함양 남계서원	『어정오경백편』(御定 五經百篇) 5권, 『경서 정문』(經書正文) 4권 을 비롯하여 다수의 고서들이 온전하게 전 수	조선시대 5현(五賢) 및 동국(東國) 18현 (十八賢) 중의 한 분 인 일두(一蠹) 정여창 (鄭汝昌)		전 저 후 고(前低後高) 지형에 전학후묘(前學 後廟)의 배치양식으로 조선시대 전형적인 서 원의 양식	동재와 서재 남쪽에 각각의 방형연지 2개 소를 조성한 독특한 방식		소소서원에 이어 두 번째 사액 서원. 대원군의 서원 철폐 시에도 보존되 었던 서원.

2) 예산

서원의 보수 정비에 관련된 예산은 크게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재청의 예산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재보호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부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문화관광체육부, 문화재청이 검토하고 교부한다.

보조금은 크게 성격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통상 서원 보존정비의 경우, 문화재청의 보조금에 의한 예산과, 당해 문화재의 정비를 포함한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의 관광적인 측면이 강한 사업에 기획재정부가 교부하는 광특 시도자율편성사업 예산 등이 있다.

그림 1. 국고보조금에 의한 예산 지원 프로세스



단순히 사적 지정 건수 491건에 대해 서원 9건이 차지하는 비율로 살펴보면 서원의 비율은 1.83%이다.

예산 배정의 경우, 사적의 훼손도나 중요도, 시급성에 따라 예산 편성은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원이 차지하는 1.83%를 기준으로 예산의 가감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보수정비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예산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2000년부터 예산을 살펴보면, 서원의 예산은 평균인 1.83%보다는 약간 높은 2.37%의 비율을 차지한다. 2001년에는 전체 보수정비예산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그에 비하여 서원 보수정비 예산은 0.06%로서 큰 폭으로 줄어든다. 2002년도에 들어서 1%대로 회복하기는 하였지만,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는, 이후에는 전체 예산의 증감에 상관없이 점차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0.18%라는 낮은 예산 비율을 보이고 있다³¹⁾.

이러한 비율의 증감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지자체의 관심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예산이 신청되고 문화재청의 검토를 거치게 되므로, 그 해 지자체의 관심 사업이었는지가 관건이 된다. 지자체의 예산 신청이 없으면 문화재청의 검토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 해 서원에 관련된 예산은 없게 된다.

31) 문화재청,『문화재관리 예산 현황』,2000~2011,문화재청 의 내용을 참조로 작성.

두 번째로, 문화재청 내에서도 지역의 담당자에 대한 인사와, 예산에 대한 이해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비율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 담당자가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표 4. 각 연도별 보수정비예산에 대한 서원 보수정비예산 비율

연도	전체 보수정비 예산(천원)	전체 보수정비 예산 증감	서원 보수정비 예산(천원)	비율
2000	292,073,370	△증 127,237,253	6,928,571	2.37%
2001	284,343,542	▽감 7,729,828	168,000	0.06%
2002	337,740,044	△증 53,396,502	3,362,142	1%
2003	381,277,402	△증 43,537,358	100,000	0.03%
2004	385,574,937	△증 4,297,535	2,857,143	0.74%
2005	238,397,427	▽감 147,177,510	4,007,143	1.7%
2006	257,757,704	△증 19,360,277	3,578,571	1.4%
2007	251,940,850	▽감 5,816,854	1,538,571	0.61%
2008	294,217,375	△증 42,276,525	1,192,000	0.4%
2009	345,544,557	△증 51,327,182	1,742,000	0.5%
2010	339,521,779	▽감 6,022,778	602,000	0.18%

세 번째로는 각 서원이 국가 사적 지정 전에 시·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었거나, 서원 내에 국보, 보물, 지방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으로 지정되어, 보수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는 국가지정 사적이 되기 전에 이루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원의 경우, 문종이라는 최소한의 관리체제가 유지됨으로서 최소한의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표 5. 국가지정 서원 내 문화재 지정 현황

연번	지정번호	사적명	지정 문화재
1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안향초상(국보 제111호), 소수서원소장판목(시도유형제331호), 명종어필 ‘소수서원’현판(시도유형제330호),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보물제485호), 주세붕초상(보물제717호), 소수서원문성공묘(보물제1402호), 소수서원 강학당(보물제 1403호), 서충대친림연회도(시도유형제238호)
2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3	사적 제166호	정읍 무성서원	
4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원 전교당(보물 제210호), 상덕사부정문 및 사주토병(보물제211호), 시사단(유형문화재 제33호)
5	사적 제242호	장성 필암서원	필암서원 문적일괄(보물제587호), 하서선생문집목판(시도유형제215호), 장성필암서원하서유목 목판일괄(시도유형 제216호)
6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7	사적 제383호	논산 돈암서원	돈암서원 응도당 (보물 제1569호), 돈암서원 유경사(충남유형문화재 제155호), 돈암서원원정비 (충남문화재자료제366호)
8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보물 제350호))
9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국가 사적 지정 전 경남기념물 제91호, 일두선생 문책집판(시도유형문화재 제166호), 개암선생 문책집판(시도유형문화재 제167호)

그리고 각 서원별 보수정비 예산³²⁾은 문화재청의 기본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1년의 12년간 서원에 지원된 총예산은 약 299억 8천만원이며, 이를 일반적인 보수정비 항목으로 나누어 보면 ①당해문화재 보수정비, ②문화재 주변정비, ③편의시설 정비, ④방제·방재 시설정비, ⑤전시·교육시설 정비, ⑥그 외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내용 등을 살펴보면, 6개의 항목 중에 문화재 주변 정비에 지원된 예산이 34.2%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9개 서원 전반에 걸쳐 부대시설, 조경, 진입로 정비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된다. 그 다음으로는 전시·교육 시설 정비가 31%를 차지하며, 전시관과 교

32) 문화재청, 『문화재관리 예산 현황』, 2000~2011, 문화재청 의 내용을 참조로 작성.

육관 시설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2000년도 이전에 지어진 소수서원과 도동서원의 유물전시관 이 외에는, 옥산서원, 필암서원 등에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다음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당해문화재의 보수정비 예산이며, 25%를 차지하고 있다. 통상은 당해문화재의 보수정비 예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서원의 경우, 주변정비, 전시.교육 예산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변의 경관과 전시.교육에 더욱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다.

그 외에는 편의시설 정비가 8.2%로 주차장, 안내판, 화장실 등이 정비의 주요한 내용이며, 방제.방재에 1.27%, 그 외 종합정비기본계획이 1건으로 0.33%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정비기본계획의 경우는 정읍 무성서원이 해당되며, 논산 돈암서원, 장성 필암서원을 포함하여 현재 3건이 수립되어 있다.

그림 2. 서원의 각 보수정비 항목별 예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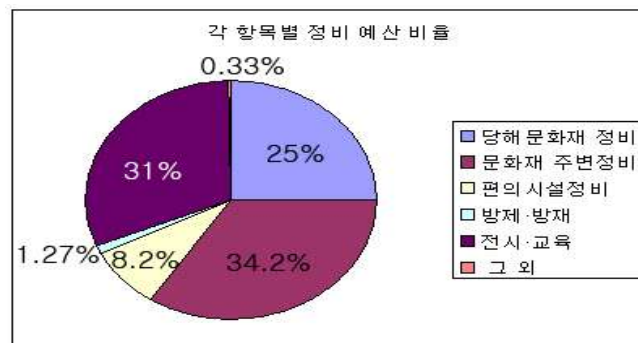


표 6. 각 정비 내용별 보수 예산 현황

①당해문화재 보수 내역 현황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 내용	예산	비고
사적383	돈암서원	응도당 보수	142,857	
사적242	필암서원	토지매입	4,285,714	
사적154	옥산서원	포사채, 경각, 민구재 등 보수	140,000	
사적 55	소수서원	경림정 보수, 배수로 정비	70,000/35000	당해+주변
사적55	소수서원	경림정 보수, 배수로 정비(6m), 외각담장(150m)	220,000/110,000	당해+주변
사적166	무성서원	현가루, 병기창 보수	285,714	
보물 1402	소수서원	문성공묘 단청	60,000	
보물 1403	소수서원	강학당 단청	97,143	
사적 55	소수서원	학구제건물보수	57,143	
보물 350	도동서원	강당 사당부장원 사당기단, 단청보수 강당 기단보수	150,000	
사적 383	돈암서원	담장보수	100,000	
사적 154	옥산서원	협문보수	28,571	
사적 170	도산서원	동재변와 등 건물보수	180,000	
사적 166	무성서원	전사청 개축 등	140,000	
사적 154	옥산서원	비각기단보수, 담장 및 석축 보수	35,000 /17500	당해+주변
사적 55	소수서원	건물 단청 및 강학당 등 보수	175,000	
사적 488	도동서원	건물보수, 안내판 정비 등 주변 정비	350,000/116,667	당해+주변+편의
사적 154	옥산서원	고직사 보수	100,000	
사적 170	도산서원	도산서당, 장판각 및 협문 등 노후 건물 지붕보수 등	140,000	
사적 55	소수서원	건물 기와고르기, 당간지주 주변 철책보수	190,000/95000	당해+주변
사적 154	옥산서원	역락문 보수	35,000	
사적 260	병산서원	배수로정비, 기단보수	35,000/17500	당해+주변
사적 154	옥산서원	화장실개축, 건물단청, 구인당 번와보수	571,429/285,715	당해+편의
사적 260	병산서원	만대루 안전진단, 만대루 보수 실시설계	100,000	
사적 170	도산서원	역락서재,진도문보수(단청), 고막이 및 아궁이보수, 배수로정비	130,000	
사적 55	소수서원	관람로 정비, 취한대, 안내소 기와번와	330,000/110,000	당해+주변+편의

사적 499	남계서원	풍영루, 경판고 보수	250,000	
합계			7,484,524	

②주변정비 보수 내역 현황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 내용	예산	비고
사적55	소수서원	초가, 방앗간 등 건물 건립, 부대시설 조성	2,400,000	
사적383	돈암서원	진입로 및 배수시설 정비	28,571	
사적 242	필암서원	부지성토, 배수 등 부대시설 정비	428,571	
사적154	옥산서원	진입로 정비	50,000	
사적 242	필암서원	성토등 부대도목 우수, 오수관로 도로개설, 배수시설, 지중화사업(전기)	4,285,714	
사적154	옥산서원	진입로정비(200m)	50,000	
사적242	필암서원	조경식재, 부지정리, 주차장화장실건립	2,571,429/1,285,715	주변+편의
사적 383	돈암서원	주차장 및 진입로 정비	142,857 /71,429	주변+편의
사적 55	소수서원	철책보수	228,571	
사적 383	돈암서원	주변환경 정비(지장물 철거)	280,000	
사적 166	무성서원	사적지 진입로 바닥정비	105,000	
사적 166	무성서원	진입로 정비	35,000	
사적 170	도산서원	전선지중화, 화장실 개축	350,000 /175,000	주변+편의
사적 154	옥산서원	노거수 정비	50,000	
사적 154	옥산서원	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비	500,000/250,000	주변+편의
합계			10,225,238	

③편의시설 정비 보수내역 현황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 내용	예산	비고
사적 166	무성서원	화장실 개축	100,000	
사적 166	무성서원	주차장정비	50,000	
합계			2,444,526 ³³⁾	

④방재·방제 보수내역 현황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 내용	예산	비고
사적154	옥산서원	보안시설 설치	100,000	
사적 242	필암서원	소나무재선충방제	50,000	
사적 242	필암서원	재선충병 방제	42,000	
사적 166	무성서원	사당, 강당, 현가루, 강수재, 내삼문, 비각 4동, 방염제 도포	10,000	
사적 242	필암서원	수목병충해 방제	42,000	
사적 154	옥산서원	도난감지시설보수	10,000	
사적 242	필암서원	재선충 방제	42,000	
사적 242	필암서원	재선충 방제	80,000	
합계			376,000	

⑤전시·교육시설 정비 내역 현황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 내용	예산	비고
사적 242	필암서원	진덕원,송의관 건립, 경역 내 DC-TV 설치	3,600,000	
사적154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기본설계 용역	50,000	
사적242	필암서원	전시관증축 및 내부전시시설 설치	2,000,000	
사적154	옥산서원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	1,000,000	
사적 154	옥산서원	전시관 건축공사	1,000,000	
사적 242	필암서원	송의관, 진덕원 건립 마무리 공사	300,000	
사적 154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건립	500,000	
사적 154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건립	900,000	

33) 상기 당해문화재 정비와 편의시설 정비의 예산 일부 포함

합계	9,350,000
----	-----------

⑥그 외 정비 예산 내역 현황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 내용	예산	비고
사적166	무성서원	정비계획 수립	100,000	
합계			100,000	

※ 토지매입은 당해문화재 정비로 본다. 또한 신축, 부속건물은 주변경관 정비로 취급하며, 사업내용이 당해문화재정비, 주변정비, 편의시설 정비 등 복합적인 내용일 경우, 1/n으로 산정하여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3) 종합정비 기본계획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각 사적에 대한 기초 자료를 총괄적으로 모으는 목적이 있다. 말 그대로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이를 토대로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현황파악이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해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단.중.장기 계획 하에서 보존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세 번째는 앞의 사항을 토대로 문화재청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어디에 얼마의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어디를 보수정비 해야 하는지 등, 종합정비기본계획이라는 다각도로 검토된 자료를 근거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후 이러한 보존관리가 적절히 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법령 개정, 지침, 내부적인 방침 등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검토를 통해 살펴보면, 서원에 대한 종합정비기본계획은 국가사적 9개소에 대해 3개소(정읍 무성서원, 논산 돈암서원, 장성 필암서원)의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세계유산을 염두에 둔다고 할 때, 9개소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의 문제점

서원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인문학적인 측면, 건축적인 측면, 경관적인 측면, 활용적인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종합정비기본계획의 용역을 어떤 기관이 수행하는지가 중요해진다.

기존 3개소의 용역 수행기관을 살펴보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길건축사사무소, 명지대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등으로, 경험이 많은 기관이 선정되어 무난한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건축적인 관점이 강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서원과 같이 인문학적인 측면, 건축적인 측면, 경관적인 측면, 활용적인 측면이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다각적인 각도에서 검토하고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 수립된 서원 3개소의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종합정비기본계획의 첫 번째 목적인 자료 수집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서원이 기록된 문헌조사는 하였지만, 서원의 인문학적인 검토는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다.

서원이 성립된 시대의 배경, 인물의 연구, 이후의 인문학적 변화, 서원 소장의 인문학적 자료의 검토 등이 부족함으로서, 다른 문화재보다 인문학적인 요소가 강한 서원의 가치를 잘 나타내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서원의 인문학적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근간으로 종합정비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종합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이전에 서원 전체에 걸친 서원의 인문학적 연구가 선행된 후,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종합정비기본계획의 현황 조사에 있어서, 서원 경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으로, 인문·건축·경관이 서원 구성의 3요소라고 한다면, 경관에 대한 분석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서원이 지향한 경관적 요소가 무엇이고, 지금의 현황에 대해 개선해야 할 경관과, 지켜야 할 경관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인 중에는, 용역의 공간적 범위 설정에 있어서 문화재 구역만을 용역의 범위로 하기 때문인 것도 있다.

따라서 공간적 범위 설정을 주변의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까지로 확대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야말로 진정한 종합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할 것이다.

활용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제향, 서당, 선비문화 체험 등으로 서원 전반에 걸쳐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서원만의 이야기나 특징을 살린 프로그램의 개발이 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인문학적인 연구에 의해 각 서원마다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문화재청의 보조금에 의해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 있으며, 문화재청의 보조금에 의해 지원이 불가능한 예산이 있고, 지자체의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예산이 있어,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예산 조달계획이 수립되어야 실질적인 연차계획과 예산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본 검토는 문화재청에서 서원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서원의 보존관리와 세계유산으로서 등재되기 위한 조건을 행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로는 문화재청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현재 문화재청에서 서원을 정책적으로 특별히 서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없지만, 동산문화재의 현황파악 차원에서 서원·향교 및 문중·개인 등의 소장하고 있는 다량의 일반동산문화재를 일제조사하고 있으며, 사적의 보존관리 차원에서 2010년도에 『서원보존정비관리방안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으며, 이어서『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을 출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서원의 보존관리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찾아내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간에 걸친 연구의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이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원이 가진 인문학적인 연구를 위해 “서원 동산문화재 일제조사”, “9개 서원의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사액서원·미훼철 47개 서원의 지정검토를 통해 정책적으로 일체화되고 체계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정사유 분석에서도, 사액서원·미훼철 47개 서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서원이 가진 연속유산으로서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예산에 있어서 정비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시·교육, 주변정비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이 서원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 향후 인문학 연구, 경관보존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한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지정 9개 서원에 대한 종합정비기본계획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며, 서원의 보존관리는 물론 세계유산 등재를 염두에 둔 기본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합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용역의 공간적 범위를 지정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경관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서원의 구성요소인 인문·건축·경관 등의 전문가 참여와 컨소시엄 구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행정적 검토를 통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서원의 보존관리에 관하여는 학술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 세계유산적인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학계의 학술적인 노력과 함께 문화재청의 정책적 지원이 일체화 될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별첨 자료

자료1. 국가지정 서원의 국가 지정 사유

연번	지정번호	사적명	지정 사유
1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일제시대부터 고적으로 관리해오던 것을 1963년 사적으로 일괄 재 지정 함.
2	사적 제154호	경주 옥산서원	○옥산서원은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여 사적으로 지정 보존한다.
3	사적 제166호	정읍 무성서원	○이곳에는 성종 17년(1486) 이후의 봉심안, 강안, 심원록, 원규 등의 귀중한 서원자료가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남아있던 47개 서원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사적으로 지정한다.
4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도산서원은 조선 선조 7년(1574) 그의 학덕을 추모하는 문인과 유생들이 상덕사(보물 제211호)란 사당을 짓고 전교당(보물 제210호) 등·서재를 지어 서원으로 완성했으며, 선조 8년(1575) 국왕에게 이름을 받아 사액서원이 되면서 영남지방 유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5	사적 제242호	장성 필암서원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닦고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선조 23년(1590)에 하서 김인후(1510~1560)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인 기산리에 세워진 서원으로 가치가 있어 사적으로 지정한다.
6	사적 제260호	안동 병산서원	○병산서원은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을 담당해 많은 학자를 배출한 곳으로,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도 남아 있었던 47개의 서원 중 하나이며, 한국 건축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유적이다.
7	사적 제383호	논산 돈암서원	○이 곳은 사계 김장생(1545~1631)을 주향으로 김집(1574~1656), 송준길(1606~1672), 송시열(1607~1689)을 배향한 사당과 예학의 산실이었던 학당(응도당)을 갖추고 있으며 대원군의 서원철폐시에도 보존되었던 서원으로서 창건 당시의 서원구조 양식이 전승되고 경역내의 돈암서원 비(인조 23년 1645년 건립)에 의해 역사적인 유래가 확실하므로 경역전체를 사적으로 지정 보존하고자 하는 것임.
8	사적 제488호	달성 도동서원	○도동서원은 1605년(선조38) 지방 유림에서 한헌당 김광필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서원으로 조선중기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전형적 배치형식과 강당과 사당의 공포양식 및 담장 구성수법 등에서 건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강당·사당과 이에 딸린 담장은 보물 제350호 로 지정되어 있음. ○따라서 서원 전면에 위치한 신도비, 은행나무 등을 포함한 서원 전역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9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함양 남계서원은 조선시대 5현(五賢) 및 동국(東國) 18현(十八賢) 중의 한 분인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을 추모하기 위하여 명종 7년(1552)에 건립되고 1566년에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사액을 받은 유서 깊은 서원이며, 1868년과 1871년에 서원 훼손령이 내려졌을 적에도 훼손되지 않고 존속하였던 47개 원사(院祠) 가운데 경남지역 유일의 서원임 ○또한, 서원에는 왕이 하사한 서적과, 노비, 토지 중 현재까지 『어정오경백편』(御定五經百篇) 5권, 『경서정문』(經書正文) 4권을 비롯하여 다수의 고서들이 온전하게 전수되고 있어 제례양식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음 ○서원의 건축구성은 조선시대 서원의 특징과 같은 전저후고(前低後高) 지형에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양식을 따르고 있고 제향공간에는 사당·동무·내상문이 있으며, 강학공간에는 강당·동재·서재·장판각·풍류루·비각이 있고 특히, 동재와 서재 남쪽에 각각 방형연지 2개소를 조성한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서원 건축양식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자료 2. 각 연도별 문화재청 보수정비 예산 현황

연번	연도	각 연도별 보수정비 예산 (천원)	증감(천원)
1	2010년도	전체 예산 : 339,521,779 (국비: 218,350,000지방비:121,171,779)	▽감 6,022,778
2	2009년도	전체 예산 : 345,544,557 (국비: 222,697,000지방비:122,847,557)	△증 51,327,182
3	2008년도	전체 예산 : 294,217,375 (국비:191,079,000 지방비:103,138,375)	△증 42,276,525
4	2007년도	전체 예산 : 251,940,850 (국비:165,581,000 지방비:86,359,850)	▽감 5,816,854
5	2006년도	전체 예산 : 257,757,704 (국비:172,778,000 지방비:84,979,704)	△증 19,360,277
6	2005년도	전체 예산 : 238,397,427 (국비:158,295,000지방비:80,102,427)	▽감 147,177,510
7	2004년도	전체 예산 : 385,574,937 (국비:228,586,000지방비:156,988,937)	△증 4,297,535
8	2003년도	전체 예산 : 381,277,402 (국비: 220,758,500지방비:160,518,902)	△증 43,537,358
9	2002년도	전체 예산 : 337,740,044 (국비:194,931,786 지방비:142,808,258)	△증 53,396,502
10	2001년도	전체 예산 : 284,343,542 (국비:164,030,000 지방비:120,313,542)	▽감 7,729,828
11	2000년도	전체 예산 : 292,073,370 (국비:169,185,676 지방비:122,887,694)	△증127,237,253(문화재청 승격)
12	1999년도	전체 예산 : 164,836,117 (국비:98,941,000 지방비:65,895,117)	△증 28,738,598
13	1998년도	전체 예산 : 136,097,519 (국비:84,257,000 지방비:51,840,519)	△증 25,071,041
14	1997년도	전체 예산 : 111,026,478 (국비:70,597,000 지방비:40,429,478)	△증 24,386,402
15	1996년도	전체 예산 : 86,640,076 (국비:48,826,250 지방비:37,813,826)	△증 30,544,065
16	1995년도	전체 예산 : 56,096,011 (국비:34,775,847, 지방비:21,320,164)	

자료 3. 미철서원(47개) 일람표

서원명(書院名)	지정별	주향인(主享人)	소재지(所在地)	건립연대	사액연대
금오서원(金烏書院)	시도기념물60	충절공 길재(忠節公 吉再)	경북 선산(善山)	1570(선조3)	1566(명종21)
남계서원(藍溪書院)	사적499	문헌공 정여창(文獻公 鄭汝昌)	경남 함양(咸陽)	1552(영종7)	1575(선조8)
노강서원(鷺江書院)	시도기념물41	문열공 박태보(文烈公 朴太輔)	경기의정부(議政府)	1695(숙종21)	1697(숙종23)
노강서원(魯岡書院)	시도유형30	문정공 윤항(文正公 尹煌)	충남 논산(論山)	1687(숙종13)	1742(영조18)
노덕서원(老德書院)	-	문충공 이항복(文忠公 李恒福)	함남 북청(北靑)	1627(인조3)	1687(숙종13)
덕봉서원(德峰書院)	시도유형8	문정공 오두인(文貞公 吳斗寅)	경기 안성(安城)	1695(숙종21)	1700(숙종26)
도동서원(道東書院)	사적488	문경공 김광필(文敬公 金宏弼)	대구 달성(達城)	1605(선조38)	1607(선조40)
도산서원(陶山書院)	사적170	문순공 이황(文純公 李滉)	경북 안동(安東)	1574(선조7)	1575(선조8)
돈암서원(豚巖書院)	사적383	문원공 김장생(文元公 金長生)	충남 논산(論山)	1634(인조12)	1660(현종1)
무성서원(武城書院)	사적166	문창후 최치원(文昌侯 崔致遠)	전북 정읍(井邑)	1615(광해7)	1696(숙종22)
문화서원(文會書院)	-	문성공 이이(文成公 李珣)	황해 연백(延白)	1599(선조27)	1628(인조6)
병산서원(屏山書院)	사적260	문충공 류성룡(文忠公 柳成龍)	경북 안동(安東)	1613(광해5)	1863(철종14)
봉양서원(鳳陽書院)	-	문순공 박세채(文純公 朴世采)	황해 은율(殷栗)	1695(숙종21)	1696(숙종22)
사충서원(四忠書院)	-	충헌공 김창집(忠獻公 金昌集)	경기 하남(하남)	1725(영조1)	1726(영조2)
서악서원(西岳書院)	시도기념물19	홍유후 설총(弘儒侯 薛聰)	경북 경주(慶州)	1561(명종16)	1623(인조1)
소수서원(紹修書院)	사적55	문성공 안향(文成公 安珦)	경북 영주(榮州)	1543(중종38)	1550(명종5)
송양서원(崧陽書院)	-	문충공 정몽주(文忠公 鄭夢周)	경기 개성(開城)	1573(선조6)	1575(선조8)

심곡서원(深谷書院)	-	문정공 조광조(文正公 趙光祖)	경기 개성(開城)	1650(효종1)	1650(효종1)
옥동서원(玉洞書院)	시도기념물52	익성공 황희(翼成公 黃喜)	경북 상주(尙州)	1714(숙종40)	1789(정조13)
옥산서원(玉山書院)	사적154	문원공 이언적(文元公 李彦迪)	경북 경주(慶州)	1573(선조6)	1574(선조7)
용연서원(龍淵書院)	시도유형70	문익공 이덕형(文翼公 李德馨)	경기 포천(抱川)	1691(숙종17)	1752(영조28)
우지서원(牛渚書院)	시도유형10	문열공 조현(文烈公 趙憲)	경기 김포(金浦)	1648(명종3)	1675(숙종1)
창절서원(彰節書院)	시도유형27	충정공 박팽년(忠正公 朴彭年)	강원 영월(寧越)	1685(숙종11)	1699(숙종25)
충렬서원(忠烈書院)	-	충렬공 홍명구(忠烈公 洪命)	강원 김화(金化)	1650(효종1)	1652(효종3)
파산서원(坡山書院)	문화재자료10	문간공 성훈(文簡公 成渾)	경기 파주(坡州)	1568(선조1)	1650(효종1)
필암서원(筆巖書院)	사적242	문정공 김인후(文正公 金麟厚)	전남 장성(長城)	1590(선조23)	1662(현종3)
흥암서원(興巖書院)	시도기념물61	문정공 송준길(文正公 宋浚吉)	경북 상주(尙州)	1702(숙종28)	1705(숙종31)
강한사(江漢祠)	-	문정공 송시열(文正公 宋時烈)	경기 여주(驪州)	1785(정조9)	1785(영조9)
기공사(紀功祠)	-	장렬공 권율(莊烈公 權慄)	경기 고양(高陽)	1841(현종7)	1841(현종7)
무열사(武烈祠)	-	상서 석성(尙書 石星)	평남 평양(平壤)	1603(선조36)	1709(숙종35)
삼충사(三忠祠)	-	무향후 제갈량(武鄉侯 諸葛亮)	평남 영유(永柔)	?	?
수충사(酬忠祠)	-	서산대사 휴경(西山大師 休靜)	평북 영변(寧邊)	?	?
장렬사(彰烈祠)	-	문열공 김천일(文烈公 金千鎰)	경남 진주(晉州)	1595(선조28)	1607(선조40)
장렬사(彰烈祠)	-	문정공 윤집(文貞公 尹集)	충남 부여(夫餘)	1717(숙종43)	1721(경종1)
충렬사(忠烈祠)	-	문충공 김상응(文忠公 金常容)	인천 강화(江華)	1642(인조20)	1658(효종9)
충렬사(忠烈祠)	-	충렬공 송상현(忠烈公 宋象賢)	부산 동래(東萊)	1606(선조38)	1624(인조2)
충렬사(忠烈祠)	-	충무공 이순신(忠武公 李舜臣)	경남 통영(統營)	1614(광해6)	1723(경종3)
충렬사(忠烈祠)	-	충민공 임경업(忠愍公 林慶業)	충북 충주(忠州)	1697(숙종23)	1727(영조3)
충민사(忠敏祠)	-	충장공 남이흥(忠莊公 南以興)	평남 안주(安州)	1681(숙종7)	1682(숙종8)
태사사(太師祠)	-	장절공 신승겸(壯節公 申崇謙)	황해 평산(平山)	고려(高麗)	조선 정조
포충사(褒忠祠)	-	충렬공 고경명(忠烈公 高敬命)	전남 광주(光州)	1601(선조34)	1603(선조36)
포충사(褒忠祠)	-	충강공 이술원(忠武公 李述原)	강원 철원(鐵原)	1665(현종6)	1668(현종9)
포충사(褒忠祠)	-	충무공 김응하(忠武公 金應河)	경남 거창(居昌)	1738(영조14)	1738(영조14)
표절사(表節祠)	-	충렬공 정시(忠烈公 鄭誓)	평북 정주(定州)	?	?
표충사(表忠祠)	-	충민공 이봉상(忠愍公 李鳳詳)	충북 청주(淸州)	1731(영조 7)	1736(영조12)
현절사(賢節祠)	-	문정공 김상헌(文正公 金常憲)	경기 광주(廣州)	1688(숙종14)	1693(숙종19)
청성묘(淸聖廟)	-	청혜후 백이(淸惠侯 伯夷)	황해 해주(海州)	1691(숙종17)	1701(숙종27)

자료 4. 각 서원별 보수정비 내용 및 예산

옥산서원 보수정비 예산 및 예산

년도	사업 내용	예산(국비+지방비)	비 고
2002	옥산서원정비(마사토다짐, 자연석쌓기 노거수 외과수술)	50,000,000	
2007	옥산서원정비(협문보수)	28,571,000	
2008	옥산서원정비(비각기단, 석축, 배수로 보수)	48,000,000	
2009	옥산서원정비(고직사 보수)	142,857,000	
2010	옥산서원정비(역락문 보수)	50,000,000	
2011	옥산서원정비(화장실, 단청, 구인당변와보수)	571,429,000	
	합계	890,857,000	

소수서원 보수공사 내역 및 예산

년도	사업 내용	예산(국비+지방비)	비 고
1999	- 소나무림 뿌리 수술 및 수세회복공사	70,000,000	
2005	- 학구제보수	57,143,000	
2005	- 강학당 보수	97,143,000	
2005	- 문성공묘 보수	160,000,000	
2008	- 일신재 보수 - 직방재 보수 - 장서각 보수	240,000,000	
2009	- 경림정 보수 - 철책 보수 등	271,429,000	
2011	- 취한대 보수 - 매표소 보수 - 진입로 정비	330,000,000	

	- 석축 정비 등		
	합계	1,225,715,000	

무성서원 보수정비 예산 및 예산

년도	사업내용	예산(국비+지방비)	비 고
1975	현가루 지붕공사, 사당 지붕공사	2,995,000	
1976	사당,내삼문,현가루,당장신설	10,000,000	
1983	강수제, 비각4동 보수	18,909,000	
1983	영당보수	14,900,000	
1988	방충 방연제 공사	-	
1989	강당보수	14,285,000	
	방충 방연제 도포공사	-	
1992	당장설치 73M, 내삼문,협문 보수	30,000,000	
1993	사우보수 11.3평, 현가루보수 8평	60,000,000	
1994	사우단청,기동수지처리 당장설치15.5M, 비각2동 이설	40,000,000	
1997	현가루 단청(7.25평), 당장기와보수 L=90.3M 강수제 기단,벽체,지붕변와 보수 배수로 및 석축설치 L=12M	62,451,000	
1997	사당,내삼문 기단 강당(기단,고막이,창호,변와)보수 경내주변정비(석축,자연석배수로, 화단경계석)	39,480,000	
1998	현가루기단및문짝보수 비각2동보수, 광장정비	120,000,000	
2000	화장실신축1동(26.95㎡) 사우변와보수, 홍살문개축	89,989,000	
2004	사우지붕및단청보수, 현가루단청보수	62,234,000	
2008	전사청 개축(41.58㎡)	192,000,000	
2009	방염제도포	20,000,000	
2010	지장물철거, 경내외마사포장, 홍살문설치	200,000,000	
2010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100,000,000	
2011	주차장 조성	50,000,000	
	합계	1,127,243,000	

도산서원 보수정비 예산 및 예산

년도	사업내용	예산(국비+지방비)	비고
1969~ 1970	정화 보수	96,600,000	
1972	공개관람료보수		
1974	도산서원 관리사무소 설치		
1975	진입로 개설 1.5Km	2,061,000	
1977	서원광장 조경	7,190,000	
1978	굴뚝 및 기단보수	3,714,000	
1979	경보기·보안시설 (장판고 외)	19,697,000	
1980	경보기 설치 (동서 광명실)	1,760,000	
1982	안내판 이건	3,147,000	

1983	화장실 신축	26,168,000	
1984	소화전 시설	45,000,000	
1989	배수로설치 휴관매설	11,000,000	
1989	주차장 배수로 복개공사	3,000,000	
1989	장판각 및 도산서당 보수	19,580,000	
1990	서원실측(영남대학교)	40,000,000	
1993	안내소 신축	100,000,000	
	사주문 보수	1,000,000	
1994	주차장 간이상수도 설치	15,000,000	
	하고직사 외 4개소 보수	9,000,000	
	옥진각 전기보수	6,000,000	
	적외선 감시카메라 설치	8,000,000	
1997	수세식화장실로 교체 신축	40,000,000	
	역학재 보수	40,000,000	
1998	전사청, 상·하고직사, 농운정사, 동광명실 보수	428,571,000	
1999	관리사무소 신축	571,429,000	
2001	관리사무소 홍보관 설치	200,000,000	
	관리사무소 홍보시설 설치	80,000,000	
2003	옥진각 리모델링, 안내판 이권 주변정비 등	700,000,000	
2007	동·서재, 진도문, 협문, 동·서광명실 보수	180,000,000	
2008	방충사업	150,000,000	
2009	도산서당, 장판각 및 협문, 노후건물 지붕보수	200,000,000	
	방재시스템 및 CCTV설치	150,000,000	
2010(문광 부)	방수층 설치, 소화수조설치, 주변정비	800,000,000	
2010	전선지중화, 화장실개축사업	500,000,000	
	합계	4,457,917,000	

장성 필암서원 보수 예산 및 예산

년도	사업내용	예산(국비+지방비)	비고
2000	토지 매입(12,949평), 건물 17동 보수	4,300,000	
2002	오수차집관로 설치	428,571	
2003	부지성도, 진입로 개설, 개거·암거 등 설치	2,571,428	
2004	전통 조경, 주차장 조성	2,571,429	
2005	진덕원·송의관 건립	3,600,000	
2006	유물전시관 증축	2,000,000	
2008	진덕원·송의관 내부 공사 등	576,000	
	합계	16,047,428	

병산서원 보수 예산 및 예산

년도	사업내용	예산(국비+지방비)	비고
1971	건물 일부 보수	2,000,000	
1979	건물12동, 담장 280m	56,315,000	
1980	기단보수 및 정화사업	144,100,000	
1988	서원실측	10,000,000	
1992	만대루 목계단 설치	1,350,000	
1997	방연도포 실시		
2002	만대루, 동서재	285,714,000	
2003	강당, 동재보수	92,857,000	
2006	대문채, 서재, 장판각, 협문보수 주변정비	300,000,000	
2007(유교)	관리사보수, 주변정비	201,000,000	
2008	소화전 증설 및 기계실설치	60,000,000	
2010	배수로 및 기단정비	50,000,000	
2010	방재시스템 및 CCTV설치	100,000,000	
2011	소화전 증설(상수도 직결)	30,000,000	

	합계	1,333,336,000	
--	----	---------------	--

돈암서원 보수예산 및 예산

년도	사업내용	예산(국비+지방비)	비고
1999	양성당 보수	142,857,000	
2000	응도당 및 사우보수	142,857,000	
2001	사우 단청 및 내부 보수	100,000,000	
2002	진입로 배수시설 보수	28,571,000	
2005	주차장 및 진입로 정비	142,857,000	
2005	산양루 복원	360,000,000	
2007	담장 보수	100,000,000	
2007	전기 시설물 보수	20,000,000	
2007	돈암서원 주변 민가매입 및 철거	280,000,000	
2009	돈암서원 감시카메라 등 설치	200,000,000	
2010	옥외소화전 설치	200,000,000	
	합계	1,717,142,000	

도동서원 보수 예산 및 예산

년도	공사내용	예산(국비+지방비)	비고
1973	-내삼문보수 -막돌담장해체쌓기 34m -C형 안내판설치 1개 -경고판설치 1개	7,085,000	
1975	-수월루신축(2층한식) 1동 -환주문보수공사 -내삼문 단청 -증반소 해체 번와 -막돌담장해체보수	6,480,000	
1976	-비각보수공사 1.71평 -일각문 담장기와 해체 쌓기	3,782,000	
1979	-관리사보수 1동 6.65평	2,915,000	
1981	- 관리사 헛간채 1동	2,188,000	
1988	-자연석 축대 보수 및 신설 -사당 좌,우,배면 기반석설치 -내, 외삼문 전면계단 축대 보수 -담장7m, 협문해체복원 -강당 방충 방연제 도포 29.2평	37,119,000	
1992	-소화전 설치	55,611,000	
1992	-중정당 보수 28평 -고직사 보수 23평	102,700,000	
1994	-증반소 드잡이보수 3.53평 -협문 1동 보수	16,951,000	
1995	-사당지붕 기와보수 37.2m2 -강당 툇마루 보수 -거인재 보수 24.91m2 -거의재 보수 24.93m2	42,079,000	
1995	-곶간채 보수 25.0m2	27,873,000	
1996	-훈증소독(문화재관리국 일괄시행)		
1997	-화장실개축 1.24평 -문간채보수 6.78평 -내삼문, 환주문, 수월루 전면 계단보수	41,040,000	
1997	-화장실신축 1동 -음료대설치 1기 -부지성토 및 주차장설치	93,490,000	

	-조경 1식		
1998	-배수로 설치 및 담장 보수 78m	15,210,000	
1999	-유물전시관 건립 1동 13.06평	100,000,000	
2004	-사당 보수	44,194,000	
2006	-강당 및 사당 기단 보수 129.52㎡ -사당 단청 79.79㎡	133,629,000	
2009	- 방재시스템 구축(CCTV 설치, 화재감지기 및 자동속보설비)	61,225,000	
2010	- 방재체계 구축(방수층 설치 3개소, 호스릴 소화전 설치 3개소, 소화수조 및 엔진펌프)	225,181,000	
2010	- 강당 기와고르기 및 순각판 보수 - 수월루 기와고르기 및 단청보수 - 비각 기와고르기 및 단청보수 - 전사청, 대문채 기와고르기, 미장 - 주변정비(석축보수, 안내판 설치, 은행나무 보호책 설치, 관리사 전면 계단 보수)	312,370,000	
	합계	1,331,122,000	

함양 남계서원 보수 예산 및 예산

년도	사업내용	예산(국비+지방비)	비고
1984	제실보수	5,662,000	
1990	강독 채정술	18,550,000	
1992	경판간 화장실 보수	17,970,000	
1994	사당, 내삼문 보수	43,200,000	
1996	보인재, 양정재 보수, 홍살문 해체 후 신설	40,400,000	
1998	별사, 비각 보수	145,630,000	
2004	- 보인재, 양정재 기단보수(미장철거, 강회다짐), 연지석축보수, 연지배수로보수, 풍영루 좌측담장 보수	35,673,000	
2006	남계서원주변 송림 보호공사 - 재선충 방제, 대나무등의 잡목제거	38,582,000	
2006	- 담장보수 L=75.8m(A구간4m, B구간 13.3m, C구간 17m, D구간 41.5m)	47,830,000	
2010	- 2010년 남계서원 소화시설 설치공사(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 옥외소화전 설치: 펌프실 및 물탱크설치 1식,강관 및 배관 설치, 자동화재탐지기 8개소	49,039,000	
2011	- 2011년 남계서원 CCTV 설치공사(방재시스템 구축사업) - CCTV 9대 설치, 감시 및 제어 녹화시스템 1식(관리사에 비치)	35,086,000	
	합계	477,622,000	

자료 5. 2000년~2011년도 서원보수정비 예산 현황(천원)

지정번호	지정명칭	사업내용	예산
2000년			
사적383	돈암서원	응도당 보수	142,857
사적166	무성서원	화장실 개축	100,000
사적242	필암서원	토지매입	4,285,714
사적55	소수서원	초가, 방앗간 등 건물 건립, 부대시설 조성	2,400,000
	합계		6,928,571
2001년			
사적383	돈암서원	응도당 보수	100,000
사적154	옥산서원	포사채, 경각, 민구제 등 보수	140,000
	합계		240,000
2002년			
사적 383	돈암서원	진입로 및 배수시설 정비	28,571
사적 242	필암서원	부지성토, 배수 등 부대시설 정비	428,571
사적154	옥산서원	진입로 정비	50,000
사적 55	소수서원	경령정 보수, 배수로 정비	70,000
사적 242	필암서원	성토 등 부대도목 우수, 오수관로 도로개설, 배수시설, 지중화	4,285,714

		사업(전기)	
사적 154	옥산서원	진입로정비(200m)	50,000
사적 55	소수서원	경령정 보수, 배수로 정비(6m), 외각담장(150m)	220,000
합계			5,132,856
2003년			
사적154	옥산서원	보안시설 설치	100,000
합계			100,000
2004년			
사적166	무성서원	현가루, 병기창 보수	285,714
사적242	필암서원	조경식재, 부지정리, 주차장화장실건립	2,571,429
합계			2,857,143
2005년			
사적 383	돈암서원	주차장 및 진입로 정비	142,857
사적 242	필암서원	진덕원, 송의관 건립, 경역 내 DC-TV 설치	3,600,000
사적154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기본설계 용역	50,000
보물 1402	소수서원	문성공묘 단청	60,000
보물 1403	소수서원	강학당 단청	97,143
사적 55	소수서원	학구제건물보수	57,143
합계			4,007,143
2006년			
보물350	도동서원	사당부장원(사당기단, 단청보수 강당 기단보수)	150,000
사적383	돈암서원	담장 보수	100,000
사적166	무성서원	정비계획 수립	100,000
사적242	필암서원	전시관 증축 및 내부전시시설 설치	2,000,000
사적154	옥산서원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	1,000,000
사적55	소수서원	철책보수	228,571
합계			3,578,571
2007년			
사적 383	돈암서원	주변환경 정비(지장물 철거)	280,000
사적 242	필암서원	소나무재선충방제	50,000
사적 154	옥산서원	협문보수	28,571
사적 154	옥산서원	전시관 건축공사	1,000,000
사적 170	도산서원	동재번와 등 건물보수	180,000
합계			1,538,571
2008년			
사적 166	무성서원	전사청 개축 등	140,000
사적 242	필암서원	재선충병 방제	42,000
사적 242	필암서원	송의관, 진덕원 건립 마무리 공사	300,000
사적 154	옥산서원	비각기단보수, 담장 및 석축 보수	35,000
사적 154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건립	500,000
사적 55	소수서원	건물 단청 및 강학당 등 보수	175,000
합계			1,192,000
2009년			
사적 488	도동서원	건물보수, 안내판 정비 등 주변 정비	350,000
사적 166	무성서원	사당, 강당, 현가루, 강수재, 내삼문, 비각 4동 방염제 도포	10,000
사적 242	필암서원	수목병충해 방제	42,000
사적 154	옥산서원	고직사 보수	100,000
사적 154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건립	900,000
사적 154	옥산서원	도난감지시설보수	10,000
사적 170	도산서원	도산서당, 장판각 및 협문 등 노후 건물 지붕보수 등	140,000
사적 55	소수서원	건물 기와고르기, 당간지주 주변 철책보수	190,000
합계			1,742,000
2010년			
사적 166	무성서원	사적지 진입로 바닥정비	105,000
사적 166	무성서원	진입로 정비	35,000
사적 242	필암서원	재선충 방제	42,000
사적 154	옥산서원	역락문 보수	35,000
사적 170	도산서원	전선지중화, 화장실 개축	350,000
사적 260	병산서원	배수로정비, 기단보수	35,000
합계			602,000
2011년			
사적 166	무성서원	주차장정비	50,000

사적 242	필암서원	재선충 방제	80,000
사적 154	옥산서원	노거수 정비	50,000
사적 154	옥산서원	화장실개축, 건물단청, 구인당 번외보수	571,429
사적 154	옥산서원	화장실 신축 및 주변정비	500,000
사적 260	병산서원	만대루 안전진단, 만대루 보수 실시설계	100,000
사적 170	도산서원	역락서재,진도문보수(단청), 고막이 및 아궁이보수, 배수로정비	130,000
사적 55	소수서원	관람로 정비, 취한대, 안내소 기와번와	330,000
사적 499	남계서원	풍영루, 경판고 보수	250,000
합계			2,061,429
총 합계			29,980,288

“서원 보존 관리에 따른 행정적 검토”에 대한 토론1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학과 교수

이 논문은 서원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존관리 정책의 현황을 잘 보여 준다. 서원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서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관계 당국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하여 문화재청의 정책방향과 예산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과 학계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서원 보존을 위한 좀 더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평소 궁금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논문에 의하면, 문화재청의 서원에 대한 정비 사업은 주로 유교 관광자원의 일환으로 파악되어, 주로 관광 시설 정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우선 방향은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관광정책 중심의 운영은 자칫 서원의 본래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비록 관광자원의 측면에서는 별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그 서원이 괄목할만한 인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혹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당연히 보존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아마 해당 정책 당국도 쉽게 동의할 문제라고 보여 지지만, 문제는 그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한 문화재청의 견해를 듣고 싶다.

2. 논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국가 사적으로서 지정된 서원의 기준은 사액서원이거나, 조선 후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남아있던 47개 서원 중 하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저명한 배향인물, 그 외에 서원 내 보물이 존재하거나, 전형적인 서원의 배치를 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기존의 기준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나름대로 충분한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자는 이러한 종래의 규정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원의 존재의미는 상기한 몇 가지의 형식논리를 뛰어 넘는 또 다른 고유한 가치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본다. 예로 상기한 기준에 미달되어서 탈락한 다수의 서원들이 기실 한국의 역사에서 엄청난 문화적 영향력과 정신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예로 남명 조식의 덕천서원이나, 율곡의 자운서원이나 우암 송시열의 화양동 서원 등은 현재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과 비교하여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화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화재청은 향후 이런 종류의 서원들에 대해 어떤 보존 정책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하다.

3. 논자는 전체 보수정비에산 중에서, 서원 관련 예산이 2010년도의 경우, 0.18%라는 낮은 예산 비율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물론 많은 서원은 관리 주체인 문중이나 유림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수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원도 중요한 문화자원임을 감안하여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아쉽게 느껴진다. 중국과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느끼는 사실이지만, 최근 중국은 서원 관련 보존 대책이 단순한 건축물 보존대책뿐만 아니라, 서적을 포함한 유, 무형자산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수준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 글에서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과 관심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문화계에서도 서원의 보존 정비가 단지 한 문종의 위선사업이라는 좁은 시각을 벗어나서, 함께 가꾸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9개 서원의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2004년도에는, 어

는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과연 필요한 예산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알려 주시기를 바란다.

4. 서원에 대한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문제에 관한 문화재청의 정책방향은 사실상 학계의 전반적인 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서원 보존에 대한 혁신적인 전기가 될 수 있으려면, 당연히 9개소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또한 건축적인 관점에 경사되었던 종래의 정비계획이 그 범위를 넓혀 인문학적인 측면, 경관적인 측면, 활용적인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이제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이 가능하도록 행정당국에서는 적극적인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학계에서도 중지를 모아 문화재청의 노력에 화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기회에 모든 사업이 실현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으나,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기관과 학계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종합정비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리라 본다.

“서원 보존 관리에 따른 행정적 검토”에 대한 토론2

송준태

영주시청 학예연구사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는 조선 중종 37년(1542)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 1495 ~ 1554)이 고려 말 성리학을 최초로 도입·연구한 이곳 순흥 출신의 유학자인 안향(安珦, 1243 ~ 1306)³⁴⁾ 선생의 연고지에 사당을 세우고, 다음 해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설립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 후 풍기군수 퇴계 이황(1501~1570)이 1549년 조정에 건의하여 이듬해 최초로 “소수서원(紹修書院)” 사액 현판을 하사 받았다. 이후, 서원의 전성기와, 남설기, 쇠퇴기를 거치는 동안 조선시대 유교 교육기관으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럼으로 서원의 가치는 발표자께서 서두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뿐만 아니라 역사문화경관, 무형유산적인 제향의식, 배향 인물 및 전적류, 목판 등 유무형의 문화재가 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오늘 발표자님께서서는 세계유산 등재 대상 9개 서원에 대하여 그간 문화재청이 시행한 행정 관리의 제반 사항(사적 지정 및 사유, 예산의 성격과 집행내역, 종합정비계획 수립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일선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서원 유림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건의와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재청에서 2000년에서 2011년까지 집행한 예산의 보수정비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재 주변 정비(34.2%), 전시교육시설 정비(31%), 당해문화재 보수정비(25%), 편의시설 정비(8.2%), 방제·방재시설 정비(1.27%), 기타(0.33%) 순이다. 이는 주로 유형적인 부분에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서원의 역사문화경관, 제향의식 등의 무형의 가치까지도 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조선시대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서원문화는 오늘날 산업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밀려 서원이 지니고 있던 본연의 역사문화 환경과 경제적 기반은 급속도로 붕괴되고 말았다. 현재 서원이 소유하고 있는 전답의 소출로는 향사시 제수 장만과 서원 유림의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진정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형의 제향의례나 서원 고유의 기능인 교육기관의 활성화에 따른 정책적 배려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천연기념물 중 노거수에 대한 민간신앙 즉 동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제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가 지니는 무형의 가치까지도 잘 보존·전승하고 있는 좋은 본보기라 생각되며, 더불어 서원스테이 활성화를 건의해 본다. 현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원스테이(강학체험 등)가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는 서원문화의 이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서재에 기거하면서 제향의례와 강학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한다면 서원 문화

34) 안향 : 호는 회헌(晦軒). 고려 말 유학자로 당시 고려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불교의 관념적, 현실부정적 철학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시 원(元)나라에서 성행하던 주자학을 도입(1289년 원나라 수도 연경을 방문하여 주자전서를 필사하고 주자의 초상을 모사하여 이듬해 귀국하여 고려에 주자학을 처음 소개)하여 고려 말기 유학진흥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때 들어온 주자학은 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았으며, 이로 인해 조선의 주자학자들은 안향을 동방의 주자라고 불렀음.

의 현대적 계승발전 및 문화유산의 올바른 가치 전달에 기여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 서원스태이와 제향의례 등의 무형적인 가치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을 건의해 본다.

다음으로 소수서원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유림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소수서원 <잡록>에 제월루 관련 기록을 보면 “지락재 남쪽 경림정 북쪽 시냇가에 비탈진 언덕이 있는데, 선배들이 일찍이 누각을 지을 만한 곳이라 하여..... 담장을 철거하고 터를 닦기 시작하자 담장 밑으로 한 길 정도에 큰 주춧돌 10개가 나왔는데 모두 한 줄로 나란히 있어 옛날 터임이 완전하였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옛날 숙수사가 있을 때 노여의 시에서 이른바 찬 시냇물 소리를 밟으며 나그네 누각에 오르네 라고 한 것이니 이곳이 분명 그 터가 아니겠는가”란 기록이 있다.³⁵⁾

소수서원은 아시다시피 통일신라시대 숙수사 절터였으며, 숙수사에는 “숙수루”라는 누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노여의 <順興宿水寺樓> 칠언절구 시가 「동문선」에 전해진다. 즉 “제월루”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있어왔던 “숙수루”를 조선시대(18세기 추정) 복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수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앞으로 제월루 복원이 어려워짐으로 유산 등재 전에 복원해야 한다는 유림의 우려와 주장이 일고 있다. 서원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발굴조사를 통한 유구의 확인 및 복원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문학적 측면, 건축학적 측면, 경관적 측면, 활용적 측면이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010년 11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 발간한 <사적지 조경정비 기준 확립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는 향후 유적지 정비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잔디, 조경수, 꽃나무, 식재 등으로 문화유산을 잘 정비하기 보다는 당해 유산이 지니는 역사, 문화, 인물 등 인문학적 기초에 바탕을 둔 역사문화경관을 잘 보존하여 선조들의 삶의 예지와 일이 담겨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부끄럽지 않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35) 소수서원, 「소수서원지」, 2007, p694 “...至樂齋之南景濂亭之北 臨溪斜岸 先輩嘗曰可樓...撤牆拓基 掘牆下丈許 得舊礎十餘巨塊 一行成列 宛如舊址 觀者皆曰 在昔宿水寺時魯瑣詩所謂冷踏溪聲客上樓者...”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의 서원' 관리의 올바른 방향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I. 서론

II.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련된 일반 사항

III. 진정성을 충족하는 보존관리

1. 정신과 감성
2. 입지와 주변 환경
3. 용도와 기능
4. 형태와 디자인
5. 재료와 구성 물질
6. 언어 및 기타 형태의 무형 유산

IV. 완전성을 충족하는 보존관리

V. 보존관리 계획의 수립

1. 관련 법령의 구비와 보호 경계선의 표시
2. 완충지대의 설정
3. 관리 체계
4. 지속 가능한 사용
5.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대한 반응적 모니터링
6. 위험에 처한 유산의 결정

VI. 결론

I. 서론

한국의 국가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 관리된다. 그런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는 국내법은 물론이고, 유네스코가 채택한 '세계유산협약' 및 이와 관련된 지침, 헌장, 선언문, 문서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 글은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적용되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으로 약칭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한국의 서원' 관리에 도움이 되는 관련 내용을 조망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특정 문화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려면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해당 문화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해당 문화유산이 운용지침에 명시된 1). 등재기준 1-6항목 중에서 한 가지 또는 둘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고, 2).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하고, 3).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판단하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 세계문화유산의 관리는 세계유산 등재 요건을 충족하는데 가장 중요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속적

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해당 서원의 올바른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점검되어야 한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한 ‘한국의 서원’은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이다. 운용지침에 명시된 세계문화유산의 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이들 서원에 적용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II.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련된 일반 사항

세계유산위원회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특정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 이유는 그 유산이 세계유산협약 “체약국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단히 소중하며 대체가 불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이처럼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자산이 훼손이나 망실로 인해 소멸된다면 전 인류의 유산에 있어 아주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점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하기 위해 그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다(운용지침 4). 세계적 가치가 있는 특정 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래, 국제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수용하여(운용지침 6) 이들 유산을 “미래세대로 전승”함을 목적으로 운용지침을 적용하고 있다(운용지침 7).

이와 함께,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전략 목표’(운용지침 25)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the 5Cs, 운용지침 26).

- 1). 세계유산목록에 대한 신뢰(Credibility)를 제고한다.
- 2).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Conservation)을 보장한다.
- 3). 체약국의 효과적 역량 구축(Capacity-building)의 개발을 촉진한다.
- 4).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참여 및 지지를 증진한다.
- 5).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에 공동체(Communities)의 역할을 증대한다.

이 전략 목표는 2002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제2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당시에는 4개 전략 목표) 대표성, 균형성 및 신뢰성을 갖춘 ‘세계유산목록’을 작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전략 목표는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외에도, 세계유산위원회는 특정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서술문’을 채택하는데, 이 서술문은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후 당해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와 관리를 하는데 주요한 참고자료가 된다(운용지침 51).

III. 진정성을 충족하는 보존 관리

운용지침에 명시된 진정성의 충족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신청한 문화유산의 진정성은 해당 “문화유산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특성과 이후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특성, 그리고 이들의 의미와 연계하여 진정성의 전 국면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 토대”를 구성하는데, 이는 해당 문화유산의 정보 원천에 대한 “신뢰성과 진실성을 갖추고 있다고 이해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운용지침 80)

진정성과 관련해서, 세계유산 등재 대상 유적이거나 구역에서의 해당 유산에 대한 재건축(복원, reconstruction)은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화된다. 재건축(복원)은 완벽하고 상세한 기록 문건에 기초할 때만 허용 가능하며, 절대로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운용지침 88)

진정성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각 문화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한 문화 안에서 상이할 수 있다. 모든 문화에 대한 존중은 문화유산을 대할 때 주로 그 유산이 속해있는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조망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운용지침 81)

세계유산 목록 등재 신청 준비 과정에서 해당 유산의 “진정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신청 체약국은 우선 진정성을 구성하는 적용 가능한 중요한 속성 일체를 파악해야 한다. 진정성에 관한 기술은 진정성이 위의 주요 속성 각각에 어느 정도 내재해 있는지 또는 이와 같은 각 속성에 의해 어느 정도 표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운용지침 85)

1994년 11월 1일에서 6일까지 일본 나라(奈良)에서 개최된 ‘세계유산협약과 관련된 진정성에 관한 나라 회의’에서 채택된 ‘진정성에 대한 나라 문서’는 세계 여러 곳의 문화 및 유산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현대 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확장시켰다. 이런 이유로, ‘진정성에 대한 나라 문서’는 모든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진정성을 충족하는 내용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에 근거해서 해당 문화유산이 진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문화유산의 유형과 그 유산이 속한 문화적 맥락에 따라 문화재가 진정성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 판단 기준은 운용지침 82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국의 서원’의 진정성과 연계시켜 순서를 조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정신과 감성 (spirit and feeling)

정신이나 감성과 같은 속성을 진정성을 충족하는 조건에 실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정신과 감성’은 해당 유산의 전통이나 문화적 특성과 관련되는 장소감(sense of place)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운용지침 83) ‘한국의 서원’은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정신과 감성의 관점에서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산수가 빼어나서 유가(儒家)가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하기에 좋은 곳에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서원’ 주변이나 영역 안에 새로 건물을 세울 경우 서원 건립의 정신과 감성의 관점에서 진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서원을 건립하여 심신을 단련한 정신적 배경에는 그들이 지향한 천인합일사상(天人合一思想)이 깊게 깔려 있다. 유가들에게 천(天)은 자연 사물이 존재하게 되는 원리이자 종교적 근원으로 파악되어, 하늘의 섭리는 최선의 도덕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천도는 인간을 통해 이해, 실현되는 존재로 규정한 유학에서는 하늘의 근본적인 덕성이 인간의 심성 속에 내재한다고 보고, 인간 도덕의 근원을 하늘에 둔다. 서원이 주변 산수가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데에는 유가들이 자연 속에 은둔하여 심신을 수양하며 천인합일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정신은 서원의 진정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하게 작용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서원 주변은 사람들로 넘치는 시정과 같은 시끄러운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입지와 주변 환경 (location and setting)

‘한국의 서원’의 ‘입지와 주변 환경’은 ‘정신과 감성’과 관련된 판단 기준에 적용된 내용과도 관계가 크다. 한국 서원의 효시로 꼽는 백운동서원(1550년 소수서원으로 사액 받음)이 1543년 세워진 이후, 조선시대의 많은 서원은 군현 소재지에서 벗어난 곳이면서, 뒤로는 나지막한 산이 있고, 앞으로는 냇가 흐르거나 들판이 펼쳐진 산수가 수려한 곳에 주로 건립되었다. 이러한 입지와 주변환경은 ‘한국의 서원’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국의 서원’ 주변경관은 조선시대 도학자들의 사상과 한국의 전통자연관을 반영하고, 서원이 들어선 장소는 유가들이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 천인합일을 체득하는 경관이였다. 유가들은 또한 서원 주변 자연경관을 이루는 나무·돌·물·지형·산 등에 도학적 사고로 전환케 하는 이름을 붙여 사람들이 유가들의 세계관으로 자연과 조우하도록 하였다. 서원의 입지와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도산서원의 모체가 된 도산서당을 짓고 난 다음 이황이 쓴 「도산잡영(陶山雜詠)」에 잘 묘사되어 있다. 「도산잡영」은 도산서당 주변의 경계에 대한 이황의 마음가짐

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충만해 있다. 이항은 도산서당 일대에 유정문, 정우당, 절우사에 이르는 공간을 조성하였고, 몽천, 열정, 국구암, 천연대, 천광운영대, 탁영담, 반타석 등의 경물을 통해 그의 유가적 자연관을 펼쳤다. 그런데, 도산서원 주변의 경관과 환경은 1976년 안동댐이 준공되고 안동호에 담수가 되면서 크게 변하였다.

유교건축이 남향을 하도록 건물을 배치하는 것과 대비해, ‘한국의 서원’ 중에는 지형조건에 따라 남향이 아닌 좌향으로 서원의 중심 건물을 배치한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옥산서원은 서쪽을 향하도록 중요한 건물들을 배치하여 서원 앞으로 흐르는 계류를 건너 자옥산을 바라보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도동서원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동북향을 하고 자리를 잡게 함으로서 주변 자연 지세에 잘 어울리도록 하였으며, 돈암서원은 동향을 하며 서원 앞으로 펼쳐진 넓은 들판을 내다보게 배치함으로서 자연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였다.

‘한국의 서원’이 조선 시대 서원의 입지조건과 주변환경을 지금도 잘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정성의 관점에서 점검되어야 한다. 특히, 서원 주변에 새로 건물을 세울 경우 서원의 입지와 주변 환경을 판단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유가들이 서원을 조영하면서 형성한 주변경관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훼손된 서원 주변경관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의 서원이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예를 들어, 필암서원 주변에는 교육관과 유물전시관이 들어섰고, 옥산서원 남쪽에도 유물전시관이 조성되었으며, 남계서원, 돈암서원, 무성서원 등은 주변 ‘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외에도 도동서원은 서원 앞을 지나는 도로의 확장, 주변에 난립한 건물들로 경관이 훼손되었고, 병산서원은 서원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변의 백사장이 사라질 위험에 있다.

3. 용도와 기능 (use and function)

서원의 용도와 기능은 조선 사회의 종식과 함께 기본적으로 사라지고, 제향 기능만 현재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서원’의 용도와 기능은 진정성의 충족 및 지속성의 관점에서도 현대적 활용에 대한 폭 넓은 검토와 기획이 요구된다.

실제로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은 서원별로 특별한 교육철학이 반영된 공간을 조성하였고, 당시 공론을 꾸려가는 지성들의 집회소, 사회 교육의 실현 장소, 도서의 보존과 출판, 그리고 도덕의 실천 장소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이와 같이 서원은 한국 유교문화(‘한국식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에 속한다.³⁶⁾

4. 형태와 디자인 (form and design)

문화유산의 진정성은 해당 유산의 형태와 디자인 측면에서 크게 중요시 된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의 배치, 형태, 디자인 등이 진정성을 제대로 충족하는지 점검되어야 하고, 동시에 보존관리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진정성은 곧 해당 유산의 신뢰도와 진실성을 판가름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서원’의 형태 및 디자인에 대한 진정성은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에 근거해서 특성을 형성하는 판단 기준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5. 재료와 구성 물질 (materials and substance)

재료와 구성 물질은 앞에서 언급한 ‘형태와 디자인’과 함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특히, 건물의 주요 부재가 목조인 경우, 건물을 수리, 보수하면서 해당 건물의 진정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목조 문화유산의 보존은 원 재료의 보존과 상관없이 그 유산이 보유한 가치에 근거한다는 ‘진정성에 대한 나라 문서’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가 된다.

36) 이혜준·김덕현·이왕기, 「서원 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10). 프랑스의 저명한 문화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1981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러한 한국의 서원에 깊은 감명을 받고, ‘유럽에는 도서관을 갖춘 아카데미가 도시에만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때부터 고을마다 대학 형태의 교육기관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서원과 관련된 문헌 자료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이런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6. 언어 및 기타 형태의 무형 유산 (language and other forms of intangible heritage)

조선 시대의 서원은 주지하듯이 기본적으로 강학과 제향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서원의 제향은 무형 유산의 지속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서원'은 제향 기능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진정성이 강조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성은 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진정성에는 환경, 장소, 유산의 특징은 물론이고, 해당 유산에 대한 가치와 그와 연관된 특징이 포함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서원'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경, 장소, 유산의 특징이 어떤 모습으로 현재 나타나 있는지 진정성의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

IV. 완전성을 충족하는 보존 관리

완전성은 원래 자연유산에 적용되었으나, 지금은 유산의 전체성 및 본연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관점에서 문화유산에도 적용된다. 해당 유산이 완전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에 근거해서 판단한다.(운용지침 88)

1.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가.
2. 당해 유산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특징 및 과정을 완벽하게 대표하기에 충분한 크기인가.
3. 개발 및/또는 방치에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끼치고 있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문화유산의 경우, 당해 유산의 물리적 구조 및/또는 중요한 특징은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퇴락 과정의 영향은 제어되어야 한다. 당해 유산이 지닌 가치의 총체성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의 상당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 이들의 고유 독특한 특질에 있어 필수적인 문화 경관이나 역사적 고장, 기타 생활유산에서 발견되는 관계 및 역동적 기능 역시 유지되어야만 한다.(운용지침 89)³⁷⁾ 이런 이유로 완전성의 충족은 유산의 '보전'과 크게 관계 된다.

'한국의 서원'이 운용지침에서 요구하는 완전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서원의 기능을 충족시킨 강학공간, 제향공간, 부속공간, 진입공간을 구성하는 건물들이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서원 건립 당시의 입지조건과 주변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지 등의 관점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V. 보존관리계획의 수립

세계유산의 보호 및 관리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물론이고, 등재 당시의 진정성과 완전성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향상되어야 한다.(운용지침 96) 이런 이유로 인해,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신청하는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운용지침에 명시된 세계유산등재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보존관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의 구비와 보호 경계선의 표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모든 유산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인 법률, 규제, 제도 및/또는 전통적 보호와 관리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에는 충분히 표시된 경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체약국 측은 신청 유산을 위해 국가, 지역, 지방 및/또는 전통 차원의 보호 조치가 완비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운용지침 97)³⁸⁾

37) 문화유산에 대한 완전성 요건의 적용 사례는 현재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개발 중이다.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법률, 규제 대책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나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모를 개발이나 변화로부터 확실하게 유산을 존속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체약국은 이와 같은 대책이 전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을 보장해야 한다.(운용지침 98)

경계 표시는 신청 유산의 효과적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경계선은 당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을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도식화 되어야 한다.(운용지침 99)

2. 완충지대의 설정

유산의 적절한 보존을 위해 필요한 곳은 반드시 충분한 완충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운용지침 103) 신청 유산의 효과적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완충지대란 당해 유산의 주변 구역으로서, 이곳에는 신청 유산의 보호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 및 개발에 대한 법률 및/또는 관습상의 제재가 보충적으로 행해지는 구역이다. 여기에는 신청 유산을 둘러싼 인접 환경과 중요 경관은 물론이고 신청 유산과 그것의 보호를 위한 지원 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다른 구역 및 속성도 포함되어야 한다.(운용지침 104)

완충지대 설치안이 제외된 세계유산등재신청서의 경우, 신청 문건에 완충지대가 불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야 한다.(운용지침 106) 완충지대는 일반적으로 신청 유산의 일부가 아니지만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이후 완충지대에 가해지는 변경 사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운용지침 107)

운용지침의 완충지대와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역사문화환경"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문화재 보호법 제2조)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00미터 이하의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서원 건립의 정신, 입지와 주변환경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확대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관리 체계

운용지침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유산에 대한 관리 체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 체계의 목적은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신청 유산의 효과적 보호를 보장하는 데에 있다.(운용지침 109)

체약국은 세계유산을 위해 효과적 관리 활동을 전개할 의무가 있다. 체약국은 유산 관리자, 관리 담당 기관 및 기타 파트너, 유산 관리의 관련 이해 당사자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운용지침 117)

각 신청 유산은 가급적 참여적 수단을 통해 당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어떻게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상술한 적절한 관리 계획이나 기타 문서화된 관리 체계를 구비해야 한다.(운용지침 108)

효과적 관리 체계는 신청 유산과 그것의 문화적, 자연적 맥락의 유형 및 특성, 그리고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관리체계는 상이한 문화적 관점과 가용 자원,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리 체계 상에는 전통적 관행, 기존의 도시 또는 지역 계획 메커니즘 및 기타 공식, 비공식의 계획 통제 메커

38)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는 세계유산 지정구역에 대응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정의하고 있다.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 보호법 제2조)

니즘이 결합될 수 있다.(운용지침 110)

관리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운용지침 111)

- a) 당해 유산에 대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철저한 이해의 공유
- b) 계획, 시행, 모니터링, 평가 및 피드백의 순환
- c) 파트너 및 이해 관계자의 참여
- d) 필요한 자원의 할당
- e) 역량 구축 및
- f) 관리 체계의 작용에 관한 신뢰성 있고 투명한 설명.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을 신청할 경우, 통합 관리체계나 메커니즘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신청서에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운용지침 114) 연속유산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여 관련되는 구성요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운용지침 137) '한국의 서원'은 연속유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

- a) 동일한 역사-문화적 집단
- b) 지리적 지대를 특징짓는 동일 유형의 유산
- c) 동일한 지질, 지형학적 구조, 동일한 생물지리 권역 또는 동일한 생태계 유형

단, 당해 유산은 전체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면 족하며, 개별 구성요소 모두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야 할 필요는 없다.

신청 유산이 세계유산위원회의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관리 계획이나 다른 관리체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해당 체약국은 이와 같은 관리 계획이나 체계가 언제쯤 수립될지, 새로운 관리 계획이나 체계의 준비 또는 시행에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체약국은 관리 계획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당해 유산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다른 문건(예: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운용지침 115)

4. 지속 가능한 사용

세계유산은 생태학적, 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현행 용도와 예정 용도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 체약국 및 파트너는 이와 같은 지속 가능한 사용이 당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리고 완전성 및/또는 진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그 용도는 생태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반드시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일부 유산의 경우 사람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운용지침 119)

5.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대한 반응적 모니터링

반응적 모니터링(reactive monitoring)이란 세계유산사무국과 유네스코의 다른 기관 및 자문기구가 위험에 처해 있는 특정 세계유산의 보존 상태를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를 위해 체약국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유산의 보존 상태에 영향을 미칠 작업이 진행될 때마다 매년 2월 1일까지 세계유산사무국을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에 관련 보고서 및 영향 평가를 제출해야 한다. 반응적 모니터링은 또한 이미 등재되었거나 또는 등재 예정인 유산이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예견될 경우에도 적용된다.(운용지침 169)

6. 위험에 처한 유산의 결정

문화유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경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결정된다.(운용지침 179)

- a) 확실한 위험: 유산의 위급함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 i) 재료의 심각한 훼손
 - ii) 구조 및/또는 장식을 구성하는 요소의 심각한 훼손
 - iii) 건축 또는 도시계획상 일체성을 이루는 내용의 심각한 퇴색
 - iv) 도시나 지방의 공간 또는 자연환경의 심각한 악화
 - v) 역사적 진정성의 중대한 상실
 - vi) 문화적 중요성의 중대한 상실
- b) 잠재적 위험: 유산의 본질적 특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잠재적 가능성에 직면한 경우
 - i) 보호의 규제를 저하시키는 유산의 법적 지위 변경
 - ii) 보존정책의 부재
 - iii) 지역계획 프로젝트의 위협적 영향
 - iv) 도시계획의 위협적 영향
 - v) 무력 분쟁 사태의 발발 또는 위협
 - vi) 지질, 기후, 또는 기타 환경요인으로 인한 점진적 변화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결정이 되고, 계약국이 위험 요소를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문화유산은 운용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의거해서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VI. 결론

이상,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한 ‘한국의 서원’ 관리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세계유산은 한 민족, 한 지역, 한 국가에서만 보존되고 전승되어야 하는 유산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유산이라는 점을 반드시 주지해야 한다. 특정 국가나 지방 또는 지역이 그곳에 소재하는 어떤 유산을 자신만을 위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려고 한다면, 그 행위는 세계유산 제도의 기본정신에 기본적으로 어긋난다. 세계유산은 모든 국가, 사람, 다음 세대가 함께 향유하도록 열려있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세계유산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기 위해 보존과 관리를 가장 중요시 한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주변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서원 건립의 목적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서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원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고, 주변환경과 경관의 보전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해당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문헌

세계유산협약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용지침

진정성에 관한 나라 문서

강경환 · 이해준 · 김덕현 · 이왕기 · 김영범,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권오영, 「퇴계의 「도산잡영」의 이학적(理學的) 함의와 그 전승」, 『한국한문학연구』, Vol.46, 한국한문학회, 2010.

김덕현, 「서원 경관 답사자료: 무성 · 필암 · 남계 서원 문루 기문, 기타」, 2011년 4월 16~17일, 유인물.

김덕현, 「서원 경관의 보존관리 활용 방안」, 장성 필암서원 서원 보존정비활용 방안 워크숍, 2010년 6월 30일, 유인물.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서원, 한국 사상의 숨결을 찾아서』, 예문서원, 2000.

영남문헌연구소 편, 『소수서원지』, 소수서원, 2007.

윤천근, 『퇴계 선생과 도산서원』, 지식산업사, 1999.

이상해, 「세계유산 가치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현장 실무」, 2011.

이상해,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에 반영된 퇴계의 서원 건축관」, 『퇴계학보』, 사단법인 퇴계학연구원, 110집, 10월호, 2001.

이상해, 『서원』, 열화당, 2002.

이우성 편, 『도산서원』, 한길사, 2001.

이해준 · 김덕현 · 이왕기, 「서원 보존 · 정비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10.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정순목, 『퇴계평전』, 지식산업사, 1989.

정순우, 「남계서원의 역사와 소장 자료의 특징」, 2011년 4월 17일, 유인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의 서원’ 관리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토론1

이해준

공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1) 이상해 교수님의 발제문은 한국서원의 세계유산 목록등재와 관련된 상세한 논의와 주안점을 적시하여 준 것으로, 1)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련된 일반 사항 2) 진정성을 충족하는 보존 관리 3) 완전성을 충족하는 보존 관리 4) 보존관리계획의 수립을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교수님은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주변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서원 건립의 목적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서원’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원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고, 주변 환경과 경관의 보존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해당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토론자는 미력하나마 한국의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자는 논의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여해 왔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오늘의 이 자리에서 이번 발제문 마지막에 보이는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진정성과 완전성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왜 그렇게 크게 가슴에 와 닿는지 모르겠다. 정말 시간과 의식과 노력, 그리고 협력의식이 필요함을 다시 절감하면서 간략하게 토론문을 작성하여 본다.

(2) 이 교수님은 ‘진정성을 충족하는 보존 관리’에서 ① 본래부터 지니고 있던 특성, ②이후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특성, 그리고 ③ 재건축(복원, reconstruction)은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화되는데, 재건축(복원)은 완벽하고 상세한 기록 문건에 기초할 때만 허용 가능하며, 절대로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운용지침 88)

이 경우 진정성은 무엇으로, 어떻게 증빙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다. 물론 건축물의 경우 유형적인 건축기법 등은 자료가 말하여 주는 부분이 있어 가능하겠지만, ① 정신과 감성 ② 입지와 주변 환경 ③ 용도와 기능 같은 경우 이를 증빙할만한 역사기록물·고문서 등 자료의 확보와 제시가 필요할 듯한데 대개 그런 자료의 정리는 어느 정도 선까지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란다.

다음으로 ‘형태와 디자인’의 경우도 진정성 부문에서 중요시 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 내용이 얼른 상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보존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문제이자, 민감하지만 중요한 문제인 ‘완충지대의 설정’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듯싶다. 여러 유산의 등재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한국서원의 진정성과 문화특성을 고려하여 선생님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서원’형의 완충지대 설정 고려사항이 있다면 언급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한국의 서원’은 연속유산에 속하기 때문에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을 신청할 경우, 통합 관리체계나 메커니즘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신청서에도 반드시 기재(운용지침 114)하여야 하는 지침을 상기할 때 총괄적 보존·관리체계(법적 협의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상황을 보면 지자체로 분리된 것도 큰 문제이지만, 보존, 관리, 활용의 내용상으로도 정비 · 복원 · 보존은 국가(문화재청), 지자체가, 활용·관광자원화 지원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지·관리는 각 서원 자체가, 그리고 조사·연구·교육 등은 전문연구단체 등이 나누어 맡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지원과 관리가 아니면

연계 관리 체제상 문제가 많고 보존과 활용,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 지원정책의 필요 때문에 통합적인 보존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전망이나, 향후 방향에 대하여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렵겠지만, 끝으로 제시하신 등재조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수정, 보완, 준비하여야 할 한국서원의 과제를 몇 가지 지적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국의 서원’ 관리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토론2

허 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지닌 유산을 지정하고 이를 후세에 전달하는 세계유산사업은 유네스코의 대표적 사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매년 25점 내외의 문화 및 자연유산이 신규유산으로 등재되는 경향을 볼 때 조만간 세계유산 1,000점은 달성되리라 본다.

1.

최근, 세계유산사업에서 가장 예민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 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느냐는 유산지정의 이유이다. 유산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학문적 판단기준보다 정치적 의도성과 전략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는 바람에 세계유산 사업의 원래 취지가 방향을 잃고 “과도한 관광개발”, “의도적인 정치화”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우에는 “지역의 경제발전,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앙정부 기관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상, 체면, 거시적 문화외교 및 관광진흥”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유산 사업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고 있느냐는 날카로운 지적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것에 대해 비난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산보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15년 동안 우리의 세계유산사업 추진경향을 보고 있노라면 행정목적과 정치적 의도성이 앞서 있는 바람에 1) 주민과 일반대중들의 세계유산보전을 위한 충분한 참여, 2) 적절하고 수준높은 보전관리제도 수립이 이뤄지기 전에, 즉 충분한 탐과 노력이 없이 너무 빨리 열매를 따려는 조급함이 있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다.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가 없을 경우(설악산 등재신청), 유산보전관리에 어떤 부정적 결과가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신문화의 상징유산인 서원의 경우, 1)여러 관련이해 당사자간의 균형되고 바람직한 보전관리 인식의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2)경우에 따라서는 보전관리의 거버넌스 체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3)사라져간 서원의 중요 기능을 현대적 개념으로 재부흥시켜 살아있는 유산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유산 제도에서 이러한 당면과제에 대해 성공적인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

오늘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각국의 문화유산의 유형을 볼 때, 유교관련 유산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인류문명 발전의 중요한 핵을 갖고 있는 유교관련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생각한다. 등재유형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유교관련유산, 교육관련 시설의 국제비교가 용이하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규명하기 위한 유사 유산과의 비교의 방향과 전략적 방법이 주요 과제로 강조되어야 한다.

3.

현재 우리의 서원은 유네스코의 잠정목록에 올리고 난후,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구축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최소 3-4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만약 진정성과 완전성 규명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보완시간을 감안하다면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지정한 9개 서원(대구 도동, 논산 돈암, 정읍 무성, 정성 필암, 영주 소수, 경주 옥산, 안동 도산, 병산,

함양 남계서원)이 지리적으로 다 떨어져 있다. 그리고 소유 및 운영의 관리방식도 다 상이하다. 문화재청에서 최근 서원보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하였지만 유산의 외형적 관리에 치중한 감이 있어 세계유산 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연속유산으로 지정될 서원의 통합적 관리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4.

한국의 서원에 대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철학자, 교육학자들이 세계교육학술제도를 기술하면서 서원의 특이성을 언급한 문서를 가끔 접한다. (영국의 세계적 게임업체 Sid Meier사의 Civilization 4에 서원이 게임유니트로 활용됨) 이는 서원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先禮後學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원의 주요기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적용시키는 교육문화 콘텐츠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

요즘 세계유산 사업은 유산의 물리적 유형성의 보전과 함께 유산의 내재적, 본질적 무형가치의 통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신유교주의 New Confucianism의 문명적 고찰, 인간성 회복, 신인본주의, 경제성장의 동력 등 인문학, 정치학, 경제학에 걸쳐 유교의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있으면 이의 중심에 한국의 서원이 놓여 있다. 따라서 서원의 건축물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 무형의 통합적 가치의 상징물들을 함께 등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원에서 행했던 제사, 교육 뿐 아니라 공동의식과 관행, 의복, 음식, 에티켓 등 여러 무형적 요소에 대한 현대적 응용이 중요할 뿐 아니라 이러한 융합적, 통합적 인식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의 서원은 시대를 초월하는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자리매김을 하리라 생각한다.

6.

보호지역과 완충지역 설정의 과학화가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500m를 기준으로 원형 형태로 둥글게 보호지역과 완충지역을 설정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각 서원의 지리적 위치, 주변 자연경관의 구성, 현재의 민간가옥 등을 잘 파악하여 세계유산 OUV에 걸맞는 충분한 면적, 기능, 구조를 연구해서 보호 및 완충지역을 획정해야 한다. 지자체는 각 유산의 OUV가 유지될 수 있는 충분한 공간확보를 위해 토지매입, 철거, 원 경관의 복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완충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OUV 유지의 최소 단계라도 충족시켜 놓아야 한다.

한국의 서원문화재 보존관리 현황과 미래

사회: 이해은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